

# 2016 통일리더캠프

소  
가  
민  
모  
임  
지  
방



## 차 례

1차	수도권	초등학교	.....	1 - 3
2차	전북권	초등학교	.....	4 - 5
3차	전북권	중학교	.....	6 - 11
4차	수도권	중학교	.....	12 - 16
5차	부산/울산/경남권	초등학교	.....	17 - 21
6차	부산/울산/경남권	중학교	.....	22 - 31
7차	강원권	초등학교	.....	31 - 36
8차	강원권	중학교	.....	37 - 39
9차	제주권	초등학교	.....	40 - 55
10차	제주권	중학교	.....	56 - 58
11차	광주/전남권	중학교	.....	59 - 65
12차	광주/전남권	초등학교	.....	66 - 69
13차	대전/세종/충남권	초등학교	.....	70 - 73
14차	대전/세종/충남권	중학교	.....	74 - 77
15차	대구/경북권	초등학교	.....	78 - 81
16차	수도권	초등학교	.....	82 - 89
17차	수도권	중학교	.....	90 - 97
18차	충북권	초등학교	.....	98 - 100
19차	충북권	중학교	.....	101 - 104
20차	강원권	중학교	.....	105 - 108
21차	수도권	초등학교	.....	109 - 113
22차	광주/전남권	중학교	.....	114 - 120
23차	대전/세종/충남권	중학교	.....	121 - 129
24차	수도권	중학교	.....	130 - 132
25차	수도권	중학교	.....	133 - 136
26차	수도권	중학교	.....	137 - 145
27차	수도권	중학교	.....	146 - 151
28차	대구/경북권	중학교	.....	152 - 160
38차	마무리캠프	초/중학교	.....	161 - 176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차 / 1조
- 2.학교명/학년 : 귀인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염서진
- 4.소감문

나는 처음에 이 캠프를 신청 했을 때 내가 뽑힐지 긴장이 되었는데, 뽑혀서 너무 기뻐다.

그리고 더욱더 기뻐던 것은 1박2일 캠프를 통해서 너무 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캠프에서 배운 것들이 더욱더 재미있었던 이유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번 캠프에서 한 '눈높이 통일 특강'은 통일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 이었다. 그리고 '통일송 콘서트'는 더욱더 캠프를 재미있게 만드는 프로그램 이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 두 프로그램 못지않게 너무 재미있었다.

나는 이 캠프를 통해서 배운 것을 말하자면, 통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캠프에서 그전의 내가 아니라 바뀐 나이기 때문에 ,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우리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 라고 정말로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할 용기가 생긴 것도 모두 이 1박2일 통일 캠프 덕분이였다. 나는 그래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꼭! 이 통일리더 캠프를 신청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통일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내가 통일을 앞당기려고 노력, 또 노력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캠프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 사람들을 더 이상 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캠프가 너무 재미있었다. 최고!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신천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이유선
- 4.소감문

이 캠프에 오기 전에는 북한이 통일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매우 나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캠프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눈높이 강의를 듣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편익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통일이 놀자에서는 체육 같은 활동으로 꼬리잡기 피구와 남남북녀를 하였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체육활동이 아니여서 조금 아쉬웠다. 통일동화 만들 때 우리 7조가 모두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고 책 내용이 비슷해서 기뻐했다. 다음으로 마당극을 보러 갔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모두 '뽕'터졌다. 네 분들이 너무나 연기를 잘 해주시고 내용도 재미있어서 재미있게 1시간을 보냈다. 밥은 모두 맛있었고 통일송 콘서트 때는 우리 조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제일 좋았다. 하지만 조금 더 연습하고 시간만 있었다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숙소로 가보니 방이 깨끗하고 좋아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다음날에는 통일리더십이라는 강의를 듣고 북한 대학생언니 오빠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질문하였고 그것에 대해 친절하게 대답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무리로 통일 다이어리로 배운 내용을 통합으로 정리해서 더 도움이 되고, 10년, 20년 후에는 북한과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친구들한테 통일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캠프에 오길 잘 한 것 같고 너무 도움이 되어서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너무나 좋은 시간 이였고, 1박 2일 동안 감사 합니다 ~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차 / 1조
- 2.학교명/학년 : 동패 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이은서
- 4.소감문

처음에 신청하고 선정되었다는 것이 기뻐다. 그런데 와보니 정말 좋았다. 가장 좋았던 시간은 탈북 청소년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재미있고 흥미 있었다.

그리고 발표 기회를 여러 번 주어서 좋았다. 통일 다이어리를 만들 때 무대에 서서 발표했는데 박수치며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좋았다.

배운 내용 중 게임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방법이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즐거운 게임을 통해 공부해서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이 캠프에 와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북한모습은 어떤지, 내가 생각하는 북한이미지는 어떤지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북한은 우리랑 통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온 언니,오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 중 “통일송도 부르고, 통일의 좋은 점 등을 학교에서 배워”라는 내용을 듣고 나의 편견이 없어졌다. 이번 캠프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더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싶다.

여기 이 캠프에서 느낀 교훈은 “통일을 기다리면 멈추고, 통일을 만들고 노력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나는 진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았고 이 캠프가 끝난 지금 이 시각에도 통일을 해야 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친구들에게 얘기 할 것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전북권 / 2차 / 9조
- 2.학교명/학년 : 익산 어양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하겸
- 4.소감문

처음 통일리더 캠프에 참여했을 때에는 왜 “리더”가 붙는지 궁금해 했었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도 몰랐다. 나는 논술 공부를 통해서 통일의 중요성과 통일됐을 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통일 한국의 가치가 7600조원이 되고, 문화, IT, 스포츠 등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날 더욱 집중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같이 연수원에서 잘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캠프에서 통일 노래를 부르는 ‘통일송 콘서트’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 조가 부르는 노래도 좋았고,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이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통일 특강’ 이었다. 내가 잘 모르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던 내용들을 잘 알게 되었고, 통일 한국이 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 통일과 관련된 체육활동, 문제풀기 등이 통일리더 캠프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구성요소들이고, 통일리더 캠프에서 친구들과 나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만약 중학생 때 올 기회가 있다면 또 오고 싶다. 선생님께서 리더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 우리가 리더가 되어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어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전북권 / 2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전주 인봉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윤지영
- 4.소감문

5월 9일 월요일, 나는 통일캠프에 참여했다.

평소에 통일에 관심도 많았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 등도 관심이 많았다. 통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통일할 때 드는 비용,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친구들과는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도 없었고 통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친구가 알려준 통일리더 캠프를 보고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이곳에서 한 것은 통일 빗장열기였다. 다른 나라말로 인사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다음은 롤링페이퍼였는데 내용이 비슷하여 빵 터졌다. 첫 시간, 마지막으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뉴스에서 북한 핵무기라느니 전쟁이라느니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던 나는 북한을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았다. 그 다음은 눈높이 통일특강이었다. 통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다. uni-star의 uni는 통일의 영어를 짧게 줄인 것이고, s는 스포츠, t는 여행, a는 예술, r은 자원이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S,T,A,R을 보니 통일을 하면 우리 한반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통일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준 특강이었다. 그 다음은 통일이 놀자였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장소 단어를 맞추어 상품을 얻는 '남남북녀'라는 놀이도 하였다. 그 다음은 내가 만드는 통일동화였는데 동화를 내가 만드니까 새롭기도 하였고, 재미있었다. 창의력이 필요한 놀이라서 힘들기도 하였다. 그 다음은 통일 마당극이었는데 이 차례가 가장 인상 깊고 재미있었다. 통일기차로 미래를 표현한 것이 재미있었고 남북 분단 때문에 만나지 못한, 헤어진 사연도 재미있었다.

그 다음은 통일송 콘서트, 초등통일리더십, 탈북청소년과의 만남, 통일다이어리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통일 캠프를 통해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원래는 통일에 대해 알기는 했지만 설명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는 좋은 점을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배우니 더 재미있었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셔서 더욱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캠프였다.

이제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노력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전북권 / 3차 / 3조
- 2.학교명/학년 : 온양중학교 / 3학년
- 3.성명 : 박주연
- 4.소감문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과의 만남' 이었다. 기대에 가득 차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억이 난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현실을 모르지만, 직접 탈북을 하시고 그 경로를 밟아서 한국에 오신 탈북 청소년 분들을 만나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니 훨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실감이 났다. 특히 영화 속에서만 보던 김정은 사진을 집에 진짜로 걸어 놓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닮는다는 말이 정말 신기했다. 또한 새터민 분들께서 같은 한국어지만 발음이나 음의 높낮이 등, 다른 점이 많은 듯 적어서 북한의 문화어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는 나이에 따라 언니, 오빠라고 부르지만 그 분들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점이었고, 지역에 따라 우리보다 더 많은 문화적 차이가 북한에 존재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나는 문과 성향이 강해서 인문사회와 관련된 과목을 좋아한다. 이 캠프에서 가장 내 적성과 맞았던 것은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 프로그램 이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관련 강의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라 흥미로웠다.

이 캠프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2가지이다. 우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나 조의 의견을 발표하는 점이였다. 나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편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편이다. 어찌다가 순서대로 발표해야 해서 '중등 통일 리더십' 프로그램 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무대 공포증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당당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로우면서도 꼭 지켜야하는 규칙만 지키면 되니까 학교 다니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캠프에 와서 놀면서 배우는 점이 좋다고 생각했다. 다음에도 만약 이러한 캠프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생전 처음 보는 친구들, 동생들과 말도 트고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학교 수업을 빠졌어도 만족하는 캠프를 참가해서 행복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학생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전북권 / 3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전주 우전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오현빈
- 4.소감문

전까지 어색했던 조 친구들과 마음 편히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계기는 '통일미션 릴레이'였다. 다른 학교, 학연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고, 통일이라 하면 막연하게 해야 하고, 통일은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로 여겼었지만 '통일 인문학 특강'을 통해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분들과도 소통하며 문화를 합쳐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일임을 알았다. 탈북청소년과의 만남은 솔직히 북한사람과 내가 많이 다르게 생기고, 말투와 억양이 공격적이라 생각했던 나를 반성하게 했다. 그들을 통해서 평소 북한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시원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북한에도 게임방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하루 종일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쉬는 시간마다 틀어주셔서 거의 외울 쯤이 되었을 때,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시간이 왔었다. 선생님 덕분에 조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처음으로 영상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여 매우 신기했다. 오늘 아침 '중등 통일리더십'을 통해 학교에서 진로조사 때만 잠깐 생각했던 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나의 장점, 단점, 목표, 희망과 약점들을 적어 나를 더 잘 알 수 있었다.

캠프 오기 전에는 단순히 놀고, 쉬다 온다는 생각도 많았는데, 뽀뽀하게 채워진 스케줄 속에서 미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곤 신기하고 대견스러웠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동생에게 내년엔 통일 리더캠프를 권유해 보아야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전북권 / 3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서전주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이가연
- 4.소감문

처음에 통일 리더캠프가 있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평소에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뉴스나 도덕책에서 북한과 남한, 통일에 관해서 많이 배웠는데, 통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 처음에 도착 했을 때는 통일리더 캠프니까 재미없고 지루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통일빛장열기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는데 이해가기가 좀 어려웠다. 그런데 그 다음 강의인 눈높이 통일 특강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로 맞추어서 통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쉬웠다. 강의를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음 강의가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어서 질문을 썼다. 탈북 청소년들의 대답 덕분에 모르는 것 들을 더 알게 되었고, 북한도 남한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 여러 가지 궁금증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는 좋은 강의였다. 통일 미션 릴레이 강의는 지루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원들과 선생님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어 팀워크가 생기는 중요한 강의였다. 이 강의 덕분에 모르던 사람, 선생님과 친해져서 좋았다. 통일 인문학 특강이라는 제목을 보고 통일이랑 인문학은 무슨 관련이 있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과 인문학의 관계와 디아스포라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인, 재러 한인이 있다는 것과 뜻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토로 토지 문제와 관련된 재일 조선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재러 한인,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인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

첫째 날 마지막 강제가 통일송 뮤비라는 것을 보고 재밌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원들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상의해서 아주 좋은 통일송 무직비디오가 완성되었다. 통일희망 팔찌 만들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 통일 팔찌를 만들 때는 인내성과 손재주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오늘이 마지막 강의라는 게 너무 슬프고 가기 싫었지만 집에 가야해서 슬펐다. 다음 강의도 와서 더 재미있게 하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북한 친구들과 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지구에는 더 이상 분단국가가 평생 없고 모두가 힘을 합쳐 살았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강의였던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전북권 / 3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전주 온고을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이연수
- 4.소감문

먼저 시설이 정말 좋았고,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재밌는 통일리더 캠프를 하게 되었다. 난 9시 40분쯤에 삼성 연수소에 도착해서 명찰 받고 10시 30분쯤에 입소식을 시작했다. 다음 통일 빗장열기를 했는데, 첫 프로그램 이었고 그 만큼 떨리고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긴장을 많이 했었다. 이것을 하면서 모듬 조 언니, 오빠, 친구들의 이름도 알게 되고 첫 인상도 적으면서 그때까지도 약간 서먹했던 것 같다. 다음은 눈높이 통일 특강인데 여기서는 남북이 갈라진 원인, 우리가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를 배웠다.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Uni-STAR'였다. Uni는 Unification (통일), S는 운동, T는 관광, A는 예술, R은 자원이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여기선 탁구, 축구, 남북공동입장. 우리 남북이 합치면 얼마나 강한지를 정말 잘 알게 되었고, 탈북청소년과의 만남은 내가 알고 싶은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어제 잠도 못 잤다. 다행히 질문주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

대망에 통일미션 릴레이 이건 하기 전에 정말 두근두근 했었다. 미션이 뭔가 궁금했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다. 이걸 하면서 모듬, 조 친구들의 성향도 더 잘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뮤직비디오가 정말 재미있었고 나중에 또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 올챙이 같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성장하듯이 우리 남북도 더 성장해 통일을 꼭 할 것이라 믿는다. 통일 파이팅! 우리나라 파이팅! 모두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전북권 / 3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전주 우전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최수빈
- 4.소감문

평소에는 통일? 하면 마냥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통일을 하면 좋은 점, 통일을 하기 위해 밟아야만 하는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단지 머릿속에는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마냥 바람만 들어있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고 기다리기만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였다.

'통일 빛장 열기'를 시작으로 조 모둠원들과 친숙해지면서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표현해 보았다. 솔직히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둘 다 떠올랐다. 하지만 통일을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보다는 같은 민족이니까 얼른 통일해서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마냥 경제적 어려움을 타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열린 마음은 통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눈높이 통일 특강'에서는 남북분단의 현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편익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사님의 말은 "통일은 기다리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준비해야한다." 였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말이었다.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시간은 가장 설레면서도 기다리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요즈음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북자들을 보며 안쓰럽기도 궁금하기도 하였는데 직접 만나 질문도 하고 과장이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전북권 / 3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전주 온고을 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최윤진
- 4.소감문

평소 통일에 대해 따로 생각을 해 본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해서 좋은 점 등을 알게 되었다. 사실 살면서 '통일' 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도 이렇게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통일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빨리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통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 볼 필요성도 느꼈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으로는 탈북 청소년 두 분을 만나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이다.

실제로 북한에 가보지 못하니까 북한에서의 생활, 사람들의 모습 등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실제 북한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다음에도 캠프를 신청하고 싶고, 오랜만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뿌듯하고 재밌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활동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밌었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끝낼 때마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까 궁금하고 설레기도 하였다. 다음에도 또 신청하게 되길 바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4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조종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강동우
- 4.소감문

처음 오자마자 들은 노래는 “one dream, one Korea”라는 통일을 주제로 한 곡이었다.

여러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를 만든 걸 보고 저 사람들도 마음이 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작한 프로그램은 통일 빗장열기였다. 세계 각국의 인사로 시작해서 조원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롤링페이퍼로 이미지와 칭찬을 썼다. 이렇게 친해진 팀원들과 눈높이 통일특강을 들었다. 이름과 같이 우리에게 딱 맞춰 설명해 주셔서 피곤한데도 즐지 않고 했다.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은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다. 그로 알게 된 것은 탈북한 이유다. 한국에 대한 동경심, 살기 힘들어서 독제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다음시간으로는 통일미션이다.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미션지에 쓰여 있는 미션으로 통일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에 통일에 관한 말을 조원과 함께 생각해서 쉽게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다음시간은 통일 인문학 시간이었다. 문학, 역사, 지리 등을 배워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은 뮤직비디오를 찍는 시간이었다. 친구들, 형, 누나 모두가 출연하여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냈지만 결국은 노래 리듬에 맞추어 박수만 쳤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자기 전에 통일이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 보았다. 아침 7시 50분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고 첫 시간인 통일리더십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통일은 우리가 이끌어서 하는 것이지 남이 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과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가장 즐겁고 내가 잘했던 시간 통일 희망팔찌 만들기였다. 어렵긴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니 수월해졌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친구들과 하여 더 즐거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4차 / 4조
- 2.학교명/학년 : 갈매중학교 / 1학년
- 3.성명 : 박소람
- 4.소감문

이 캠프에 참가하기 전 통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통일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통일이 되어도, 안되어도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캠프에 참가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먼저 여러 특강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의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금강산, 백두산 등의 관광자원,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의 자원이 북한에 있어 통일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북한에 매장되어있는 자원의 가치가 7000조원이나 된다고 해서 매우 놀랐다. 둘째,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에 대해 좀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북한 아이들은 매우 심하게 굶는다고 한다. 만약 내가 북한 주민이었다면 조선시대처럼 사람을 먹거나 나무껍질을 먹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북한 아이들은 결정적으로 '식'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히, 탈북원인 중에서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내가 남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셋째, 여러 통일 관련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통일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빗장열기 시간이나 통일 미션 릴레이, 통일송 뮤직 비디오 만들기는 정말 재밌었다. 평소에 뮤직비디오를 한번 꼭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들게 되어서 좋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보다 훨씬 내용도 알차고 재미도 있었다. 중학생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해서 더 좋았고 고등부 캠프, 대학생 캠프까지 꼭 참여해보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4차 / 5조
- 2.학교명/학년 : 조종중학교 / 1학년
- 3.성명 : 박은주
- 4.소감문

처음 왔을 당시에는 사람 수도 많고 또한, 조를 정했다고 하셨을 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방  
배정도 같은 팀끼리 되어서 좀 꺼렸었지만 이젠 친해져서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게 되었고,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통일이 되면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다.

내 생각 또한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들도 행복해지고 우리나라(대한민국)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강의도 잘 들었다. 배운 점도 많아, 오길 잘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둠 조끼리 하는 것  
도 재미있었고 강사님이 오셔서 하실 때 솔직히 조금씩은 피곤하여 졸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참 많은 것도 배우고 재밌었다^-^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 또한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젠 다른 친구들과, 지인에게 잘 소개할 수 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한 번  
와서 이 좋은 교육을 듣고 싶다.

이번 리더캠프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것 말고도 내 꿈에 대한 것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된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을 것  
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내가 커서 진로를 선택할 때 나와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꼭 나와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지~!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4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신천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조영은
- 4.소감문

<통일을 향해>

6.25 전쟁 이후 남북 사이의 갈등이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다. 김대중과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는 통일을 할 수 있었을 뻔 했다고 한다. 남북을 지나는 기차까지 존재했었지만, 곧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다시 남북사이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문이 생겨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나는 이 캠프를 통해,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었다. 독일이 통일하면서 손실을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하락할 것 같았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니, 경제 손실을 극복하고,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통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우선 첫 번째로 이산가족 상봉, 두 번째로 해외 무역이 더욱 발달해지고, 엄청난 자원과 관광명소 증가로 국가의 국력이 강해질 수 있으며, 압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캠프에서는 특강으로 인해 우리에게 통일의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중등 통일 리더십“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사이를 연결 지으며 우리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나의 성격의 장점, 희망, 단점, 소통,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까지 나에게겐 유익한 시간 이었다.

어서 북한도 우리와 마음이 일치해서 남한과 손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그건 북한의 김정은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다수가 공산주의의 실패로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남북이 통일하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대한민국 21세기 청소년 취업률이 낮으나, 곧 통일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도 극복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순위가 증가하다가, 요즘 최근에 급하게 하락하며 나라가 약해지고 있다.

나는 이 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북한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노력할 것이다.

소홀히 여기고 있던 이것이 이 캠프로 인해 솟아오르는 느낌이다. 덕분에 내가 북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첫날 “빛장열기”프로그램에서 적었던 나의 관념이 정말로 특강을 듣고 나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프를 알아 참가하였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전국의 국민들이 발 벗고 통일을 위해 나서는 시대가 열렸으면 한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4차 / 8조
- 2.학교명/학년 : 하안중학교 / 2학년
- 3.성명 : 하지연
- 4.소감문

학교에서 단체로 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 것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이틀 동안 같이 활동하다보니 조금은 친해진 것 같다.

첫째 날에 왔을 때는, 조금 어색해서 불편하기도 했는데 통일 빗장열기로 조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졌던 것 같다. 그 후, 점심식사 이후 있었던 눈높이 통일특강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과정과 통일의 좋은 점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제대로 알게 되고 자세히,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그리고 탈북청소년과 만났는데 처음에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억양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자 조금 죄책감이 들었다. '저 사람을 외부에서 만났다면 나도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차별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부끄러워졌다.

차별하는 사람들보고 손가락질 하던 내가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든 생각은 '정말 대단하다'였다. 이곳에 와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견뎌낸 것이 대단하였다. 나라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통일 미션 릴레이를 하였는데 그 중, 3단계였던 ㄱ~ㅎ으로 시작하는 통일, 북한과 관련된 단어찾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이것으로 다시 한 번 통일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있었던 통일 인문학특강은 조금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 후 저녁을 먹고,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후에 있을 통일이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둘째 날에는 먼저, 중등 통일리더십 수업을 들었는데 통일에 관련된 직업들을 알 수 있었고, 나중에 되고 싶은 직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통일희망 팔찌 만들기를 하였다. 이것으로 통일 희망메시지를 쓰며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척 유익했던 시간들이었고, 이 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여하여보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5차 / 4조
- 2.학교명/학년 : 수양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김진교
- 4.소감문

2016년 통일리더 캠프를 다녀와서 정말 좋았다. 일단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바뀌었다. 원래는 나쁘고, 공포정치만 하는 김정은, 북한주민들을 세뇌하는 이미지였는데, 이 캠프에서 수업을 받은 후에는 불쌍하고, 북한 주민은 나쁘지 않고, 김정은만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캠프는 학생에게 정말 좋은 캠프인 것 같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북한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내 자신이 부끄럽다. 탈북한 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지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남한에 태어나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꼈다. 우리 4조 친구들이 너무 너무 좋았다. 함께 투닥투닥 거리고, 함께 웃고, 떠들었던 우리 4조 친구들, 그리고 우리 김다니엘 선생님은 하루였지만 너무너무 정이 들고, 좋았다. 우리 4조 친구들 사이에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한 게 뿌듯하다. 통일 한국은 정말 뿌듯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통일리더 캠프는 내가 다녀본 캠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깨달은 게 많고, 제일 기쁘고, 행복했다. 앞으로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 학교친구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려주어야겠다. 비록 하루지만 깨달은 것도 많고, 다짐하고 느끼고 생각한 게 정말 정말 정말 많았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각자의 개성이 모여 독특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처럼, 북한이랑 모여, 두 나라의 장점이 모이면 우리나라는 세계 강국이 되고,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캠프는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1편의 추억이 되었다. 통일아~! 빨리와~!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5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양성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초원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를 마친 후..

이런 형식의 캠프 또는 통일에 관한 캠프를 처음 와본 나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와 친해질지가 고민이었다. 하지만, 빗장열기를 통해 친구들과 첫인상도 알아보고 여러 프로그램으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친해질 수 있었던 큰 계기는 가요제를 통해 의견도 조율하고 연습도 하며 친밀해 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캠프에 간다고 했을 때는 지루할 것 같고 그저 친구들과 놀 생각만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들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즐거운 추억으로 남겨질 것 같다. 이번 캠프를 통해 통일에 관한 다른 캠프도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나의 편견, 생각도 바뀔 수 있었다. 먼저, 나는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통일의 중요성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서 통일의 장점들을 알게 되었다. 또 통일송들을 통해서 더 쉽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친구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이런 뜻깊은 캠프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캠프에 참가해보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5차 / 2조
- 2.학교명/학년 : 가고파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이우진
- 4.소감문

이번 통일캠프에 대해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평소 나는 통일에 대해 생각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다. 나의 주변 친구들도 게임, 영화를 통해 전쟁 같은, 전쟁에 관해 더 잘 알지만 통일에 관해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이번 캠프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친구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통일이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통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 명강사님들께 감사하며, 이와 비슷한 캠프를 찾아 통일에 앞장설 것이다. 나의 꿈은 이번 캠프로 꿈이 바뀌었다. 나의 꿈은 직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세계 강대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미래와 꿈이나 다름없다. 육로로 러시아, 유럽을 여행하며, 교류를 훨씬 쉽게 하는 이 모두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 북한을 도우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캠프를 통해서 나는 통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기쁘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5차 / 9조
- 2.학교명/학년 : 장천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전미소
- 4.소감문

제목 : 북한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개선하자!

여러분들은 단지 '북한'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독재적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통일리더캠프를 참가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이고 독재적인 한 사람만 보고 북한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안 좋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통일리더 캠프에 참가를 한 후 저의 생각은 정반대가 되었지요. 독재적인 사람은 한명 뿐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면 먼저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 더 이상 갈라지지 않게 해야만 한다. 몇몇은 북한은 못살고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며 우리가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많은 자원은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친다면 선진국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의 우리들은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기 싫어하는 군대도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오고, 북한 주민들도 '자유'라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 탈북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한에서 남한까지 오는 데에 3~4년이 걸렸다는 것을 듣고는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받았으면 죽을 각오를 다하고 남한으로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온 탈북주민들을 무시하고 놀리고, 차별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탈북주민들을 놀린다면 한민족, 한 가족을 놀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오늘을 계기로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5차 / 8조
- 2.학교명/학년 : 부산대학교 부설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정다운
- 4.소감문

처음 이 통일리더 캠프를 신청할 때는 통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고, 탈북 주민들이 수천번, 수만번 고민하고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여정을 하며 이 남쪽까지 내려온 용기에 감동받게 되었고,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모습과 교육과정들을 공감하고 나니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처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하였을 때는 강압적이고 군사적 통치를 하며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 또 공산주의여서 단체를 위해, 또는 높은 간신배들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만 하는 이미지, 즉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이 떠올랐다. 내가 통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던 이유는 두 나라의 생각하는 사상이 뿌리부터 달랐고, 또, 먼저 통일한 동독과 서독처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였을 때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우리에게 수입이 되는 돈이 약 2배가량 많다는 것, 또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광물적 자원들과 여러 물질적 자원이 많아 우리나라는 세계 경쟁률이 손꼽힐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 캠프를 참여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통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들을 깰 수 있었고, 이곳에서 배우게 된 것들도 나뿐만 아닌 다른 친구들의 선입견과 편견들을 깨줄 수 있는 진정한 통일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6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창원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준우
- 4.소감문

이 캠프를 계기로 나는 더욱 북한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했던 통일 빗장 열기, 그것을 해보니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어색해서 인사도 잘 못했다. 하지만 서로 통성명을 하고 각각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점점 친해져 이제는 서로 장난칠 정도로 친해졌다.

통일 빗장 열기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친해지듯이 우리나라와 북한도 역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눈높이 통일특강에 대해 수업했다. 이 수업에서는 통일을 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대해 다가가는 내용이었다.

북한과 통일하면 좋은 점, 안 좋은 점, 북한에 대해 수업을 들었다.

그 수업을 듣고 나니 북한 하고 꼭 통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탈북하신 새터민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었다. 맞는 사실도 있지만, 거짓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그 다음에는 서로 서로의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 아는 통일 미션 릴레이라는 수업을 받았다. 그 수업에서는 “협동”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 후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인 수업을 들었다. 무언가 어려우면서도 재미가 있었다. 그 후 밥을 먹고, 통일송 뮤직 비디오를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협력”을 중시하는 수업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다음날에는 북한이랑 통일이 된다면 어떤 직업이 중요시 될까? 라는 내용의 수업을 들었다. 그 후 나도 통일이 될 걸 예상하고 꿈을 가지자 라는 목표를 세웠고,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기념으로 팔찌를 만들었다.

이 캠프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학교가기 싫어서 그냥 오는 듯한 마음이었지만, 끝이나니 다음에도 신청해서 꼭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듣고 싶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익한 캠프를 모르는지가 궁금하다.

기회가 된다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 통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친구들과 같이 이 캠프에 왔으면 좋겠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이런 캠프가 진행된다면 지역이 가깝든 멀든 다시 신청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6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진해 용원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영웅
- 4.소감문

처음에 나는 이 캠프를 우리 학교 통일 동아리 선생님의 권유로 신청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북한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학교가 통일 시범 학교여서 통일에 대한 정보를 명사 초청 특강이나, 탈북자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고 관심 또한 갖게 되었다.

집이 진해여서 해운대 까지 10시에 도착하기 위해 학교 갈 때랑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해운대로 향했다. 글로리 콘도에 도착해 이름표 명찰을 받고 내가 해당하는 조로 이동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입소식이 시작되었고 11시부터 첫 강의를 들었다. '통일 빛장 열기' 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서로 어색한 조원들과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롤링페이퍼를 하였다. 이제 막 조원들과 같이 적응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4조인 줄 알고 4조 책상에 앉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6조였던 것이다. 엄청난 혼란이 왔지만 강사선생님께서 나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통일 빛장 열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인 '눈높이 통일 특강'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의 정치체제와 국가 경쟁력들에 대해 배웠다. 이곳에서 알게 되었던 점은 뽀로로 라는 애니메이션이 남북합작 작품이라는 점과 뜻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 통일 동아리 이름인 'Uni-STAR' 의 의미도 알게 되었다. 다음 활동인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신 탈북하신 30~40대 정도의 연세이신 여성 두 분이 오셨다. 북한의 실질적인 사생활과 정보들을 잘 알려주어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다. 다음프로그램은 '통일 미션 릴레이'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를 정해서 미션이 주어지자마자 서로 협동하여 미션을 해결해야 했는데, 우리 조는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서로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릴레이 미션이 끝나고 조별로 컵타를 연습해서 통일송에 맞추어 합주를 했는데 서로 잘 맞으니 기분이 좋았다. 다음 프로그램은 '통일 인문학 특강' 이었는데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인 인문학과 통일을 접목시켜 새로운 느낌의 강의여서 조금 신기했다. 저녁을 먹고 조별로 허각의 '통일송'이라는 노래로 뮤직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내가 감독을 하였다. 우리 조원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해줘서

좋았는데 마지막에 노래와 동영상 싱크가 안 맞아서 아쉬웠다. 저녁에 야식으로 피자를 먹고 하루를 마무리 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중등 통일 리더십' 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통일 후의 유망 직업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통일 희망 팔찌 만들기' 를 했는데 오랜만에 무언가를 내손으로 만든 것 같아서 뿌듯했다. 부모님께 드려야겠다. 정말 이곳에 와서 뜻깊은 체험을 하고 가서 너무 좋았고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6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옥현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서지민
- 4.소감문

<불빛이 밤을 밝히는 한반도를 꿈꾸며>

매년 보도되는 북한과의 갈등, 비록 평소에는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는 '휴전 국가'라는 사실. 막연하게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펜팔을 하게 된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나의 질문에 '전쟁 위험국'이라는 대답을 해주었다. 그 한 단어가 너무 슬펐다. 21세기 유일 분단국가. 언제까지 이러한 갈등이 지속될 것인가?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 2016년 통일캠프에 신청하게 되었다.

'11조 서지민'이라 적혀있는 목걸이를 걸고 우리 조에 가서 앉았다.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라 서먹했지만, 통일 빛장 열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나누며 말문이 트였다.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되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뽑자면 첫째 날에 진행된 '통일인문학 특강'과 '통일 뮤직비디오 만들기', 그리고 둘째 날에 진행된 '중등 통일 리더십' 이었다. 먼저 통일 인문학 특강에서는 우리 역사의 아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역사적 트라우마, 그 단어가 가장 머리에 남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다음 세대로 까지 이어지는 트라우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상처투성이가 된 한민족, 우리 조상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였고 특히나 독립 의사들의 이야기, 특히 안중근 의사가 나올 때 그가 옥중에서 보여준 의지,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이 생각나서 뭉클하고 울컥하며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인데 아직 서로에게 총대를 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통일은 21세기의 과제이다' 두 번째로,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만들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 시킨다고 고군분투한 것이 보람찼다. 곡 선정을 하며 많은 통일 송들을 들어 보았고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에 맞는 스토리를 다시 짜보았다. 집에 가서 만들었던 영상을

보며 웃겠지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날에 들은 중등 통일리더십에서 김경민 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난다. “꿈을 크게 꾸어라” 요새 입시 준비며 공부를 한다고 잠시 목표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었다. 초심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래, 나의 장점은 이거였지, 아 이게 나의 잘못된 점이였다. 이렇게 개선해나가야지’

알아서 용기 내어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친구들이 보내준 격려의 박수에 힘을 얻었다.

인공위성에서 짙은 밤의 한반도 성처럼 보이는 남한이, 북한의 불을 켜서 완전한 한반도가 되길 소망한다. 푸르른 그날을 기다리며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6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양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오지선
- 4.소감문

통일 캠프를 끝내며,

요즘 중학생, 청소년들은 전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북한이라고 하면 그저 , 평양냉면, 김정은, 핵 보유국가 라는 단어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관해 책으로 간접적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학교 친구들에게 통일캠프를 간다고 하였을 때, 정말 외국인 보듯 마냥 북한친구들을 보는 거야? 북한사람들 보는 거야? 라고 하였다. 지금 청소년들은 그렇다. 나도 그랬었다.

우리는 한 민족인데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내가 이 통일리더 캠프에 왔을 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몰랐다. 오히려 통일에 반대 했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프로그램 중 ‘통일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 등 여러 강의들이 나의 부정적이었던 통일의 생각을 많이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었다.

탈북민과의 만남에서 정말로 인상 깊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분들의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니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또한 나는 북한과 남한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생활, 문화, 언어 등이 전혀 다른 줄 알았다. 그러나 학교생활, 문화, 친구가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통일이 되면 유럽까지 기차로 갈 수 있다고 하여서 정말 설레었다. 짠 비용으로 비행기 대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신기했다. 이로써 우리는 중심, 모든 세계를 이어주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럼 경제력도 올라갈 것이고 강대국이 될 것이다.

나는 통일리더 캠프에 오면서 많은 것에 대해 배우고 많은 것을 바꾸었다.

북한이 못살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버리고, 이 캠프가 통일에 대해 좋은 생각을 심어 주었다.

나는 이 캠프를 통해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지금 북한에 대해 아무생각이 없거나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밭 벗고 나서서 통일의 좋은 점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6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상안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윤다선
- 4.소감문

평소 북한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며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가끔 통일이 되면 어떨까, 탈북자들을 보면 어떨까하는 궁금증도 많이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통일리더 캠프라는 글을 보고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에 검색을 해보았다.

다행히 일찍 신청하여 올 수 있었다. 처음 기대감을 안고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같은 조가 된 친구들과 많이 어색 했었다. 1일, 2일차 프로그램을 보고 제일 기대되던 것은 탈북자들과의 만남이었다. 평소 생각해본 한 탈북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잘 떠올려지지 않았다.

처음 통일특강 등을 들었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드디어 탈북청소년들과 만날 때 기대를 많이 했다. 평소 생각해놓은 질문들 중 고르고 골라 두 개를 고른 일이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

탈북청소년의 모습을 딱 볼 때 상상과 많이 달랐다.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많이 마르고 불쌍한 줄만 알았던 내 상상과 많이 달라 조금 놀랐다. 청소년이 아닌 조금 큰 어른이셨지만 나름 생소한 북한 민족어를 듣고 조금 신기했다. 내 질문이 뽑히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과 내 질문이 비슷한 것도 있어 꽤 유익하였다. 현재는 탈북자들이 한 달에 6~70명씩 있다는 것을 듣고 충격적이었다. 목숨을 걸고 한 탈북이었을 텐데 그 과정을 너무나도 덤덤하게 말해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다. 그 뒤로도 UCC를 만들 때 아이들과 부쩍 친해진 것 같아 좋았다. 숙소에서 내가 생각한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유익했었던 것 같다. 통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 통일을 한다면 우리의 어떤 것들이 바뀔지 등 평소 내가 궁금했던 점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

통일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몰라서 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난 통일리더 캠프에서 그런 점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면 아마 꼭 통일이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다. 통일리더쉽에서 우리가 진짜 통일을 할 수 있는 날은 30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더 통일에 중요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비록 짧은 1박2일이었지만 통일에 대한 많고 알찬내용을 배워가서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이 캠프에 오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6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신곡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이다은
- 4.소감문

평소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께서 통일 캠프를 제안하셨을 때 나와 우리 학교만의 통일 동아리, '통일이 통순이' 동아리원 친구들은 흔쾌히 캠프에 참석하기로 했다. 사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캠프는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었던 나였다. 하지만 막상 캠프에 와보니 선입견을 가진 내가 부끄러워 졌다. '통일 빛장 열기'부터 시작해 '통일 희망 팔찌'만들기까지 9개나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엄청나게 가져와 주었다.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인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은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두 분의 아주머니들이 강의를 해주셨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탈북이 책에서 배운 것이 전체의 1%도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탈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남한에 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말에 나는 기겁했다. 악어강, 즉, 메콩강을 건너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다. 강의를 해주신 새터민 분들도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셨다. 강의 중간 중간에 단어를 잘 모르셔서 잠깐씩 이야기가 끊겼는데 이렇게나 남북한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다. 분단이 된지 약 7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들 사이의 문화와 언어, 생활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더 이상 달라지기 이전에 통일을 해야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한이 합해진 '단일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외에도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간상 다 적지는 못할 것 같다. 이번 통일 캠프는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지식, 모르던 지식들 모두 이 캠프에서 배우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 꼭 참여해 좀 더 통일에 대해 배워 친구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배워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P.S. 통일을 반대하던 친구도 돌려놓은 아주 유익한 캠프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6차 / 5조
- 2.학교명/학년 : 김해삼계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예서
- 4.소감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온 캠프의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다. 처음 들어 보는 중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인사법으로 서로 인사하고 통일의 개념과 의의 등을 배웠다. 미션 릴레이를 했을 때는 말 한마디 못 섞어 봤던 친구들과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다. 그 이후론 서로서로 대화도 많이 하였다. 항상 정치·경제·지리적 관점에서만 보았던 통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서 신기했고 강연이 귀에 잘 들어와서 눈을 떼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 통일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해 가며 혼자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완성도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다른 조의 작품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야식으로 피자를 먹었을 때는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숙소에서는 그 날 하루에 대한 담소를 나누면서 추억을 공유했다. 그 다음 날에는 통일이 되었을 때 진로에 대한 내용을 배워서 유익했다. 통일 팔찌를 만들며 통일 캠프에서의 추억을 매듭지어가는 느낌이었다. 숙소는 뷔페식으로 나와서 만족스러웠고 강사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솔직히 말하면 캠프 참가 이전까진 살짝 부정적 이었지만 캠프로 인해 많이 바뀌었다. 특히 통일을 인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인식이 크게 바뀌었던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부산, 울산, 경남권 / 6차 / 4조
- 2.학교명/학년 : 김해내동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재은
- 4.소감문

처음 이 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애초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EBS에서 한국전쟁 관련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민족이 떨어져 있고 대립하고 있는 게 옳은 걸까? 그런 와중에 통일캠프 공문을 접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기대도 안하고 왔었는데 프로그램 구성도 알차고 강사선생님도 좋았고 매우 친절하셨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글로리 콘도는 전망이 정말 좋았고 숙소도 좋았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어색했지만 빗장열기 시간에 자기소개를 통해 어색함이 사라졌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지내는 데 불편함도 없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 나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통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랐던 나에게 이 캠프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와 같다. 이번 캠프에서 배운 내용을 주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앞으로도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친구들이 얼른 통일이 되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번에도 이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면 나는 주저 없이 바로 참가할 것이다. 하루빨리 긴 시간 동안의 분단의 아픔이 치유될 날이 오길 바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7차 / 4조
- 2.학교명/학년 : 면온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손승하
- 4.소감문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던 나에게 이 캠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교육을 받으며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생각과 또 다른 태도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오기 전에는 “별거 있겠어 뭐”하고 왔었는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 팀과 협동하여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이 왠지 남북이 협력을 해나가는 미래의 과정 같기도 하였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통일...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느낀 대로 실천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남과 북의 정치관계까지는 우리가 바꾸지는 못 하겠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자는 의지가 생겼다. 남북이 함께 생활하는 그날을 그려 본다. 전쟁으로 인한 통일이 아닌 서로의 고통과 대화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평화 통일...국기, 대통령, 정치, 많은 문제가 존재하겠지만 그 시련보다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을 기다리길... 오늘, 어제의 교육이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날까지 기다려본다.

또 기도한다. 하나가 되기를. 그려보고 상상해본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7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자운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송채린
- 4.소감문

이 캠프를 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생각과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어렸을 때부터 북한을 오직 작은 틈으로만,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 봤었고,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배웠을 때는 그렇게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말로는 탈북자를 도와주고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 보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정작 탈북자를 만나면 꺼리고 피하기만 했는데, 통일 캠프에서 배우고 나서 진심으로 통일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전에는 통일을 하면 그냥 같은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기쁜 것,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 하였고, 왜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더욱더 한국이 발전되고 세계 강국이 된다는 지 몰랐는데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에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북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지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통일 마당극’ 으로 더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통일을 이해하게 되어 좋았고, 마지막 대사 ‘통일 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또 통일 기차는 오늘도 들어오지 않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란 대사가 마음에 딱 와 닿았다. 만약 내가 이 통일캠프에 오지 않았다면, 통일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통일을 원하지도 않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마냥 북한이 나쁘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캠프에 와서 직접 탈북자들과 질문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꼭! 꼭! 꼭! 다시와 오늘 알지 못했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해서 더욱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7차 / 1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자운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신예진
- 4.소감문

통일캠프를 하고 나서 달라진 나의 모습

‘한반도는 통일될 확률이 별로 없고, 통일된다 하더라도 서로 잘 협력하지 못할 거야’이건

내가 이 캠프에 참가하기 전의 생각이다. 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서로간의 언어도 잘 맞지 않아 통일이 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 통일 캠프에 오고 나서 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 통일캠프로 인하여 난

‘통일은 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보다는 ‘통일은 꼭!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하면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여러 가지의 캠프의 프로그램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중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만난 것이 가장 인상 깊었고,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뵈면서 난 북한의

생활 속 이야기들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 하는 과정들이 나에게서 꽤 많은 깨달음들을

준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 발을 내 디었을 때 어떠하였나요?” 하는 질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약간 놀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정말 거지나라라고 배운다니... 거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우리나라가

거지 나라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말이다. 또 한 가지 더 놀랐던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역사를 외우고,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과 학교에서 오후 2시까지만

수업하고 노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어린이 인데... 이처럼 이 ‘통일리더캠프’에 오고 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즐거운 캠프로 기억에 남는 캠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는

통일캠프인 만큼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7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장평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신은지
- 4.소감문

이번 처음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한 캠프였고 항상 귀찮아서 가지 않던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친구 2명과 함께 가서 여러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얘기도 많이 해봤더니 생각 외로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착한 친구들이었다.

예전부터 우리학교가 통일연구학교여서 우리 또래의 북한 아이들과 북한의 속사정도 알고 있었긴 했지만 직접 체험하는 건 없고 항상 이론적인 짧은 동영상만 봐와서 지루하긴 했지만 이번 통일리더캠프에 와서 북한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북한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과 지금 북한의 김정은까지 강사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북한에 내가 궁금했던 것 까지 알게 되어서 기쁘고 좋았다. 첫 번째 날 마지막 수업시간에 통일송 콘서트를 했는데 우리 조 11조가 노래를 부르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 것이 떨리기도 했지만 다시 여러 조원 친구들과 통일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좋았다.

내년에도 이 캠프가 열린다면 중등부로 꼭 참여해 이번에 배우지 못했던 것도 다시 배울 것이다. 정말 재미있었고 기뻐던 캠프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7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성림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이수인
- 4.소감문

7회차 통일리더캠프는 나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돋보여주고 나의 굳게 닫혔던 통일의 문을 열어주게 하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통일리더캠프에서 학생들에게 전해준 통일 프로그램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나는 1박2일 동안 했던 프로그램 중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 가장 기대 되었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항상 북한을 원망하고 북한 하면 “무서움”, “전쟁”, “빨간색” 등이 떠올랐는데 직접 새터민 즉 북한도 남한도 모두 같은 한 민족이고 단지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 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북한”과 “남한” 모두 한 민족이기에 다시는 6.25전쟁 같은 건 일어나선 안 되고 조금 늦더라도 꼭! 통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아니 꼭!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첫째날 이승복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목숨을 걸고 북군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나도 항상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다짐을 새기고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1. 지역(차수/조) : 강원권 / 8차 / 3조
2. 학교명/학년 : 공근중학교 / 2학년
3. 성명 : 남윤서
4. 소감문

사실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을 하여 아무런 생각과 준비 없이 그저 캠프에 왔다는 생각으로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초반에 나는 ‘어차피 통일은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뻔한 말을 늘어놓겠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학교 수업을 계속해서 들어도 좋으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 통일 빗장열기를 할 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닌 특이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점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비록 우리 3조는 모두 같은 반 친구들로만 되어있어 자기소개를 한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재미있었다. 그 다음 강의를 들을 때 강사 분께서 Uni-star 와 이를 세분화하여 설명하셔서 평소에 듣던 통일교육과 달라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해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캠프 중 제일 인상 **깊었다고** 느껴졌던 탈북한 분들과의 만남시간을 가졌다. 평소, 나는 통일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이 안 좋다고 세뇌를 당해 남한을 혐오하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오해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북한의 사람들은 남한을 혐오보다는 ‘불쌍하다. 보듬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몇몇 분들은 통일을 그리 나쁘게 생각 하지 않았다. 역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 외에도 북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를 알 수 있었고 통일을 해서 나도 ‘국경’ 이라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승복기념관에 갔을 때에, 사실 너무 덥고 피곤하여 꽤 많은 짜증이 났었다. 이는 친한 친구와 다른 버스를 타게 되어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통해 6.25 전쟁에 한층 더 다가가고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짜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기쁨이 들었다.

둘째 날, 통일리더강의를 들었을 때, 평소 많이 고민했던 진로와 통일을 연계해 배운 점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이번 강의를 토대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다. 통일 희망 팔찌를 만들 때는, 만들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강사님들의 도움과 통일을 알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캠프 기간 동안 사실 즐리기도 하였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8차 / 5조
- 2.학교명/학년 : 공근중학교 / 3학년
- 3.성명 : 백종천
- 4.소감문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평소에 통일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뉴스에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언제 통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래도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지 않고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통일캠프를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통일의식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이득도 통일비용보다 편익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질문도 나눠보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나라보다 못 산다고 세뇌를 받는다니 그 점이 가장 황당하고 뒤로는 웃기기도 했으며 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중국과의 통일을 더 많이 원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직업을 같이 보고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통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도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활동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서 잘한 것과 개선해야 될 것을 알아보고 제도를 상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생각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이루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하여 더 적고 싶은 내용을 못 적었지만 내가 생각한 것 보다는 만족스럽고 좋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8차 / 4조
- 2.학교명/학년 : 강원문막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유현진
- 4.소감문

저는 평소 통일과 북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8차 통일 리더캠프를 통해 통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일빛장열기와 통일송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새터민분들을 만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에서 북한 주민들의 진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현장체험학습으로 강원도 평창군 노동리에 위치한 이승복기념관에서 이승복군의 묘지와 이승복군이 직접 다니던 학교, 전시관 등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고인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북한에 관심이 매우 많은데 북한이 대한민국에 하는 도발 행위 등 많은 이야기를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체제자체가 다른 나라입니다. 약 60여년의 세월을 다른 나라로 지내왔지만 이제는 닫힌 문을 열고 통일의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북한과 남한 두 나라 모두 국민들의 통일관심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분단된 두 나라가 한나라가 되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그냥 우습게 볼일이 아닌 창조경제와 경제 강대국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일을 위해 두 나라의 정부도 평화협정 등 자주적인 활동을 이루어야하고 국민들도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따라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통일캠프를 통해 앞으로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더욱 가지고 살아 갈 것입니다. 통일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 인지도와 관심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꼭 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통일은 한국이 더욱 발전하고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해결책입니다.

저는 이 통일리더캠프 등 통일관련 활동에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12조
- 2.학교명/학년 : 삼성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고채영
- 4.소감문

나는 이번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모르는 친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통일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과 통일 마당극이 가장 재미있었다. 북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고 연극으로 재미있게 공연 하면서 공부하니까 재미있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통일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친구들과 같이 들으니 더 재미있고 수업을 듣고 나서 지금은 통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빨리 통일 되어서 이산가족을 상봉시켜 주고 싶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즈음에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빨리 찾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그때 태어났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연극을 볼 때도 재미있게 해주어서 딱 이해하기 쉬웠다. 갑자기 마음 한쪽이 우울해졌다. 앞으로는 나도 통일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1박 2일 동안 정말 재미있었고 또 즐거웠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산가족 등을 위해서 나도 통일을 잘 알고 앞장서는 통일리더가 될 것이다. 나는 1박2일 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너무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시고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하늘에 닿아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그런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캠프에 참여하고 나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싸우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 이득이 없다. 땅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가족들이 죽고 다친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일단 통일에 대해 지식을 쌓아두고 북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 들도 찾아서 실천해야겠다. 1박2일 동안 정말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통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즐길 수 있었던 1박2일. 다시 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까지 남은 인생을 차별 하지 않고 통일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3조
- 2.학교명/학년 : 도남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김민재
- 4.소감문

이번 캠프로 통일에 관심이 생겼다. 이 캠프로 북한에 나쁜 점도 있지만 북한에 좋은 점도 알게 되었다. 캠프는 정말 재미있었다. 통일 빗장은 설명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나에게 큰 통일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워서 기쁘다. 그 다음 통일이아 놀자에서 2인 3각 달리기에서 친구와 나의 우정이 느껴졌다. 우리의 큰 우정처럼 “우리 북한과 남한이 큰 우정이 생겨 통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이런 내가 민망하다 “늘 북한을 욕하던 내가 통일리더캠프에 왔다니”라고 생각 했었다. 나는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인 둘째 할아버지를 뵈고 싶다. 나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7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있다. 그러니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다. 또 통일이 되면 백두산, 금강산 관광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도 최고! 기술도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8위권 안에 들 수 있다. 나는 통일이 되고 싶다. 북한에 있는 가족인 이산가족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을 돕고 식량을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매월 30,000원을 후원을 하고 싶다. 이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든다. 나는 더 이상 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꼭 통일이 중요하다. 나는 꼭 통일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통일송을 부르며 통일을 염원할 것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9조
- 2.학교명/학년 : 남원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성호
- 4.소감문

우선, 이때까지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 등 우리를 위협하게 만드는 행동을 북한이 많이 했었다. 그래서 난 “통일도 못할 바엔 그냥,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난 북한이 한민족이지만 이상한 편견, 고정관념이 북한에 대해 이상한 내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통일캠프에 오기 전에는 정말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의 수학여행 가는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 조도 괜찮았고, 활동도 썩 훑어보니 “음 재미있겠네?”라고 생각했다. 이때까지는 놀러온 기분이었다. 처음 수업은 ‘통일 빗장열기’였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뜻으로 조 친구들과 먼저 친해지고, 북한에 대한 간단한 이미지를 적어보는 시간이었다. 조 친구들은 다 같은 학교여서 별문제가 없지만 이미지를 정리 할 때는 북한하면 떠오르는 아무 말이나 다 썼다. 슬프게도 난 거의 다 안 좋은 말을 썼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 ‘초등통일리더십’이라는 시간이 었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으신지 내 머릿속에 드는 말들이다. “...어?...그렇구나” 등 약간씩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가서 한 체육 수업 같던 ‘통일아 놀자’시간! 그때 ‘남남북녀, 남북이여 달리기’라는 게임을 했다. 도시의 위치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체육까지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있던 ‘통일마당극’ 시간엔 ‘경의선’이야기로 “정말 나중에 경의선이 다시 운행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나의 상상력을 대폭시키는 시간도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시간 ‘통일 다이어리’ 시간에는 캠프에 있었던 일을 다 정리하여 쓰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엔 나의 생각이 잘못되고 고정관념도 깨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월랑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정현
- 4.소감문

평소에 북한 통일에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통일리더캠프’를 한다는 소식이 왔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했다. 다행히 캠프에 갈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통일에 대해 알려야 해!’, ‘북한도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 나는 이 캠프에서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고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처지만 생각했던 나는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처음엔 친구들끼리 서먹서먹했지만 그래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다. 통일 빛장 열기에서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쓴 나의 모습은 캠프를 마친 후의 나의 모습과는 달랐다. 통일이 놀자 에서는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재밌고, 머리에 쑥쑥 들어왔고, 눈높이 통일 특강에선 어렵다는 생각을 없애면서 우리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특강을 해주시니 어렵지 않고, 잘 이해되었다. 내가 만드는 통일 동화에선 창작을 하며 통일의 중요성 등을 배우니까 흥미로웠고, 통일송 콘서트에선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재밌고, 통일에 대한 노래도 있구나 라는걸 배웠다. 초등통일 리더십에선 통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썼기에 나의 목표가 뚜렷해졌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면서, 이해하고, 가장 즐거웠던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에서는 직접 탈북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설레고,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실제로 탈북이나 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 또는 느낀 점을 생생하게 들으니까 너무 슬펐고, 동정이 되었다. “그냥 탈북은 뭐 뛰어다니면서 빨리 넘어오면 되지.” 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살기위해 건너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웠다. 책이나 신문에서만 본 이야기보다 직접이야기 해주시니 생동감이 느껴졌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중에서 ‘북한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서 “우리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북한사람들도 남한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배워서 통일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엄청 놀랐다. 그리고 내가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한 가지 더 떠올랐다. 내가 북한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일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알리고, 공부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내리라! 무엇보다 감동한건 비록 지금은 국경에서 갈라져 떨어져있고, 서로와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서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에 제일 감동했다. 사실 약간 울컥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쉬운 마지막 활동인 통일 다이어리에서는 아까 썼듯이 교육을 받기 전에 나의 생각 뒤에 교육을 마친 나의 생각을 썼다. 좀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등을 썼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아쉽게도 마지막 활동 시간인 소감문 설문조사에서는 만족했던 일 들을 쓰고 소감문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소감문을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캠프를 마치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좀 슬프다. 비록 교육은 끝났지만 통일에 대한 나의 열정은 식지 않는 용암처럼 절대 식지 않을 것이다! 아니 통일이 이루어진 날은 제외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더욱 배울 수 있는 캠프나 시간에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통일을 배울 것이다.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DMZ(비무장지대)에 가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직접 꼭 보고 싶다. 아무튼 이번 캠프를 통해서 협동심, 통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다짐 등 아주 많은걸 배운 시간이어서 좋았고, 행복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1조
- 2.학교명/학년 : 창천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박윤슬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는 선생님께서 권유하셔서 참가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아들(중학생)도 이 캠프에 참가했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다고 나도 꼭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내 조자리에 앉으니, 의욕이 마구 마구 떨어졌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랑 1박 2일을 같이 행동해야 한다니...한숨만 나왔다. 처음 통일 빛장열기 할 때까지도 어색했다. 통일빛장열기에서는 편견을 버리고 가치관을 바꾸자고 말했다. 그때까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같이 점심을 먹으니 쉽게 친해져서 수다를 떨 정도가 되었다. 초등통일 리더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걷는 법보다 넘어지는 법을 배워라 걷는 것 보다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였다. 통일관계도 같이 친해졌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가 나빠졌을 때 다시 친해지게 만들 수 있을게 더 중요한 거라고 강의를 조금은 벗어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 밖에도 통일이 놀자, 내가 만드는 통일동화라는 수업을 했지만, 그렇게 엄청 재밌지도 않았고,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지는 않는 수업이었다. 그렇다고 재미없지도 않았다. 뚜둥! 통일마당극!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였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 분단의 아픔을 아주 잘 표현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엄청 친해졌었다. 저녁을 먹고 통일송 콘서트가 있었다. 우리 조는 'second chance'라는 곡을 준비했다. 그런데 연습을 했을 때 의견충돌이 좀 있었다. 심한 건 아니고 노래를 먼저 연습할지, 대형을 먼저 정할지 파트는 어떻게 나눌 건지 등 사소한 것들이었다. 또 남자들이 장난만 쳐서 짜증나는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의견을 모았고, 장난만 치던 남자들은 노래를 잘만 불렀다. 나는 이것을 남북관계라고 생각한다. 사이가 좋았다, 나빠지고 결국 조금 싸우고, 현재 남북관계다. 그러나 의견을 모아 하나 되어 연습하니, 최고의 무대가 나왔다. 조금 오버일지 몰라도, 통일도 의견을 모아 하나 되면 세계 최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게 하는 밤이었다. 오늘 돈 이야기가 오가자 눈이 번쩍 떠졌다. 눈높이 통일특강!

우리나라는 통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통일하면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어라?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에서 북한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못산다고 배웠단다. 그래서 '통일해서

도와줘야지!’ 생각을 한다. 어디 가서 설명하려 할 때 필요한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다 나오네! 자 이제 꾸물댈 필요 없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 움직여볼까! 통일이 될 때까지 노력! 또 노력! 여기서 느낀 점은 최종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안 된다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no!’ 라는 걸 알았으니 난 움직이러 가야겠다.

통일을 향해 우리 모두 고고!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신제주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변형석
- 4.소감문

나는 통일이 중요한 것 같다. 아빠가 뉴스를 볼 때 ‘김정은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 핵에 모든 돈을 투자해’ 이런 것들을 보고 협박하는 북한이 그때부터 나쁘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으로 많은 피해가 입었다. 근데 50년밖에 안된 사이에 8대 강대국으로 성장한 최초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나는 공부방이나 학교에서 북한의 단점을 하나둘 알게 되었다. 하지만 통일캠프를 하고 나서부터 생각이 정 반대가 되었다. 솔직히 힘든 것은 맞다. 학교보다 더 많이 말이다. 이번 시간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북한탈출 주민도 만났는데, 신기함도 들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겁도 많이 났다. 나라를 이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나는 몰랐다. 이번체험으로 14개의 체험을 하게 되었지만 친구들과 밤에 자는 것도 조금은 좋았다. 말로는 친구한테 안 간다고 했지만 또 이런 체험이 있으면 꼭 가고 싶고, 통일에 대한 부분에서 느낀 점과 깨달음이 많이 들었고 재미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역사책도 많이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뉴스를 보면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날마다 오늘일이 떠올릴 것이다. 정말 연극은 재미있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신제주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양웅빈
- 4.소감문

우리는 이번 2016 통일리더캠프를 받기 전에는 북한하고 생각하면 피, 빨간색, 전쟁 등을 생각해 왔고 여러 무기, 핵으로 무섭게 하려는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나고 유익했던 이번 2016 통일리더캠프를 통하여 북한의 이미지를 새로 알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다. 우리가 통일 빔장열기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닫혀 있는 마음의 빔장을 열어서 통일, 북한을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좋은 활동이 있어서 재밌었고 리더십을 키우는 통일리더십 활동으로 우리는 Boss와 Leader 의 차이를 알았으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앞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어 통일을 위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통일 동화도 만들면서 얼음왕국 이야기라는 책과 우리 남북의 관계를 1타2피로 배우고 볼 수 있었다. 서울의 유명한 '걸판' 이라는 팀이 우리에게 '통일기차'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 그리고 연기가 조화를 이루어 주는 재밌는 연극이었다. 저녁 먹고 이루어진 통일송 가요제는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통통통, one dream one korea, second chance, 끈, 등 여러 노래로 장기자랑하는 재밌는 신나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숙소 177호는 좋은 방이었고 폭 잘 수 있어 편안했다. 다음날 통일을 알아가는 활동을 위한 조식을 먹었는데 조식은 뷔~페~라서 마음껏 골라 먹어서 살이 좀 찢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오늘의 핵! 심! 이라고 생각하는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에서는 탈북 아가씨를 만나서 여러 질문을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아주 많은 것이 달랐다. 우리가 가난하다 하고, 점심시간은 집으로 왔다 갔다하고 직업, 탈북업, 배우는 교제 신분까지! 알차고 북한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소감문 쓰기도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서 알 수 있는 수업인 것 같다. 지금까지 통일리더캠프를 통하여 북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북한도 알아보고 통일, 리더십 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느끼고 앞으로 나는 통일을 위해 친구에게 통일을 알려주고 여러 지식들을 알려주어 북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외도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오수민
- 4.소감문

나는 평소에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추천으로 선생님의 추천으로 통일 리더캠프에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조금씩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연극이 인상에 깊었다. 재밌으면서도 통일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계기가 되면 꼭 참여를 해야겠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책, 통일에 관련된 것들을 읽거나 찾아보아야겠다.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 있을 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통일이 돼서 북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싶고, 놀아보고, 친하게 지낼 것이다. 그리고 차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탈북자를 만났을 때 말투도 어색하고 말도 많이 다르고 언어도 아예 다르지만 역사로 따지면 남과 북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통일이 되면 서로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자원을 주고 받고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보다 서로 누구의 나라를 존중 할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나는 그냥 차별 없고 다른 나라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리더캠프는 생각보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겠지만 나라,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 먼저 통일송을 널리 알려 모두가 통일을 외치는 그날까지, 둘째는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포스터나 팻말을 만들어 모두에게 알린다. 셋째는 누가 먼저 나서서 이가 없으면 나라도 통일에 대해 많이 알아서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내 소원 중에 통일도 포함되었으니깐 꼭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캠프를 하면서 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반성하게 되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신제주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오주형
- 4.소감문

사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통일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 사람’ 이라고 하면 손을 든다.  
하지만 막상 손을 내리고 생각하면 ‘통일이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번 통일 리더캠프를 참가하면서 나는 통일은 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단 북한에서는 자원이 일단 많다. 그리고 우리들의 민족들이다. 북, 남으로 나뉜 한반도는 완전한 한반도는 아니다. 완전한 한반도는 북남으로 나누지 않은 한반도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나는 북남으로 나뉜 대한민국도 자랑스럽다. 왜냐면, 내가 자랄 때부터 보면서 자란 뽀통령 뽀로도 남, 북이 함께 도와주면서 만든 우리한반도의 합작품이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합칠 때 더 잘하는 구나’ 축구며, 탁구며, 우리나라는 혼자 할 때가 아닌 합동해서 일을 하는 것을 더 잘하는구나.

나는 약간 강의를 보며 슬펐다. 일본에 해방 되자마자 소련과 미국에 또 지배를 받아 남북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협동하면서 다시 한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데 아예 정부를 2개로 나눠서 북한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만들고 남한, 대한민국으로 나뉘었다. 그래서 나는 슬프다 다른 나라에 의해 나라가 수박처럼 썩! 하게 갈라져서 그리고 새터민들을 만나고 질문과 답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솔직히 나는 북한인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가 턱까지 내려오고 코는 딸기코처럼 빨간색 코인 줄 알았다. 말도 되게 영어보다 어려운 줄 만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우리랑 얼굴도 똑같고 말도 영어보다 쉬운 우리 훈민정음 한글이었다. 단지 말투가 조금 달랐다. 마치 같은 새인 까마귀와 참새처럼 목소리가 달랐다. 까마귀와 참새의 목소리는 다르지만 둘 다 새 종이다.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까마귀와 참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면사람들이 이야기 한다. “새요, 둘 다 새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남한 사람 목소리와 북한사람들의 목소리가 같냐고 물어보면 “틀려요“ 라고 한다. 어이없다.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새터민이 대학교가서 공부도 하고 면접도 잘 보았는데 면접장에서는 북한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탈락시키거나, 면접도 안 보고 돌려보내는 일도 흔하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같은 민족이었다.

잠시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서 탈출해서 이곳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따돌리거나 왕따 시키며 다르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도남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이수현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에 처음으로 왔을 때 통일 빗장열기는 롤링페이퍼로 조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초등 통일리더십에서는 리더에 대한 의미 비교하는 것 등을 배우고, 통일이 놀자에서는 남남북녀로 단어에 맞는 짝끼리 찾고, 남북 이어달리기는 2인 3감으로 나라에 위치를 알아 볼 수 있었고, 내가 만드는 통일동화는 얼음왕국이야기를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지어내었고, 다들 상상력이 풍부해 보였다. 통일 마당극에는 서울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보았다. 통일송 콘서트는 활동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다. 통일콘서트는 노래를 고르고, 가사나 안무들을 만들어 발표하는 활동이다. 11조는 [통통통] 이라는 노래로 안무도 조금 마음에 든 것 같았다. 눈높이 통일특강에서는 남북이 분단이 된지 70년이 가까워지고, 통일이 되면 시너지 효과 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탈북청소년과의 만남”에는 북한을 탈북한 어른들이 와서 대답을 해주었고, 우리들은 탈북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보았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북한인으로 한국에 왔을 때 차별을 받지 않았나요? 등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탈북한 어른들이 대답을 잘해주셔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통일 다이어리는 통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전 북한의 이미지, 내가 통일이 되기 위한 나의 노력 등 통일 다이어리를 작성하였다. 나는 이 통일리더 캠프에 오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통일리더 캠프에 오니 북한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 계기가 되었고, 북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 쪽으로 조금씩 좁혀지게 되었다. 통일리더캠프는 앞으로 남.북 통일에 관심이 없는 아이도 여기에 오면 통일에 대해 남북에 대해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그 이유를 말하자면 첫째로 남북 때문에 헤어졌던 이산가족이 통일을 하면 다시 사랑했던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며, 눈물겨운 이날 통일이 되기만 기다렸던 사람들도 감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하며 살았던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아서 남한이랑 합치면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전쟁위험성이 줄어

들고 북한과 무기를 합쳐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은 이러하지만 통일을 하면 단점 또한 있습니다. 첫째 남북 국기가

다르기에 국기를 하나로 합쳐야 되서 의견이 충돌할 것 같습니다. 둘째 대통령을 하나로

합쳐야 하기에 또한 이 문제도 의견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충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북 언어가 다르기에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북한의 이미지는 좋아졌지만, 통일이 되면 그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직 확연치 않고, 고민이 됩니다. 통일에 대해 더 알고,

북한에 대해 조금씩만 더 안다면 통일에 대한 확실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 캠프가 개최되어 다시 오게 된다면 확실하게 통일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통일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로 의견이 생성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저는 이 캠프가

끝나도 더 공부하여 내 의견을 당당히 내놓을 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캠프는

저의 생각에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사용된 통일리더캠프가 되어 저도 조금씩

뿌듯하고 나은 생각을 하도록 한 계기가 된 통일리더캠프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제주북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이진규
- 4.소감문

제목: 북한의 대한 나의 생각변화와 통일

캠프 시작 초기에는 북한이 핵만 날리고 국민들은 가난하고 귀족들은 잘 먹는 공산주의의 나쁜 국가인줄 알았는데 탈북 청소년과의 대화,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이제는 통일에 앞장서는 통일 리더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도 하고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확실히 이 캠프가 나의 마음을 크게 바꿔 준 것 같았다.

또 통일에 대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배워도 보고 통일 게임도 하고, 통일송으로 노래를 불러보니 통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 전 세계에 분단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북한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고 직접 탈북 주민들도 만나보니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는 것, 내가 통일 리더가 되어야 겠다는 것이 내 가슴속에 새겨졌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우리 민족을 통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북한, 우리가 생각 하는 것보다 나쁜 나라는 아니다. 또 북한은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또 광물의 매장량이 많아 우리나라와 합치면 그 잠재력을 떨 칠 수 있는 나라이다. 통일, 통일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통일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일은 나라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우리가 힘을 합치면 100년 뒤였던 통일이 10년으로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통일 리더가 되어 통일을 이끌자는 마음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이 통일리더 교육 덕분이다. 정말 이 캠프가 고맙고, 재밌고, 감사하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남원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이황하
- 4.소감문

난 9회차 통일캠프에 왔다. 평소 사촌오빠와 이야기 할 때 주제가 대부분 통일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었다. 난 캠프를 처음 시작 할 때에 느꼈던 북한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내가 생각한 북한은 독재정치 핵 등의 무기나 가난 또 김정은의 이야기뿐이었다. 한마디로 정말 최악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점점 강의와 여러 프로그램을 할수록 난 북한이라는 나라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 때 다시 쓴 나의 북한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 있었다. 강의중의 내 마음에 박힌 내용 '북한사람들은 우리를 잘못 알았을 때 도와주려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통일을 피하며 있다' 난 이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아.. 너무 멋있다. 나도 내 이익이 아닌 도움을 먼저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그 후 나의 북한의 대한 생각은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어졌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합치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을 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큰마음을 막고 있던 얇은 철조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잠시 우리나라와 북한이 얇은 철조망 몇 개로 막혀 사이가 좋지 않지만 나는 내가 커서 나의 아이들에게 '옛날에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져 있던 시절이 있었다' 하며 이야기를 해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빈다. 앞으로 이 통일캠프를 통하여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 전쟁의 위험이 없고 또 행복하고, 경제력도 높은 한반도의 단 한 개의 나라 통일한국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간절히 꿈꿔본다. 그리고 내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9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남원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임도은
- 4.소감문

처음 이 캠프에 가게 되었을 때 ‘또 공부만 하겠지, 아 재미없을 것 같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일정표를 보니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할  
 지 걱정되기도 했다. 또, 솔직히 나는 평소에 통일은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더욱  
 더 흥미가 가지 않았다. 제일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은 통일 빗장열기였다. 조원끼리 다른  
 나라의 인사말로 인사를 하고 롤링페이퍼를 쓰기를 하였다. 각 조원의 첫인상을 작성하는 것  
 이었는데 다 아는 사이라 그랬지만 롤링페이퍼에 조원들이 칭찬을 많이 써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은 초등 통일 리더십이었다. Boss(보스)와 Leader(리더)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스는 시키는 사람  
 이지만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니 나는 리더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또 내가  
 통일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나도 통일 리더가 될 수 있구나!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다. 다 따분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선생님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배울게 많은 것이니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다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지루해 할 때 나는 수업에 재미를 느끼며 듣고 있어서 뭔가  
 뿌듯하기도 했다! 또 나는 ‘리더’가 될 사람이니 잘 배워가서 솔선수범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듣기로 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관심이 없던 통일에 대해 잘 배워가고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을 버리고 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 캠프를 왜  
 선생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비록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캠프  
 보다도 보람을 느낀 것 같다. 다시 참여 할 수 있다면 꼭 다시 통일리더캠프에 오고 싶다.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이 되는 그 날까지 통일 리더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 파이팅!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10차 / 2조
- 2.학교명/학년 : 노형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강지현
- 4.소감문

수업 중에 어떤 강사분이 “몇 년 후에 통일이 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셨다.

나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20년 쯤 후에 하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 역사에 대해 배우니까 ‘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문화도 다르고 다른 것이 많지만, 통일이 되기만 한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이 통일리더캠프에 와서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통일의 필요성이 예전에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면 현재는 경제성장 등의 더 많은 이익을 알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좋았다 안 좋았다 사이가 달라진다.

5~10년쯤이라면 다시 우리가 일본에게서 독립했던 것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

통일리더캠프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내가 깨닫게 된 점을 공유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같다.

수업 중, 한 사람의 바람은 그냥 바람일 뿐이지만, 여러 사람의 바람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억에 남고, 모두 다 같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10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서귀중앙여자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양현지
- 4.소감문

나는 이번 제주권 10회차에 열린 2016 통일리더캠프에 갔다 왔다.

처음에는 통일이라는 캠프 주제에 대해 생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통일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와보니 재밌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처음에 일정을 보니 '탈북자들과의 만남'이 제일 기대가 됐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우리나라 사람들과 말투나 생김새가 우리와 별로 다른 점을 모르겠어서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하고 오지 않고 봉사시간이 목적이기도 했고, 재밌을 것 같아 지원을 했지만 막상 캠프를 다 끝내보니 통일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탈북자들과 만남에서 나는 그저 '북한은 나쁘다'라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북한은 대학교 까지 무료이고 북한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정치제도는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도 머리카락 규정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북한에는 수많은 금속자원이나, 천연자원이 많다는 사실과 통일만 되면 유럽여행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고, 통일을 하는데 돈이 들지만, 통일을 해서 받는 이익이 약 2배라고 한 기사를 봤을 때 놀라게 되었다.

어제 처음에 한 인사말 중에 세계 여러 나라 인사법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라서 매우 신기하였다.

막상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말을 해보는 게 신기하다고도 하고 보기보다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원래는 그다지 통일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 적도 없고 통일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중 그 가운데였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찬성에 많이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통일이 10년 이내로 됐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제주권 / 10차 / 12조
- 2.학교명/학년 : 탐라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이나연
- 4.소감문

처음 이 캠프를 참여하게 된 것은 이 캠프의 취지처럼 단지 통일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싶어서였다.

여느 캠프들과 다르지 않게 단지 '정보'만을 주는 캠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통일'이라는 주제에 여러 요소를 접목시켜 독특하고 신선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다.

처음 모두가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했던 순간, 다른 나라 말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성의를 담아서 롤링페이퍼를 쓰게 한 점이 너무 좋았다.

그로 인해 이 캠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같은 조원'이라는 하나의 유대감을 만들어 준 것 같다.

그리고 통일 빗장 열기라는 타이틀이 인상 깊었다. 서로 서로의 이름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친구의 첫 인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빗장 열기' 때 적었던, 생각했던 '북한'에 대한 선입견 혹은 첫인상을 바꾸게 한 것 같다.

내가 제일 재미있었고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북한 분들과 인터뷰(만남)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다. 처음 시간 때 배운 기본적인 북한의 지식을 가지고 탈북자 분들에게 더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놀랐다.

특히 북한에도 학교 폭력, 따돌림이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통일 미션 릴레이와 통일송 뮤직비디오는 팀별 미션이었는데 통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조원들과의 협동력을 기쁨으로서 통일 리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틀 짜 프로그램에서는 통일을 적용(실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정말 의미 있고 인상 깊은 1박 2일이었고, 진부한 '통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1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광주 수피아여자중학교 / 3학년
- 3.성명 : 김윤주
- 4.소감문

처음 이 캠프에 임한 나의 자세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고 그랬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프로그램 하나하나 참가 할 때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자세가 바뀌게 되었다. 통일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었는데 캠프를 참가하고 내가 통일을 이루는데 솔선수범 할 수 있는 따듯한 손길 한번이라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진짜 반에서 친구들이 통일에 관심 없다. 다음 세대에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그 때는 내가 아는 것도 그리 없고, 통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등 물어 볼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물어보지 못했던 내가 정말 창피하다. 우리나라 일인데, 남의 일처럼 관심도 안 갖고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한다 라고 나의 소원은 원래 내 꿈을 이루는 것 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다.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정말 이 캠프를 통해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나의 생각이 변화 되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이 캠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 보았는데 그 중 가장 기대가 되었고 그 기대에 충족한다. 북한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실제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니 편견도 없어지고 탈북자들을 좀 꺼려했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중 진짜 이렇게까지 어렵게 사는지 알게 되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할 정도까지 말이다. 탈북 하는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 남한으로 왔을 때, 탈북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여러모로 준비해주신, 봉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1차 / 7조
- 2.학교명/학년 : 광양제철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태언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를 참가하고 나서 캠프를 참가한 것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교육프로그램, 선생님들 모두 정말 좋았고 유익 했던 1박 2일이 되었던 것 같다. 요즘 내 또래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도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한민족인데도 관심이 없다는게 통일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는 것을 배워서 앞으로 노력해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소개시켜주고 싶다.

“나는 통일이 되면 군대 안가면 되니까 좋지” 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자원인데 바로 눈앞에 있는 자원을 쓰지 못하고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는 게 더 이상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같은 지하자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뺏기기 전에 통일이 되어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나는 사실 이번 캠프 전에는 “통일은 절대 안 돼”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이라는 희망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고 그 희망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나의 태도 때문'이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남았다. 사실 우리 가족과 거의 모든 내 친구들도 통일이 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은 어서 어둡고 칙칙한 동굴에서 꺼내 희망의 별을 보여주리라 마음먹게 된 것 같다. 나는 앞으로 '통일'하면 나 스스로가 먼저 리더가 되어 희망의 빛을 찾고 그들에게도 그 희망의 빛을 쬐어주고 싶다. 희망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놀라웠다. 마음속으로만 통일을 외치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장애인 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한다. 다친 사람의 상처를 그냥 방치하면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일이라는 다짐이 썩어 들어가 고름이 나오기 전에, 통일의 희망과 그 장점을 교육시켜 상처를 빨리 아물어 줬으면 좋겠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런 멋진 마음과 교육을 얻게 되어 내 자신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앞으로 나부터 통일의 리더가 되어 통일이 되기 위해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1차 / 2조
- 2.학교명/학년 :화순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효진
- 4.소감문

아무것도 모르고 통일 되어야한다. 라는 말만 하고 살아온 나는 살짝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큰소리만 치고 또 그림으로 그리기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통일 캠프에 와서 통일에 대한 각종 통일 진로 캠프를 했다는 자체부터 감미로웠다. 또 통일과 북한, 남북 관계 등 올바른 정보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일의 편익에 대한 이해와 나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는데 여기서 나의 고정관념이 달라졌다. 그 다음 탈북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을 만나 탈북 계기, 냉면의 맛, 살아온 계기 등 다 알게 되어서 너무 궁금증이 사이다처럼 풀렸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 또 애들끼리 통일미션 릴레이를 하여 더 관계를 쌓아갔다. 하지만 나는 뭐니 뭐니 해도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았다. 통일 노래가사에 맞춰 춤을 추면서, 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니까 너무 재미있고, 더욱 생동감을 느꼈다. 사실 이거 하면서 인터뷰도 했다. 내가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희망 팔찌 만들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중간에 팔에 쥐가 났다. 정말 힘들게 했다는데 역시 힘들어도 계속하니 예쁜 팔찌가 만들어졌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엄마한테 드릴 것이다. 여기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해서 나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 캠프에 참여해서 너무 좋고 또 통일이 되면 다 이 캠프 덕분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1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광주 수피아여자중학교 / 3학년
- 3.성명 :박주하
- 4.소감문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참가를 하였다. 원래 통일이나 남북분단의 역사 등을 학교 수업시간에 배웠을 때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렇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 기회도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어 좋다. 비록 캠프는 1박2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꼼꼼하게 구성이 짜여 있어서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었다. 새로운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 SNS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통일이 멀게만 생각했고 어쩌면 아예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통일은 머지않은 것 같고 우리와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더 가까이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북한서 오신 두 분이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았다. 북한과 남한의 교육시설도 다르고 역사과목을 배울 때도 배우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또 우리는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는데 북한에서는 학원을 가지 않고 농사를 한다는 게 신기했고 그 부분은 새삼 부러웠다. 또 탈북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 탈북 할 때 너무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한 탈북은 38선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줄로 알았는데 직접 경험담을 들어보니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였다. 북한이 만약 살기 좋았다면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북한이 너무 가난하고 삶이 괴로워서 탈북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내가 남한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또 '통일 미션릴레이'와 '통일뮤직비디오 만들기'를 하면서 조원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도 쌓고 더 친해진 것 같다.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통일을 하게 되면 STAR(sports, tourism, arts, resource)가 많이 발전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발전이 올 것이다. 앞으로 친구들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캠프에 오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1차 / 7조
- 2.학교명/학년 : 광양제철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이주환
- 4.소감문

통일리더 캠프에 와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서 좋았다. 학교에서 배우는 '통일'이라는 내용보다 더 깊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반성하게 만들었다.

나는 처음에 통일이라고 하면 꼭 필요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나니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최대한 빨리 통일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단지 돈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통일 후 Uni-STAR (스포츠, 관광, 예술, 자원) 으로 인하여, 통일비용 보다 통일편익이 더 많다고 하니 어려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미래 자원 '마그네사이트'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니 여기서 정말 통일이 중요하구나 생각했다. 미래는 자원이 돈을 결정 한다고 하는데 북핵 등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화가 났다. 통일을 무력으로 하려고 한다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점점 다른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북한의 핵 개발, 남한의 사실과 힘든 삶으로 인하여 북한을 나가는 사람이 늘어간다고 한다. 한 달 전 뉴스 북한 외교관의 망명신청을 보고 나의 짜증은 극에 다다랐다. 하나의 국가가 60년 동안 분단되어있다. 휴전의 두려움이 어린아이들에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꼭 필요하다. 불쌍한 북한 주민들. 나라도 맨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남북의 거리를 내가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 명 이상이면 여러 명이 다 따라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우리 가족 4명이라도 남, 북한 통일에 맨 첫 거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늘어만 가는 남북한의 긴장, 마음의 거리, 오늘 통일에 대하여 배운 내가 먼저 캠프 이름처럼 통일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통일 후의 이득과 유망 직업 등을 알고 있고, 배운 통일리더 캠프 강사님들과 통일리더캠프 참가자들이 꼭 동참할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탈북 청소년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하기 위해 다음 통일리더캠프도 참가해보고 싶다. 여러 정보를 아려 주신 강사선생님들과 통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된 통일리더캠프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1차 / 7조
- 2.학교명/학년 : 광양제철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조성주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하고 나서..

솔직히 이 캠프에 오기 전, 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뿐 만 아니라 그냥 북한 사람들이 싫고 꺼려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어렸지만 연평도 포격 등 굵직굵직한 북한의 도발에 관한 뉴스들은 어린 나에게 북한은 멀리해야 한다는 무조건적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내가 북한에 대한 묘한 적대심을 가지게 했던 것이다.

통일 캠프 첫날 했던 ‘통일 빗장열기’ 라는 프로그램을 하던 중, 북한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다. 막상 다 적어 놓고 보니 북한에 대한 나의 커다란 적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정말 부끄러웠다. 그 시간 이후로부터 북한에 대한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북한 새터민분들과의 만남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내가 생각하던 그런 조종되고 강제적인 북한의 실제 상황에 대해 들으니 괜스레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그날 저녁엔 밥을 싹싹 굵어 먹었다.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밥을 굶는다던데”라는 생각이 나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캠프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회’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번 통일리더 캠프는 북한에 대해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해주고 후대에 내가 진정한 통일을 이끌어 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주었다. 또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물로 준 것 같다. 나는 내가 아는 또는 그 다른, 아니 전국의 사람들이 이 통일리더 캠프에 참여 해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그러한 통일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다 같이 손잡고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쟁취하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이러한 장점이 풍부한 캠프라면, 또 다시 참여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1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담양여자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최유빈
- 4.소감문

진짜 뻘한 이야기지만 나는 북한과 통일이 안 되었으면 했다.

---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내가 신청하게 되었다.

---

나는 이 캠프가 엄청 기대되고 떨렸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오기 전, 유튜브로 북한에 대해 많이 봤고 어떤 아프리카 B가 탈북 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을 보기도 하고 ,

---

TV로 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시청했다. 진짜 여기오기 전에 북한에 대하여 웬만한 것을 알고 왔지만 여기 와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북한도 통일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고 신선했다. 또 북한에 자원이 많다는 것만 들었지 어떤 것 들이 많고 그게 어디에 쓰이며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것에 대한 중요함과 소중함을 몰랐는데 진짜 북한에 있는 자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의를 들으며 느끼게 됐다. 그리고 내 꿈이 외교관이다.

---

진짜 내가 커서 외교관이 되었을 때 통일을 이루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외교관이 되어서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떨린다. 그리고 나는 외교관이 되어서 통일이 되었을 때 열심히 외교활동을 하여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간도문제도 해결해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낮을 많이 가리는데 친구들이 다 착해서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어서 고맙고 내가 이런 좋은 감정을 얻었으니 다음에 이런 소중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주고 내가 느꼈던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1조 친구들아 다시 만나자! 통일 파이팅!

---



---



---



---



---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2차 / 7조
- 2.학교명/학년 : 광주 교대부속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임지수
- 4.소감문

우연히 평소 관심이 많아 자세히 알고 싶었던 통일에 관한 캠프에 신청을 해서 오게 된 통일 리더캠프! 학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궁금했던 통일 후 한국의 운동, 관광, 미술, 자원 기대가치 (uni-star),통일의 앞을 막아서는 여러 장애물들, 기대했던 대로 내가 알고 있던 사실에 보충을 해주고 또 다른 내가 몰랐던 마그네사이트 등 새로운 사실 또한 알려줘서 흥미로웠다. 특히 통일이 놀자 여러 다르지만 비슷한 것 찾기를 하며 다른 줄만 알았던 남·북한의 공통점을 알게 되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마다 틀어주던 통일노래로 우리가 꾸미는 통일송 콘서트 또한 재미있었다. 통일 눈높이 시간에서는 내가 생각하던 유일하나 통일의 문제점이자 장애물인 경제부분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다.

통일 시 투자해야 할 돈은 약 3000조원,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얻어낼 이익은 약 6000조원 실로 어마어마한 예상수치다. 현재는 아쉽게도 멈춰있지만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중심으로 꾸며진 통일 마당극은 부담 없이, 모두가 웃으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게 해주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통일 후, 나의 꿈의 무대는 더욱 더 넓고 화려해 진다. 초등 통일 리더십 시간에서 한 통일 후 버킷리스트는 ㅋㅋㅋ 나에게는 정말

여러 꿈의 무대인 통일한국을 만들어 갈 사람들은 우리세대니 이런 캠프 참여 기회가 많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솔직히 내가 가장 재미있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은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었다.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어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쉽고 정확히 해결 되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1. 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2차 / 5조
2. 학교명/학년 : 독천초등학교 / 5학년
3. 성명 : 박정민
4. 소감문

통일리더캠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엔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격해  
 북한하면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과 인적자원을  
 이용하고 또한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이용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고  
 좋다. 게다가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이 슬퍼하고 힘든 생활로 탈북자들도 안타까웠는데 하루  
 빨리 통일을 하고 싶어졌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아이들 같이 뛰어놀고 북한의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평양냉면 등 다양한 관광지와 먹거리를 보고 먹으며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 경위선 철도를 이어 세계탐방여행을 북한 친구들과 영국(런던)  
 까지 가고 싶다. 통일이 되기 위해선 고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어려운길을 헤쳐  
 나가며 통일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펼쳤던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도발해도  
 따스하게 받아주고 대화로 설득하며 우리와 같이 통일을 이루어야겠다. 통일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에게 통일에 대해 알려야겠다. 북한이랑 통일되는 그날까지!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12차 / 5조
- 2.학교명/학년 : 빛누리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최수민
- 4.소감문

저는 이 캠프를 엄마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뉴스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외에는 통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에서 강사님들께서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전쟁도 없어질 텐데 왜 통일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이 되면 좋은 점과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긴 재밌는 뮤지컬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질문 하는 시간도 기억에 남았고,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북한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몇 십 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신 이산가족 분들이 없어 질 것이고 전쟁으로부터 안전 할 것이고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좋아질 것입니다. 통일에는 관심도 없었던 제가 이 캠프를 통하여 많이 바뀐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일의 좋은 점을 알리고 통일이 되어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노력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사람이라도 통일을 위하여 통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12차 / 6조
- 2.학교명/학년 : 광주 교대부설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한민솔
- 4.소감문

나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미래의 꿈나무이다. 그러나 나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앞섰다. 우리 통일 한국을 북한에서 독재 정치하는 김정은이 무력을 앞세워 다시 한반도를 주물락 주물락 어찌나, 우리의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덜 든다지만 북한의 지하자원도 캐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통일 직후 엄청난 경제 비용은 어떻게 극복하나...

아무리 통일을 원한다지만 원하는 것과 현실과는 다른 법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단점 때문에 통일을 생각하면 살짝 우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통일리더캠프를 통해 걱정투성이었던 나의 통일에 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계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북한의 지명이나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이 캠프프로그램의 몫이 큰 것 같다. 남한의 명절, 음식, 통신사 등 다양한 분야로 북한과 관계된 것들을 알아보는 '남남북녀' 짝을 찾느라 고생하긴 했지만 북한에 한발 다가설 수 있어 좋았다.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 내가 제일 기대했던 코너였다. 나는 '탈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탈북민을 내 눈앞에서 만나게 될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갖은 고초를 겪으며 자유를 찾아 남으로 온 이들이 마주친 것은, 남한 사람들의 무시와 이상한 눈초리였다. 나는 이 탈북민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남과 북을 모두 겪어 나는 이 탈북민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남과 북을 모두 겪어본 이들이 대우는커녕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나는 이제 통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미래 통일 한국은 우리 같은 꿈나무들과 탈북민들이 이끌어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제 통일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심하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13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대전 송촌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안효진
- 4.소감문

나는 이번 통일리더캠프에서 내가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의 관점이 달라졌다. 먼저 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번 캠프로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가득하였지만, 캠프가 다 끝나자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많이 늘어났다. 또 이번 캠프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알아갔다. 먼저 통일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프로그램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와 한민족의 비극, 6.25전쟁까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통일이 놀자에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통일을 배웠다. 그 중 남남북녀 프로그램은 표준어와 문화어를 비교 하는 시간이 되어 공부도 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만나는 통일 동화 시간은 얼음 왕국 이야기라는 동화로 우리의 통일을 예상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통일송 콘서트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조원들과 함께 통일 기차를 부르며 율동도 하였다. 2일차에는 I'm 통일리더 시간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통일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과 나의 꿈을 나의 꿈 목록에 옮겨 나의 꿈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에서는 평소 궁금하였던 탈북 과정과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북한의 학교생활 등의 궁금증을 탈북청소년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통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1박2일간의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웠던 통일리더캠프가 모두 끝나 정말로 아쉬웠다. 그 동안 정들었던 같은 10조 친구들과 김의준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을 생각하니 슬펐다. 앞으로 나는 통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중학생이 되서도 통일리더캠프를 참여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13차 / 8조
- 2.학교명/학년 : 대전 장대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임채민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처음 선생님께서 이 캠프를 추천해 주셨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다.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식은 있었으나 진지하게 생각하여 본 적은 없었기에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북한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하고자 참가하게 되었다. 입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빛장열기”라는 이름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사선생님께서 A4용지를 주시며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을 적어보라고 하셨다. “잔인하다, 강제적이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등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솔직히 이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나라와 통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남은 강의를 모두 듣고, 맨 마지막 강의였던 “통일 다이어리”를 들은 후 나의 의문은 모두 풀리게 되었으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해졌다.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하게 되어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음악 시간이나 도덕시간에 잠시 흘러나오던 통일노래를 이 캠프에 입소하게 되어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교육용 동영상, TV에 나오는 동영상에서 표현되는 북한의 모습은 북한 전체의 모습이 아닌 극히 소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이기적이거나, 우리와 통일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꼭 통일을 해야 하는 나라로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앞으로는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해보고 싶다. 통일노래와 통일포스터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릴 것이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꼭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13차 / 9조
- 2.학교명/학년 : 대전 선임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대현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를 하며 북한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한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을 하여 좋았다.

원래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해서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부 모두가 통일의지가 없는 줄  
알아서 북한사람들은 모두 잔인하고, 차가워서 나쁘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탈북자 누나들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북한 사정에 대하여 알게 되니 우리나라의 환경이 우리를 위하여 잘 되어있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 사정을 잘 알게 된 프로그램인 탈북청소년들과 만남이 개인적으로  
좋았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통일 리더십도 뜻깊은 경험이었다. 리더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리더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통일리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통일  
을 위해 첫 번째 리더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듣게 되었다. 우리가 통일리더  
라면 몸소 통일에 도움 되는 일을 솔선수범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이 프로그램도 만족스러웠다. 통일리더캠프  
에서 계속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산가족이었다. 연극을 보며 이런 생각이  
더욱 듣게 되었다. 이산가족이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보지도 못하고 죽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산가족이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들었다. 그만큼 이산가족이 많다는 뜻인데 요즈음은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못 만나고 있다고 한 것 같다. 나도 통일에 조금인 도움  
될 수 있는 일 을 하고 싶다. 이 캠프를 통해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경험 인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13차 / 9조
- 2.학교명/학년 : 대전 삼천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이채은
- 4.소감문

통일리더를 하면서 북한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북한이 싫었다.  
좀 많이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특강 탈북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북한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 또, 통일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  
통일 빗장열기, 눈높이 통일 특강, 마당극, 동화 통일리더십 등이 나에게 통일이 중요  
하다고 알린 것 같다. 그리고 통일을 하면 좋은 점도 생겼다. 서로 서로 남과 북이 협동, 화합  
하면 통일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또 통일기차를 타면 중국이나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1일차에 통일이 놀자 에서 한쪽다리를 묶어 협동해서 게임에서 이긴 것이 서로 협동이  
고 화합인거 같다 나는 북한에 대한 내용, 통일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또, 우리가 서로  
협동하면 우리의 밝은 미래인 통일이 빨리 올 것 같다. 그리고 처음 보는 친구들과 사귀  
고 통일에 대해 의논한 것도 재미있고, 통일리더 캠프가 유익했다. 1박2일 동안 유익했다.  
내가 알지 못한 이야기 , 내용을 알게 되었다. 즐거운 1박 2일이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14차 / 4조
- 2.학교명/학년 : 대전 탄방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강성우
- 4.소감문

‘통일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교류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교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교류는 이미 2008년 전까지 하고 있었다고 했다. 내가 말한 이 교류가 지금은 더 이상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교류는 일시적일 뿐이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교류가 아닌 통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생각보다 심각했다. 현재 북한이 우리와 척을 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저 편에서는 포탄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저편에는 국경선 지역 주민들 위협했으며, 이제는 완전히 갈라진 상태이다. 북한에 있는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 분명 북한인데 남한이 아닌 중국과 강철 장기계약을 맺었다. 무려 50년이다. 이렇듯 우리가 잃어버린 땅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또 어떨까? 우리들의 가슴 저편에는 ‘트라우마’가 잠재되어 있다. 6.25를 직접 겪은 사람들은 비슷한 일이 있어도 공포를 느끼고,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불안감을 가진다. “분단”, unification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보다시피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것이 내가 이 캠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다. 또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에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금껏 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이 캠프에서 나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이제는 통일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뿐이다.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된다. 조금은 여유 있게 이루어져도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아픔을 보듬어주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통일”이라는 문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 나부터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 나에게 많은 느낌과 생각을 준 캠프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14차 / 6조
- 2.학교명/학년 : 금산동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이송인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하고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이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통일에 관심도 없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된 것 같다. 또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쟁만 하려는 줄 알았다. 북한 주민들은 못사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나라 여행도 못 가게하고 휴대폰 사용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탈북한 북한사람들에게 질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사라졌다.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원하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게 놀면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친구들과 재미있게 활동했다. 그 중 통일빛장열기 프로그램이 생각이 난다. 이 프로그램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A4용지에 친구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장점을 롤링페이퍼처럼 돌아가며 적었다. 친구들에게 칭찬도 받고, 기분이 좋았다.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셔서 인문학과 통일이 무슨 관계이고, 통일이 왜 필요하고 북한에 풍부한 자원들은 설명해 주셨는데 이상하세 즐리지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 통일송 뮤직비디오에서는 뮤직비디오를 하나 골라서 영상을 찍었는데 춤도 추고 연기도 하며 발표고 하고 다른 모듬이 만든 뮤직비디오도 보니 정말 흥미진진하고 정말 뮤직비디오에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통일 희망 팔찌 만들기 할 때는 엄청 재미있게 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하기 싫었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재미있고 색깔도 예뻐다. 만들기를 잘한 것 같다. 정말 보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급식이 맛있었다. 우리 학교 급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1박 2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1박 2일 동안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빨리 통일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커 나아갈 것이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 정말 재밌고, 신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14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대전버드내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이우석
- 4.소감문

평소 통일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통일 직후에 사회혼란이나 문제, 경제가 흔들릴 거라는 몇몇 어른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통일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 그렇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친구의 권유로 이번 캠프를 신청했고, 오기 전에는 설렘만큼 충분히 만족하고 많이 배워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느낀다. 먼저 '통일빛장열기'에서는 빛장이라는 단어를 소개할 때 큰 감동을 느꼈다. 통일 측은 북한에 대한 크게 닫힌 마음을 열자. 즉 선입견을 버리자는 말은 북한의 한 가지 모습만으로 그 전체를 판단하던 나에게 큰 반성이 되었다. 다음으로 눈높이 통일특강에서는 조금 더 북한, 통일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에서도 큰 감명을 받았다. 입소식 시작 전에 작은 종이에 탈북 청소년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에서 '탈북의 과정을 어떻게했는가?'라는 질문을 썼는데 내가 뽑히지는 않았지만, 나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친구의 질문으로 대답을 들었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까지 탈북의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위험하긴 하겠지 라며 짐작만 했을 뿐, 이 대답으로 생각을 크게 바꿨다. 앞으로 TV에서나 어디서든 탈북인을 본다면 존중할 수 있을 것 같다. '통일미션 릴레이'는 솔직히 별로 감흥이나 느끼는 것이 없었고, '통일인문학 특강'에서도 역사시간인 듯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만 들었다. 다음으로 '통일송 뮤직비디오 만들기',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어색하게 앉아만 있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촬영하고 또 시청하는 모습이 마치 통일을 체험하는 듯 신기했다. 후에 '중등 통일리더십', '통일 희망팔찌 만들기' 만들기에서도 별로 무언가를 느끼진 못했다. 처음 해보는 체험활동들이었지만 학교를 빠지고 나올 만큼 가치가 있었음을 느꼈다. 앞으로 친구나 가족들과 얘기할 때 선입견이나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체험활동이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14차 / 6조
- 2.학교명/학년 : 매곡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이효진
- 4.소감문

처음 며칠 전에 통일캠프에 간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얻어가지 못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통일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통일 캠프를 하러 세종시에 홍익국제연수원에 가서 처음 조를 배정받고 자리에 앉았을 땐 아직 자리에 앉지 않은 다른 친구들이 궁금했고, 조금 긴장이 됐다. 입소식을 하고 통일빛장열기 프로그램에서 세계 각국에 특이한 인사법으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했을 때는 어색했는데 웃기도 했고,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특강도 들었는데 눈높이특강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북한은 무조건 우리를 위협하는 나쁜 나라라고 인식했었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중간 중간에는 졸리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도 했었는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재밌었고 신기했다.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에서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다고 해서 조금 어렵고 말도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조금의 어려움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민족인데 서로 나누어져서 다른 이름을 붙여 서로를 견제하고 총을 겨누는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았다. '통일미션 릴레이'에서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라서 졸음은 없었는데, 평화통일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을 찍는 것은 어려웠다. 사람이 직접 조형물이 되는 거라서 더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나는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가족이나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도 어려운데 통일 노래를 입혀서 찍는 것이 더 어려웠다. 마지막에 그것을 발표하고 친구들과 보는 것도 창피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를 마치고 다음날에는 중등 통일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들었다. 이번엔 진로에 대한 강의였는데, 조금 새로웠던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직업과 적성에 맞는 진로도 찾아봤다. 다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재밌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나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많은 자원과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을 합치면 우리는 강국이 될 것이다. 반드시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원한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15차 / 2조
- 2.학교명/학년 : 경주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김아연
- 4.소감문

평소,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다. 뉴스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마다 북한이 두렵고 낯선 존재로만 느껴졌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낯선 북한 사람과 잘 못 지낼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하여,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탈북 청소년들과 만났을 때, 북한의 교과서에 남한은 가난하고, 통일을 하여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항상 나쁘게 생각하던 북한, 하지만 캠프를 통해 편견을 버렸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만약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하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술력이 만나 강대국을 만든 다는 것이다. 이것을 듣고 통일의 중요성이 내 가슴에 와 닿았다. 북한 청소년과의 만남 때 내가 직접 질문을 하는 . 기회가 있었다. 내가 질문을 할 사람으로 뽑히게 되어 기뻐고, 내 궁금증을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만약 우리 반에 탈북한 아이가 전학을 온다면 정말 잘 대해 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만약,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북한어를 많이 배워두는 것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탈북한 사람들의 말로는, 남한에 와서 말투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언어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마음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만약 다시 이 캠프에 오게 된다면, 통일을 하기 위한 완벽한 리더가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을 나쁘고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한 민족이고, 단지 언어, 문화 등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빨리 통일이 된다면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싶고,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을 가고 싶다. 통일!!! 빨리 와야 하는 것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15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삼신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유림
- 4.소감문

이 캠프를 하기 전만 해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에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통일캠프로 인해 통일의 중요성과 통일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우리나라도 이제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물론 나도 예전부터 북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강대국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물론 핵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태도에 감명을 받았다. 게다가 그들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가 경계하는 이유와 북한의 미제증오가 이해되었다. 물론 여전히 북한도 “김가네 독재정치”와 그들의 인권무시를 보면 화가 나기도 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캠프 중 ‘북한 청소년과의 만남’ 프로그램에서 답해주신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라고 있다.”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싶다. 난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북한 사람과 남한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들의 문화, 특히 분단의 증거인 북한말을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나는 통일이 되면 백두산도 가고, 평양냉면도 먹어 보고, 통일기차도 타고 세계일주도 해보고 싶다. 새로 생길 북한 친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나는 이 캠프의 프로그램 중 통일송 콘서트의 ‘one dream one korea’가 제일 좋고 인상이 깊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15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삼신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이세빈
- 4.소감문

사실 통일리더캠프는 안 오려고 했는데 우리학교는 의무여서 오게 되었다.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왔었다. 하지만 막상 게임도 하고 통일도 배우니 재미있었다. 나는 원래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도 많이 차이하고 같아지려면 서독, 동독처럼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월급도 적을 텐데 우리가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 서독, 동독도 아직 지금까지 경제력 차이가 나는데 북한과 남한은 더욱 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캠프를 오고, 북한의 광물자원과 우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한정적인 통일 비용보다, 무한한 비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꼭 통일을 안 해야 한다고 말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으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덤혀진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은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k-POP을 방송으로 우리나라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도자인 김정은과 뉴스에 나오는 내용 만으로만 고정관념을 가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했다. 북한 사람들이 힘들게 경비들을 피하고 악어가 사는 강을 작은 배로 위험하게 남한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안타까웠다. 궁금했던 점도 답을 알고 이산가족과 아직도 위험하게 탈북을 하는 사람들을 난 나 몰라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산가족이 끝내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람들도 나중엔 가족을 만나길 빌고 나도 통일을 위해서 북한말도 조금 익혀두고 탈북 청소년을 차별하거나 놀리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호텔의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잘 해주셔서 재미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다음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 친구들과 통일기차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15차 / 1조
- 2.학교명/학년 : 영천포은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최범수
- 4.소감문

난 통일리더캠프에서 참여하기 전 평소에 뉴스를 보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SLBM실험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원수의 독재정치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안타까웠지만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고 통일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했다. 그러나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하자마자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먼저 첫 수업에선 다른 나라의 인사 방법을 사용해 첫 의사소통을 했다. 다소 어색했지만 재미있었다. 두 번째 수업 때는 통일에 대한 특강을 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념이 다르지만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남남북녀 게임을 하며 북한의 용어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통일송 콘서트를 했다. 우리 1조는 통통통 노래를 했다. 모든 조가 잘했으며 아름다운 노래 가사처럼 남북화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초등 통일리더십특강, 통일에 관한 재밌는 연극도 보았다. 이번 캠프에 참여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해소되었고, 탈북민 누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커서 훌륭한 통일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꿈은 변호사이다.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서 남한 북한 사람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자는 나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 우리 조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one dream one korea."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6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초당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민서
- 4.소감문

몇 달 동안 기다린 기대가 너무나도 컸지만 이번 통일캠프는 나의 그 큰 기대를 충족해주었다.  
 보았던 것은 '연극' 이 제일 재밌었다. 통일을 하지 못해서 받는 피해가 '나에게는 상관없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세계로 나가고 싶은 꿈 등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  
 통일이 되지 못하면 사업을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이익을 조금 밖에 얻지 못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꿈 중에 다른 나라에 유학 가서 영어회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있는데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배에 대한 거부감과 멀미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게 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 할 수 있었다. 통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될  
 뿐더러 6.25 전쟁 때문에 생긴 이산가족들이 다시 우리처럼 일반적인 가정인 될 수 있겠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일 재밌었던 활동은 '통일아 놀자'였다.  
 '남북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우리나라의 지리를 잘 알게 될뿐더러  
 재미도 있었다.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강의는 '초등 통일 리더십'이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꿈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며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조폭 등의 지도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보스'가 되지 않고 지혜롭고 ,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내용은 재미있는데 , 시간이 아침이라서 졸려서 잘 못들은 것  
 아 아쉬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6차 / 5조
- 2.학교명/학년 : 석현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박서준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에 오기 전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

오고 나서 새로운 친구들을 보고난 후 마음에 드는 친구와 아닌 친구가 있었지만, 잘 지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맘에 들었던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 이었다. 비록 내가 쓴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 내가 궁금해 했던 웬만한 것들의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다.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새벽 6시 30분쯤 어딘가에서 여자애들이 떠들어서 잠을 깬 것 이었다. 매우 피곤하였다.

통일리더캠프를 하면서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더 알게 되어 통일이 더 빨리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밥을 먹으면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위해 음식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곳 통일리더캠프에 와서 배운 내용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친구들도 통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가져 통일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 친구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해 알려 주었으면 한다.

통일리더캠프는 통일이 되었을 때 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 빨리 통일 되었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6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인천 신선초등학교 /6 학년
- 3.성명 : 박세빈
- 4.소감문

이 캠프는 신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엄마의 권유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아는 아이가 한명도 없어서 어색했지만, '통일 빛장 열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나왔고 생각과 다른 메뉴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통일아 놀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통하여 북한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도 알게 되었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지명과 위치 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하여 주셔서 좋았고, PPT 중간에 좋아하는 걸그룹의 사진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즈음에 가로 세로 낱말 퀴즈도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1등으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묘향산'을 '금강산'으로 착각하여서 틀린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내가 만드는 통일 동화'는 남북의 상황과 비슷한 동화를 가지고 뒷이야기를 꾸미는 프로그램이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의 이야기는 너무 잔인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통일 마당극'은 연극하는 전문 극단이 와서 공연을 하였는데, 소재가 참신했고 중간 중간에 코믹한 요소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저녁은 부대찌개에 라면사리를 끓여먹는 것이라서 또 다시 놀랐습니다. '통일송 콘서트'는 저희 조가 정말 열심히 안무도 짜고 노래도 열심히 연습하여서 무대에 올라갔지만, 중간에 컴퓨터나 MR(가사가 없는 음원 파일)의 문제로 노래가 튕겨져,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숙소도 6인실이었는데, 2층 침대가 3개로 옷장과 화장대, 그리고 TV까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새 방 룸메이트들과 친해져서 수다도 떨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역시 아침도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고 아침부터 유익한 '초등 통일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오신 분들이 저희

또래가 아닌 대학생이라서 살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북한의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분들이 북한을 탈출하실 때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새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해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추천하고 다시 참가하고 싶습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6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선혜인
- 4.소감문

평소 잠들기 전, 내가 잠든 사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자연재해도 무섭고 끔찍하지만 남북한의 전쟁은 더 나를 공포에 잠기도록 만들었다. 그러니 통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 때 마침 통일리더캠프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쁜 생각만 들었다. ‘내가 그 곳에서 열심히 배운다 해도 남북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꺼야’라고. 하지만 나 한사람이 모여 국민 모두가 되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일’이라는 축복이 다가올 거라고 마음을 고쳤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 통일리더캠프에 도착하자 광대한 강당이 나를 반겼고 한편에서는 통일을 이루자라는 주의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엑소의 백현, 방탄소년단의 정국까지, 가수도 노력하는데 한창 공부하는 학생이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우리학교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시간을 갖는 시간이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로 내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일주일전에 나는 막연히 통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캠프가 내 생각을 뒤집었다. 통일은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통일을 이루면 나라의 경제를 위하거나, 사람들이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폭 좁은 생각을 하는 나를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환상을 알게 해주었다.

처음 보는 친구도 친해질 수 있는 잘 짜인 프로그램이 나를 바꾸었다.

통일 통일이오면 나는 정말 기쁠 것이다. 분단이 100년을 넘기면 나라의 수치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 제발 100년만 넘기질 말기를 5년 ,1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니 통일이 이루어지길 마음속에 새기고 , 또 새긴다. 두 손을 마주잡고 통일이 되어 북한 친구와 함께 노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통일리더캠프는 정말 마법 같은 놀라운 캠프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6차 / 3조
- 2.학교명/학년 : 귀인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염서진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 이번에 나에게 아주 많은 것을 알려준 통일지식백과 같은 캠프였다.

내가 이 캠프에 오기 전, 북한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피의 색깔인 빨간색, 어둠의 색깔 검은색이 생각났었고, 김정은이 시민들에게 하는 압박 등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지만, 나는 가끔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이 되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일리더캠프를 통하여 나는 느낀다. 내가 아주 많이 변했다는 것을 내가 변했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프로그램과 '통일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내가 통일 다이어리를 쓰고 나서 그 전에 내가 북한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니까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이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변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에 있던 통일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되었고 통일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캠프는 나에게 더욱 귀중한 능력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통일리더캠프는 조끼리 하는 활동이 많아서 같이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많이 바뀌어서 통일리더캠프 선생들과, 강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중요한 과목일수록 복습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통일캠프도 다시 참가하여 배운 내용을 다시 듣고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저를 바뀌게 도와주는 통일리더캠프 선생님과 강사님께 모두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통일리더캠프! 고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6차 / 12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묵동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이세희
- 4.소감문

처음에는 모르는 애들이 많아서 어색해서 조금 재미없었는데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나니까 친해져서 좋았다.

통일리더캠프에 와서 북한에 대한 나쁜 편견을 버리고 통일을 왜 해야하는지,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을 배우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 통일리더캠프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통일하는 것이 좋다,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다. 또 북한 친구를 만나서 질문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나쁜 편견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

통일 빗장열기에서 이어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이겨 하리보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남자선생님들이 방해로 해서 질까봐 짜증이 났었다. 통일 마당극에 공유를 닦으신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잘생기셨고 언젠가는 세계여행을 기차를 타고 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통일송 콘서트를 할 때에는 감기가 걸려서 노래를 잘 못 부른 게 아쉬웠고  
우리가 만든 율동으로 무대에서 춤을 출 때 부끄러웠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다.

초등 통일리더십을 할 때에는 나의 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나도 목표가 생길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꼭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리더캠프에 오기 전에는 통일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했었는데 캠프에서 통일에 대한 것을 배우고  
북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통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 한민족이 하나로 통일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고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세계여행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6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인천 원동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최석준
- 4.소감문

이 캠프를 참여한 계기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체험학습도 겹쳐 오지 말까라고도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캠프를 참여하는 것은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 보다 10~100배 더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다시 그 유익했던 시간을 돌려 보겠다.

먼저, 통일빛장열기에서는 북한의 이미지를 알아보았는데, 대체적으로 북 핵, 나쁘다, 억압 이렇게 비교적 부정적인 이미지를 적었다. 그리고 나는 통일이 불가능 한 줄 알았다.

왜냐하면 체제와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프로그램은 바로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의 인적자원과 광물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만나면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기차타고 유럽까지 갈수 있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었다. '통일아 놀자', '통일동화', '통일 마당극'에서는 통일이 되었을때의 장점을 더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콘서트에서는 One dream, One Korea 라는 노래를 통해 가사처럼 통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초등 통일리더십에서는 내가 통일리더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탈북자의 만남과 다이어리였다.

나는 그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나쁘지 않다는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통일과 북한이 우리랑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정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차별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였다. 나는 이 두 가지는 살아가면서 꼭 지킬 약속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7차 / 4조
- 2.학교명/학년 : 서울송정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김동휘
- 4.소감문

선생님의 권유로 이번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평소 매체를 통하여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통일리더캠프를 통하여 신문, 뉴스 등 북한의 소식을 일부 왜곡되기도 하고,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많은 강의들 중 탈북한 형, 누나들과 만나 궁금한 것을 여쭙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발전이 몇 십 년 느릴 뿐, 배우는 과목도 비슷하고, 스마트 폰도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공산주의 체계에서 장마당이라는 시장 문화가 발달하여 자본주의를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것도 놀라웠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도 얼른 남한과 통일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한 다는데, 우리가 북한을 너무 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 부끄럽다고 여겨진다.

비록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으킨 만큼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이 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조들에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금의 모습에 죄송할 따름이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통일 한 것처럼 우리도 활발히 교류하고, 독일만큼 통일하는 것은 앞으로 힘들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의 하나 된 정신력을 본받아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겠다. 통일을 갑작스러운 뉴스속보로 듣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더 아름다운 통일을 만들어 나가게 하도록 알려 준 통일리더캠프에 감사하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7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용인 신촌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김민주
- 4.소감문

“One Dream , One Korea”

여러 명의 가수가 함께 부른 통일송의 주된 가사이자 제목, 즉 ‘통일’이라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 된 ‘한’국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캠프에 오기 전, 통일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서 캠프에 지원하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매일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분단이 되었고, 6·25 한국 전쟁에 의해 휴전중이며 현재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분단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해야한다고 배웠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 글짓기 대회나 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정작 통일이 되도록 사람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통일하면 좋은 점’이나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담지 않고 막연한 단어 그 자체인 ‘통일’을 담은 주제를 삼았다. 표어를 예로 들자면 ‘통일 시작 행복 시작’등과 같이 왜 행복한지는 담지 않은 채 한반도에서 남북한 어린이가 어깨동무 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만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심지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따라다니는 ‘분단국가’라는 꼬리표가 그저 싫어서 통일을 하자고 하는 줄 알았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수식어가 싫어서 말이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원래 한 민족이었으니 합쳐야 하니까, 등의 좁은 이유로 ‘통일’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바라보려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캠프를 하면서 나는 나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강의를 들으며 나는 내가 평소에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후회되었다. 우리의 손해가 될 것 같았던 통일 북한과의 어색한 조화인 통일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통일은 무너져 내릴 한국 경제 등의 발전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매 해 어마어마한 분단비용이 없어지고,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고급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 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철도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러시아와 여러 유럽 국가로 한 번에 진출 할 수 있다. 수학여행을 프랑스로 간다니! 생각 만해도 설레는 일이다. 그 외에도 여러 이점이 있다니, 놀라웠다.

통일을 한다면 새로운 직업이 생겨 날 것인데 , 유망 직업은 경제 분야에 많았다.

경제 발달이 더딘 북한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면 여러 경제학자나 경제 분야 종사자들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캠프 마지막에 만들었던 통일 희망 팔찌 활동 인상 깊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만들고 통일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에게 전달해줄 생각을

하니 뿌듯했다. 여러 통일송처럼 통일이 된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이다. 문화

차이, 갈등, 통일의식 부족 등의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통일이 되지

않을까?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7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신능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서영
- 4.소감문

사실 큰 기대 없이 신청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에 대해 알 수 있고 그런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좋았다. 강의를 진행해주시는 분이 열심히 알려주셔서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우리를 경계하는 다른 나라들의 태도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캠프 전에는 그냥 “통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이야” 라고만 막연히 얘기하였다면 “우리는 통일을 한다면 ~~이러이러하고 ~한 이유 때문에 통일을 꼭 해야 해!” 라고 (캠프가 끝난 지금은)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일을 하면 무슨 점이 좋은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현재 북한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탈북하다 잡히면 총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스마트폰이 있으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는 것 등등)

현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멈췄다.” “통일만이 해결방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왜 모두가 귀 기울이지 않는 지 의문이다.

아! 프로그램 중 탈북자들을 실제로 만나서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았다.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 신기하기도 했다. 만나보니 그 분은 우리와 다를 게 없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데 왜 통일을 하지 않을까? 통일이 되면 목숨 몇 십, 아니 몇 백 개를 구하는 건데…….’

정말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을 만날 때 탈북과정에 대해 안 물어 봤으면 좋겠다. 쉬는 시간에 탈북자 한 분과 이야기를 할 때 탈북과정을 물었더니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궁금하긴 해도 힘들어하니, 슬퍼하니 묻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기다리다 보면 남한, 북한이 아닌 하나의 나라=Korea =한반도라 불리는 날이 오겠지??

+ 조가 같은 나이로 이루어진 게 좋았고 조원이 참 좋았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7차 / 5조
- 2.학교명/학년 : 동해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우창호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하였다. 통일리더캠프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북한에 대하여 자세하고  
인상적으로 설명해주셨다.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통일을 하면 좋은 이유나 꼭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궁금했다. 그러나  
이 궁금증은 오늘, 어제 다 풀 것 같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면 세계 경제국 2위까지 오를  
수 있고, 더 강하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기차를 개통하여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관광지(백두산, 금강산, 판문점, DMZ 등)를 발전시켜서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하여 수익도  
높이고, 동남아권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통일된 한국을 이용하여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통일리더캠프에서 뮤직비디오 만들기를 하였는데 인상 깊었다. 통통통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유치했지만 재미있었다. 통통통이란 노래는 통일송, 통일기차, 끈, one dream  
one korea등 노래와 같이 통일을 기원하는 노래였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할 때도 더  
뜻깊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이 나한테는 지루했지만 북한에 대하여  
제일 알 수 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다음에는 통일리더캠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북한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간에 질문을 더 많이 할 것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7차 / 5조
- 2.학교명/학년 : 덕성여자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이경민
- 4.소감문

처음 인터넷으로 통일리더캠프를 보고 신청했을 때에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기본 지식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들에 뒤쳐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 활동을 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 수 있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등 통일과 북한, 남북관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다. Q&A시간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북한의 실정까지 알 수 있었는데 흔치 않은 기회라서 가장 인상 깊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원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바꾼 것 같다. 북한 분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잘못 아는 게 많구나.’ 싶었다. 가장 놀랐던 사실은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놀랐다. 가장 신났던 건 ‘통일송 뮤직 비디오 만들기’ 활동이다 ‘통통통’이라는 곡에 맞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조원들이 협조를 안 할 때도 있어 힘들기도 했지만 다 같이 모여 만든 결과물을 보니 뿌듯했다. 처음 만들어보는 뮤직비디오라 서툰 면이 많았지만 과정이 뜻이 깊었다. 조장이 총괄하고 조원이 따르는 시스템이 아닌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시스템이라 1박 2일 동안 ‘내가 맡은 바는 해야 하겠다.’라는 책임감을 쥐고 있었는데 이 또한 좋았다. 보통의 캠프에서는 조장과 조원 몇 명이 하고 탄 행동을 하며 협조를 안하는 조원이 있어 힘들고 딱 주어진 책임감이 없다 보니 나 또한 협조를 안 할 때도 있었던 거 같다. 솔직히 나는 ‘꼭 통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통일을 해서 얻는 이익이나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같다고 생각하여 통일하면 피해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박 2일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동안 강의를 듣고 활동을 하며 생각이 바뀌었다. ‘아, 통일은 반드시 해야겠구나.’하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 꿈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이전까지의 내 꿈은 단지 ‘초등교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꿈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학생들에게 통일과 북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북한과 통일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지만 그만큼 더 노력할 것이다. 다음에도 이런 캠프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17차/ 2조
- 2.학교명/학년 : 상일중학교 / 1학년
- 3.성명 : 황서연
- 4.소감문

처음 이 캠프에 왔을 때에는, 통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터라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통일의 기초적인 정의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다. 통일이 되면 이루어질 긍정적인 일들과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서로 분단된 역사적 배경과 그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다. 또한,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북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들도 통일을 원하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걸 들었는데, 이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북한에서 탈북한 두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북한의 생활 방식과 탈북하게 된 계기, 북한이 남한을 보는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되었다. 비록 지금은 분단되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한 민족이라는 것은 힘들 때도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들과 우리의 경제적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통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므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통일이란 꼭 해야 하는,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수년이 걸릴지 수십, 수백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협동하고 화합 한다면 그 준비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긴 시간동안 차차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기르고, 리더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친구들과 친해지고, 협동심을 컵타와 뮤직비디오 제작에서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캠프에서 나와 우리 조 친구들이 처음 보는 사이여서 서로를 잘 몰랐던 것이 지금 남한과 북한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2일 동안 같이 활동해서 친해지고 마음을 맞춰간 것처럼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제까지나 남한과 북한은 화합하고 서로의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통일의 첫 발걸음 일 것이다. 그 후 서로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한 민족이 되어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는 나부터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캠프에 온 후에 나의 생각이 달라졌기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생각이 모두 같아야한다. 우리 모두는 통일에 더 관심을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충북권 / 18차 / 4조
- 2.학교명/학년 : 동명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김현빈
- 4.소감문

저는 2016통일리더캠프(국내) 과정을 마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북한 사람들은 나쁘거나 무섭거나 가난하다는 편견을 버리려고 해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기를 꺼려했었는데,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모두 나쁘거나 무섭고 가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나 북한의 핵무기 등 북한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마다 관심을 가지고 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통일리더캠프의 특강을 통해 통일을 하면 좋은 점, UNI-STAR 탈북한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김경민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통일에 관한, 또 그 밖의 꿈을 키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게 한 번 더 통일리더캠프에 참가 할 기회가 된다면 저는 반드시 또 다시 참가할 것입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1. 지역(차수/조) : 충북권 / 18차 / 2조
2. 학교명/학년 : 칠금초등학교 / 5학년
3. 성명 : 손선아
4. 소감문

그냥 평소 통일이 빨리 돼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통일은 정말 우리에게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 추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여기 도착했을 때 비도오고 친구들도 많이 없고 처음  
 보는 애들만 가득했다. 통일 빗장 열기를 통해서 친구들도 알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차피 1박2일 동안 할 친구들이어서 같이 하기로 하였다. 그 뒤에 통일이 놀자,  
 통일마당극 등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았다. 통일에 대해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로소 이번 통일 캠프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한다면 친구들도 이 캠프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 통일의 추천자가 많아져 우리 한민족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는  
 통일캠프를 다시 오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충북권 / 18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제천 동명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오현정
- 4.소감문

통일, 통일은 하나가 아닌 여럿이서 합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캠프 주제가 통일인데 이번 캠프에서 어떻게 합동할까? 10월 25일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통일을 주제로 캠프를 간다니 정말 설렘다. 차타고 가는 동안 통일을 주제로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니 북한에 대해 몰랐던 내용을 얼마나 알게 될지 곰곰이 생각하여 충주 켄싱턴 리조트 통일리더캠프에 도착했다. 부푼 마음으로 강의실로 들어갔다. 충북에 있는 리더들을 보니 되게 멋졌다. 그리고 정말 드문 기회를 갖게 되어 꿈만 같았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통일 빛장 열기를 하였다. 세계 각국의 인사법으로 친구와 인사하니 정말 재밌었다. 그 중에는 후추 뿌리듯이 코를 비비며 인사하는 게 제일 특이한 것 같았다. 우리 8조 애들은 같은 학교 애들이라서 많이 편했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하였다. 이 강의에서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게 되니 통일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이 높아졌다. 통일이아 놀자는 남남북녀에서 세 번이나 1등을 해 기분이 좋았다. 내가 만드는 통일 동화는 서로 합동해 이야기를 만드니 '아, 우리도 합치면 좋은 점이 있듯이 북한이랑 합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 마당극은 네 사람의 통일에 관한 사람들의 소망 등 간절함이 묻어났다. 통일송 콘서트로 단합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다. 파도타기도 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친구들과 통일을 생각하며 잠들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정말 아쉽지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고 가게 되서 뿌듯했다. 초등 통일 리더십 시간에 내 꿈의 목록을 적었는데 그 목록 중 하나에 또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올해 꿈 목표에 썼다. 탈북한 북한 사람들을 만나니 한민족이 된 기분이 들어 너무 기쁘고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또 몽클하기도 했다. 지금 소감문 끝을 쓰려하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 우리의 미래, 북한과의 화목을 위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다. 감사합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충북권 / 19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주성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태완
- 4.소감문

솔직하게 난 이 캠프를 수강하기 전까지는 막상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왜 해야 하는지 의문부터 들었다. 난 지금 남한의 이 생활이 좋고 나와 같지만 다른 말을 쓰는 듯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섞이는 것에 거부감부터 들었다. 더해서 통일하는데 필요한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통일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계기였다. 그런데, 이 캠프가 나의 생각을 뒤바꿔게 하였다. 우선 첫날의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통일을 하면 뭐가 좋은데 라는 나의 의견을 보기 좋게 반박했다.

일명 Uni-Star 즉 Sport(운동) Tour(여행) Art(미술) Resource(자원)에서의 이익은 내 생각을 훨씬 능가하였다. 이 강의는 나에게 큰 깨달음 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이었다. 우리는 통일의 38선 보다 마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통일이 필요하여 했음에도 서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더 큰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린 막연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였을 뿐,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나는 이 2016 통일리더캠프를 통해 여러 가지 내가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까지도 내가 품었던 의문들에 하나하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캠프에서 또한 나는 통일 사회에서 각광받는 직업들을 공부할 수 있음으로써 난 미래 통일사회를 두려움 가득한 눈이 아닌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통일 캠프는 나에게 해답의 열쇠를 쥐어주고 미래 통일을 꿈꿀 수 있게,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런 캠프는 친구들에게 알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평화 통일을 외칠 수 있도록 미래 통일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꾼, 열쇠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s. 김민선 쌤 이쁘고, 착한 쌤, 매 활동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색했는데 쌤이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는 데에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번에 또 이 캠프를 올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 같은 조로 활동하고 싶어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ㅋ

## [2016 통일리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충북권 / 19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청주 복대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이정은
- 4.소감문

평소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많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낯을 가리고 쉽게 적응하지는 못하는 성격이라 조금 걱정은 있었다. 처음에는 '통일 빗장열기'라는 프로그램을 했다 여자가 같이 온 친구인 서희와 내가 전부라 조금 놀랐다. 또, 만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롤링페이퍼를 쓰라고 해서 의아하기도 했다. 그래도 김민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활동을 하니 재미있고 앞으로가 기대되었다. 처음 중식을 먹었는데, 제육볶음이 웬만한 장아찌보다 짜고 국은 조미료가 겹도는 싱거운 맛이라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다음 프로그램은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 '탈북청소년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탈북자의 입장에서 들으니 알고 있던 지식도 더 생생하고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통일 미션릴레이'시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인간 조형물을 만드는 미션이 있었다.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태극무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여서 재미있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 ㄱ~ㅎ까지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글자를 쓰는 미션도 있었다. 눈기, 머리비누, 진소리 같은 북한 말을 사용해 창의적으로 작성하여 1등 조에 선정되었다. 간식도 받고 맛있게 나누어 먹으니 기분이 좋고 보람찼다. 다음으로는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시간이었다. 문학, 역사, 지리 등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남북문제와 통일 문제와 연계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통일송 뮤직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만 남았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차차 아이디어를 내고 재미있게 촬영 및 편집을 하다 보니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다. 우리 조는 남북의 관계를 의인화해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로 표현했다. 이렇게 재미있는 통일리더캠프가 끝을 맺었다. 배운 게 정말 많고 다음에도 꼭 오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충북권 / 19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청주 각리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이태성
- 4.소감문

사실 이 캠프에 오기 전에는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16 통일리더캠프를 경험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나는 ‘탈북청소년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북한의 실상과 탈북자의 삶이 매우 궁금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상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을 겪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더 알게 된 것 같다. 또 통일송 뮤직비디오 또한 재미있었는데, 통일에 관한 영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작하려고 하니 더 고민하게 되고 의미 있던 활동이었던 거 같다. 이 활동을 하니 우리 모두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껴서 통일이 더 더욱 기다려졌다. 내가 가장 감동 받았던 활동은 중등 통일리더십이었다.

선생님이 북한과의 통일의 과정과 현재 상황의 현실, 그리고 북한과의 통일로서의 우리의 좋은 점을 배우면서 통일을 앞당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한 부분에서 의미가 깊었다. 마지막으로 통일 희망 팔찌를 만들어서 더 재미있었다. 통일이 언제될 진 모른다. 하지만 이 캠프를 수료하고 일상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해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특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다. 비록 1박2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만약 다음에 이와 비슷한 주제의 캠프를 만나게 된다면 이젠 꼭 거부감 없이 참가할 것이다. 또 김민선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고, 쌤도 너무 좋다. 잊지 못할 날이 될 거 같고, 통일이 된다면 더 더욱 기쁜 추억이 될 거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충북권 / 19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청주 복대중학교 / 2학년
- 3.성명 : 황서희
- 4.소감문

처음에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길래 '뭐 학교 빠지고 좋겠네' 생각으로 원서를 넣어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캠프 오는 날이 다가오자, 친구와 함께 왔다. 다행이도 같은 조, 같은 방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조의 여자는 나와 친구밖에 없었다. 처음에 안전교육을 하고 통일 빗장  
 열기 시간 때는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과 자기소개를 하고 롤링페이퍼를 작성했지만 누군지  
 몰라서 '친하게 지내자'라고만 쓴 것 같다\*^^\* 8조 담당 선생님은 '김민선' 선생님이셨다!  
 선생님은 정말 예쁘신 것 같다. 통일빗장열기 다음 점심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제육볶음이  
 정말 짠다. 밥 먹고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를 했다. 이것은 특강이었는데,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지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더욱 많았다. 점심 먹고 난 후여서 졸리기도 했지만,  
 통일에 대한 지식을 더욱 늘릴 수 있었다. 탈북 청소년도 만나서 북한의 실제 모습도 들어  
 보았다. 통일미션 릴레이 때는 인간 조형물을 만드는 미션도 있었는데 태극무늬를 만들어  
 우리가 일등을 했다. 그래서 과자를 받아먹었다.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 때도 강의를  
 들었는데, 비슷한 내용이었다. 저녁 역시 맛이 없었다. 그 다음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찍을 때 정말 재미있었다. 숙소로 올라갔는데 나랑 친구랑 단 둘이 방을 썼다. 짱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권을 안가지고 와서 밥을 못 먹고 올라갔다.  
 중등 통일 리더십 때 통일 후 직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통일 희망 팔찌도  
 만들었는데 내가 좀 잘 만들었다!^^ 밥도 역시 맛이 없었지만 마지막이어서 맛있게 먹어줬다.  
 내년에도 신청해서 꼭 오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20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가평중학교 / 3학년
- 3.성명 : 김희진
- 4.소감문

나는 맨 처음에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통일리더십캠프 맨 처음에 통일 빗장열기를 하면서 북한하고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저렇게 통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등 통일 리더십을 하면서 직업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한게 제일 흥미가 있었다. 그리고 탈북자분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같은 한민족이고 소련과 미국으로 인해 분단 된 것인데, 그 몇 십 년의 분단 때문에 한 민족을 이방인 보듯이 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고 이해가 안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화감독/작가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것들도 생각해봤다. 북한도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도와줬고, 우리도 그들을 도와줬다. 거기에서 생각된 게 '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친해져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는 UCC 만드는 것들을 보고 만들면서 '아 이걸 이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었다. 이해되게 한 것은 다른 프로그램 덕분이라 생각했고 나도 통일송을 작사/작곡해서 불러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통일이 필요하고 북한 사람들도 통일을 원한다고 하니 나는 이런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인들부터라도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 통일이 필요한지, 왜 그런지, 생각들을 바꿔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꼭 더 참여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20차 / 2조
- 2.학교명/학년 : 가평중학교 / 1학년
- 3.성명 : 문진
- 4.소감문

내가 이곳에 왔을 때, 통일에 대한 것이라서 매우 무거운 분위기로 캠프를 할 줄 알았는데 강사님께서 유쾌하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셔서 좋았습니다. 첫 강의 때 여성 강사님께서 '우리 미래, 진로에 대해 어떤 직업이 좋다' 등을 하셔서 좋았고 '패러다임을 깨라!' 등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탈북 청소년 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첫 강의 다음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곳에 얼마큼 힘들게 왔는지, 그 곳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한 층 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 분들이셔서 당황했다. 통일에 대해서도 많이 물었다. 통일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야 가능하고 관심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 통일의 시너지 효과(남한의 기술력+ 북한의 자원+ 인력 = 무한대 가치)를 알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많은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거기에다 우리에게 일제시대에 관한 것들을 물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한 차별과 고통 등을 들으면서 분노를 느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더 더욱 우리가 당한 고통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느꼈다. 나는 이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더 더욱 더 잘 알게 되었고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20차 / 11조
- 2.학교명/학년 : 가평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이성현
- 4.소감문

참으로 훌륭한 캠프였다. 11월 1일~ 11월 2일까지의 소중한 기억은 향후 내가 북한에 2016에 가게 된다면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다시 한 번 떠오를 것 같다. 팔찌 만들기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정말이지 훌륭했다. 48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친구가 생기고 관계가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남북통일에 대하여 그 전보다 훨씬 자세 히 그리고 심각하게 알게 되었다. 내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에 대하여 전파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번 통일'리더'캠프의 목적이자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캠프를 통해 교육 받았기에 자신 있게 답변 할 수 있다. 리더란 행동하는 자이다. 리더는 가장 먼저 행동 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는 자신의 양심을 그 누구보다 먼저 실천 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오직 양심은 행동 할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한다. 그러나 리더가 행동한다고 하였다면 그 다음 첫 번째 추종자가 나타나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나 리더와 첫 번째 추종자의 행동을 도와준다면 그 다음 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학자는 이를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 또는 제 3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리더는 바로 이런 자다.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양심을 실천 할 수 있는 자. 바로 이것이다. 이 양심에는 공감의 필요하다. 타인이 공감할 만한 자신의 양심을 실천해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캠프에서 배운 리더의 정의이다. 그리고 이번 캠프의 모든 주제 의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 한다면 통일을 올 해 안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강원권 / 20차 / 6조
- 2.학교명/학년 : 남춘천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최정빈
- 4.소감문

초등학생때 와 보았지만 중학생이 되서 온 통일리더 캠프는 정말 재미있었다. 작년에는 아는 친구들과 해서 재미있었지만 이번에는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해보는 낯설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었다.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으로 북한 친구, 동생, 언니, 오빠들의 학교생활과, 여가 생활, 교복 입는 방식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 걸모습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또, 화장품의 이름이 '살결 물'등 정말로 순수해서 재밌고 새롭게도 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반성도 되고 아쉽기도 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나라는 왜나라 말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멸평하기도 하고 고귀하기도 하고 특별한 '한글'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확실히 깨닫고 갈 수 있어서 좋기도하고 일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속상했다.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사람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장남감처럼 취급하고, 대하고 별레 죽이듯이 무차별하게 죽였다는 말이 가장 화가 나고 속상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속상하다.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들의 그리움으로 마음 아프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얘기가 가장 속상하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를 듣고 배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 백민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렸다. 통일리더 캠프에서 많은 것을 알아 갈 수 있어 정말 좋고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1차 / 6조
- 2.학교명/학년 : 서울은빛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다운
- 4.소감문

오늘 나는 드디어 통일리더캠프를 거의 마치고 소감문을 쓰고 있다. 이 소감문을 잘 쓰면 마무리 캠프에도 참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꼭 참여하고 싶다. 왜냐하면 통일리더캠프 자체가 정말 재밌고 즐거웠기 때문이다. 캠프를 한 장소는 국제 청소년센터였는데, 숙박시설, 교육 프로그램도 전부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어보였는데, 하다 보니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제일 먼저 한 프로그램인 '통일 빗장 열기'는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두 번째로 한 프로그램인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도 통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모르던 북한에 대해 자세히 배우자, 정말 내가 통일리더캠프에 왔구나, 하며 실감이 났다. '통일아 놀자'도 내가 좋아하는 체육시간 처럼 뛰어 놀면서도 북한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남남북녀'라는 것은 한번도 짝을 찾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다음 수업인 '내가 만드는 통일 동화'도 재미있었고, 마치 국어 시간 인 것 같았다. 그리고 통일송에 대해서 배워서 좋았다. 그리고 꼭 내 가족들에게도 통일송에 대해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도 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도 제일 뜻깊었던 시간은 다음 날에 했던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시간에 진짜 탈북자를 만나게 되어서 마치 대통령을 만난 것처럼 신기 하였다. 내가 평소 궁금해 했던 것에 대해 질문 할 수 있기도 해서 즐거웠다. 이번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해서 정말 통일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꼭 북한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기부도 많이 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만 하는 오빠에게 통일리더캠프를 추천해주어야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1차 / 9조
- 2.학교명/학년 : 김포한가람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류희수
- 4.소감문

평소에는 통일, 북한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통일리더캠프 통일 빗장 열기,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 통일이 놀자, 내가 만드는 통일 동화, 통일 마당극, 통일이 놀자, 내가 만드는 통일 동화, 통일 마당극, 통일송 콘서트, 초등 통일 리더십, 탈북 청소년들의 만남, 통일 마당극, 통일송 콘서트, 초등 통일 리더십, 탈북 청소년들의 만남, 통일 다이어리라는 것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리고 통일송 콘서트 때 One dream one Korea를 통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노래도 있다는 것도 알았고,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는데 리허설 때는 보고 있는 친구들, 동생들 때문에 부끄러웠지만 실전 때는 0.1% 떨림도 없이 잘한 것 같다. 나의 꿈이 두 개인데 두 개 중 하나가 노래랑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 오디션 때 One dream One Korea를 부르면 괜찮을 것 같다. 통일이 되면 좋은점과 나쁜점을 알았고,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다. 또 우리 선생님 착하고 우리에게 좋게 말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좋았다. 처음에는 우리 조 친구들이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다른 조들 중에 우리가 제일 친해진 것 같다. 나중에 한 번씩은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1박2일이라 아쉽고, 3박4일, 4박 5일.....하면 좋겠다. 근데 1박2일도 좋은 것 같다. 부모님 없이 캠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떨렸는데 1박2일이라 괜찮고, 다음에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학교 빠지려고 온 건데, 통일리더 캠프는 정말 재밌었다. 내년에 이사 가지만 중학교 때도 통일리더 캠프를 하면 꼭 신청해야겠다. 비록 1박2일 이라도 엄청 친해진 것 같고, 나중에 집에 가면 연우, 동건, 예빈, 규한, 형균이 그리울 것 같고 내년에 또 만나서 팔찌도 만들고 놀고 싶다. 물론 선생님도 내년에 또 만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1차 / 1조
- 2.학교명/학년 : 서울용강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배윤서
- 4.소감문

여기에 오기 전과 처음에는 통일에 관심은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 캠프에 와서 통일과 6.25전쟁도 많이 배웠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북한사람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재미있게 진행되고, 숙소에서도 그렇고 들으면서도 그랬고,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캠프를 해 보니 앞으로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과 친구들에게도 통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또, 집에서도 항상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며 통일을 하기 위해 프로젝트 같은 것도 참가 할 것이다.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친구들에게도 통일은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줄 것이다. 만약 늦게라도 통일이 된다면 나는 문화 같은 차이가 줄도록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앞으로는 절대로 세계에 하나뿐인 분단국가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캠프는 정말 멋지고 좋았던 경험이었다. 통일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하고, 직접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와 역시 한 민족이니 똑같다는 것을 느꼈다.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통일이 되는 걸 바라고 다음에 만약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이곳에 와서 더 많이 배워가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1차 / 9조
- 2.학교명/학년 : 용인신촌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성지훈
- 4.소감문

‘통일’하자고만 했지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통일 하면 무엇이 좋은지만 알았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리더캠프는 내 통일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박2일 동안 통일리더캠프를 갔다 오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통일 빗장 열기 시간에는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 후 북한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적어 보았다. 내가 쓴 단어들을 보니 잔인함, 어두움 등과 연관되는 이미지들이 많았다. 이 캠프 후에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까? 그 다음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는 왜 분단이 되었고,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았다. 통일이 되면 우리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으로 우리나라는 큰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이산가족, 도발과 실험 등의 전쟁의 위협을 막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 그 후 남북 지명과 남한과 북한의 비슷한 것들을 알아보는 통일이야 놀자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통일동화를 만들었다. 싸우던 두 나라의 통일이야기를 꾸미는 건데, 지금 남북의 상황 같아서 속상했다. 차례로 통일 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통일이 되었을 때의 꿈과 계획들을 적어보니 확실하게 통일이 되었을 때 내 꿈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1일차의 마지막으로 통일송을 부르고 발표했다. 2일차 아침은 탈북 청소년과 만나보았는데, 내가 북한의 일상과 북한 사람들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좋았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재미있는 마당극을 통해 정리 했더니, 통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1차 / 1조
- 2.학교명/학년 : 신부천 신도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정서운
- 4.소감문

이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 나라는 하루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나는 사실 통일리더캠프에 오기 전 까지 통일은 우리 일상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이 통일리더캠프에 와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 처음으로 내가 배운 것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였다. 우리는 기술이 좋은 편이고 북한은 자원이 매우 많아 서로 통일 했을 때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우리는 기차를 타고 영국 까지 갈 수도 있다. 나는 평소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배로 가면 멀미가 나고 비행기로 가도 멀미가 나는데 기차는 멀미가 안 나서 기차로 가고 싶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진짜로 기차를 타고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우리는 항상 리더가 되려고 악을 쓰지 말고, 오히려 추종자가 되어서 리더를 도와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꿈의 목록을 통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연구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 신나게 친구들과 노니 참 행복하였다. 이번 통일 캠프는 내게 모든 면에서 도움을 준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진짜로 통일이 되도록 노력하며 자랄 것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22차 / 12조
- 2.학교명/학년 : 옥과중학교 / 3학년
- 3.성명 : 박서은
- 4.소감문

통일캠프에 오기 전에 프로그램을 보니 강의 듣는 게 많아서 재미없고 딱딱한 프로그램으로만 이루어질 줄 알고 캠프에 왔다. 하지만 오자마자 그런 마음은 없어졌다. 재미없을 줄 알았던 강의를 들을 때에는 매우 궁금하고 유익한 내용을 많이 듣고 알게 된 것 같아서 앉아 있는 게 불편해도 참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

통일이 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그런 것이 부끄러워지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통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의미가 깊은 캠프였던 것 같다 !!!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 짧은 1박 2일이 아닌 좀 더 깊고 의미 있는 캠프에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참가하고 싶다!!!

많은 생각을 하고 바꾸게 된 계기가 된 캠프였지만 1박 2일이라 아쉬운 마음이 크다!

의미 있는 캠프였다 :)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22차 / 1조
- 2.학교명/학년 : 남평중학교 / 1학년
- 3.성명 : 박예은
- 4.소감문

2016년 통일리더캠프를 와서 처음 느낀 점은 “내가 잘못알고 있었구나” 이다. 이번 통일캠프에서 특히나 탈북청소년들과의 만남 시간에 내가 북한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사실들, 또 북한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북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통일캠프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궁금증도 알 수 있었다. 그 중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는 오해이다. 그런데 탈북 청소년으로 오신 두 분이 그 오해를 풀어주셨다. 북한이 처음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또 북한에도 치킨집, 피자집, PC방도 있다는 걸 알았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늦다고 하여서 그런 시설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아니었다. 그런데 더 좋았던 것이 있다. 탈북청소년 두 분께서 어떻게 탈북 하셨는지 알려주신 것 이다. 평소에도 너무 궁금한 것이었는데 알게 되어 너무 좋았다. 그런데 탈북을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였다. 탈북을 하면서 온갖 고생은 다 겪으신 것 같다. 이렇게 힘들게 자유를 찾아 탈북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한에서 왔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도 이 통일캠프를 하기 전에 탈북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조금 무서워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랬던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 같다. 이 통일캠프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거 같다 또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시간이 빠듯하긴 했지만, 많이 알지 못했던 통일노래를 알게 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친구들에게도 통일송을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중등 통일 리더십” 강의도 들었는데 정말 명강의인 것 같다. 통일이 되면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또 어떤 직업이 없어질지 알 수 있던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 미래 내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 강의였다. 그리고 이 통일캠프에서 사실상 가장 맘에 들었던 것은 밥과 숙소이다. ㅎㅎ 숙소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적당해서 좋았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가 밥이 맛있는데 여기도 우리 중학교만큼 식사가 맛있었다. 그리고 통일 팔찌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인증도 하고 싶다.

통일 희망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통일이 빨리 이뤄지길 바랄 것 이다. 캠프에 참여하면서 봉사시간도 받고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22차 / 9조
- 2.학교명/학년 : 함평여자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이예원
- 4.소감문

우선 처음 캠프를 신청할 때에는 ‘통일 캠프’라는 목적에 1박 2일 일정이기엔 해봤자 뻔한 내용이거나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크지는 않지만 얻게 되는 작은 변화를 위해 이 캠프를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예상외로 일정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었던 것 같다. 1박 2일이라는 많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다.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을 습득하게 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했다.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조끼리 앉아서 ‘통일 빗장열기’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안면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는 또 색다른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좋았다.

통일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공통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고 생각하니깐 왠지 모르게 달라 보이고 기특한(?) 느낌이었다. 또 여러 분들께서 오셔서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 등의 강의를 해주셨는데 식상한 내용일거라는 예상과 달리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았다. 특히,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에서는 평소에 정~말로 일반적인, 가볍게 궁금했던 북한의 일상생활이나 생활환경, 문화 등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인상 깊었다. 또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소통하고 듣다보니 ‘정말 우리랑 다를 거 하나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평소엔 많은 이들이 북한을 연상시킬 때 떠오르는 단어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몇몇 있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나 또한 북한에 대해 완전히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기에 이번 경험이 색달랐고 도움이 된 것 같다. 다음번에도 이런 만남의 기회가 있다면 꼭 얻고 싶다.

‘통일 미션 릴레이’는 조별로 간단한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팀워크가 중요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통일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통일 뮤직 비디오 찍기’를 하면서는 통일 이라는 것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캠프는 정말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된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22차 / 4조
- 2.학교명/학년 : 담양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최수현
- 4.소감문

사실 나는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만 해 보았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통일 리더 캠프를 통해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첫째 날에 한 것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많았다. 먼저 통일 빗장열기를 통해 통일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나는 이 캠프에서 처음으로 탈북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으로 북한에 대해 오해했던 사실을 다시 알고 새로운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정말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 또 통일송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같은 조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통일이 되기 전 상황을 재현해서 재미있었다.

두 번째 날에는 중등 통일 리더십과 통일 희망 팔찌 만들기를 했다. 통일 리더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는 리더 라는 임무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것은 통일과 연관시킬 수 있었다. 또 통일을 기원하는 팔찌를 직접 실로 엮어 가면서 만들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 이 캠프에서 문창희선생님을 만나고 조 친구들인 아이들을 만나서 재미있고 기뻐다. 캠프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캠프를 할 기회가 온다면 다시 꼭 참여하고 싶다. 정말 뜻깊은 이틀이었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22차 / 4조
- 2.학교명/학년 : 담양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최은빈
- 4.소감문

'통일리더캠프'라는 캠프이름을 듣고 평소 통일에 관심이 있어 통일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과 먼저 나서려고 하는 내 성격으로 제대로 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 이 캠프에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엔 리더와 통일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 궁금했지만 이 캠프에 와서 보니 리더가 되어 나 먼저 행동하고 말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하게 되는 것을 통일에도 연관시킨 것이었다. 나는 평소 통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옆, 주변의 친구들에게까지 알려주거나 전파하려 하지는 않았는데 이 캠프에 오고 나니 앞으로 내가 먼저 행동, 말 등을 실행에 옮겨 친구들에게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통일에 대한 역사와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해 궁금했던 것, 통일이 인문학과 왜 관련 있는지, 관련 있는 점 등 통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된 것 같다.

내 친구들에게도 이 캠프를 추천해 주거나 이 캠프에서 배웠던 것을 설명해 주어 친구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바른 인식, 시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 캠프에 또 와서 재미있고 좋은 체험들을 하고 싶다.

이 캠프를 통해 북한이 북한 아이들에게 남한 아이들에 대해 교육하는 것에 대한 나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북한 아이들도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고 배우고 북한이 남한과 통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분단된 나라가 아닌 한 개의 나라, 완벽한 한민족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1. 지역(차수/조) : 광주, 전남권 / 22차 / 3조
2. 학교명/학년 : 광주동명중학교 / 1학년
3. 성명 : 황다운
4. 소감문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참여한 2016 통일리더캠프가 벌써 끝이다. 처음에 합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믿기지 않았지만 기뻐다. 첫 날 '통일빛장 열기'부터 마지막 '소감문 쓰기'까지 내가 오해하고 있던 북한과 통일의 진실, 그리고 통일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통일빛장 열기' 시간에서 여러 나라 인사말로 친구들과 인사 나누고 나의 이미지 정리를 하며 더 가까워진 느낌이였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나의 이미지, 생각을 써보며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 에서는 그냥 '통일은 좋다' 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구체적으로 한반도가 얼마나의 이익을 보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아마 내 친구들에게도 설명해 주면 친구들도 전보다 더 통일이 마음에 와 닿을 것 이다. 그 다음은 내가 가장 기대했었고 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였다.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설렘. 뭔가 대단하게 다를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저 말투만 살짝 달랐을 뿐이다. 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무섭고 딱딱하던 나라, 북한에 대한 내 편견은 산산조각 났다. 북한 아이들도, 사람들도 그저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였다. 다만 정치적 이념과 종교가 다를 뿐이였다. 어쩐지 더 가까워진 느낌이였다. '통일 미션 릴레이'는 1,2,3 미션도 재밌었지만 리듬 컵타가 제일 재밌이였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맞추는 과정이 모두 좋았다. 리듬 컵타에 빠질 것 같았다. 마지막 진짜 노래에는 잘 맞추지 못했지만 나는 그저 친구들과 협동하고 서로 알려주고 웃으며 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다. 이렇게 즐거운 미션 후에는 대망의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 이였다. 그러나 이름만 딱딱했다.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며, 독일을 롤 모델로 삼아 사람 중심의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사님의 의견이 새로웠다. 마지막 '통일 뮤직비디오' 는 어렵고 힘든 과정도 많았고 결과물이 노래와 맞지 않아 속상했지만 즐거웠다.

다음 날 '통일 리더십'은 내 진로와 통일 후 직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어디서 잘 볼 수 없는 구체적인 강의였다. 기다려 왔던 '통일 희망팔찌 만들기' 활동, 지치기도 지치고 복잡했지만 만들고 나니 뿌듯했다. 다만 내가 아니라 친구에게 주는 거라 아까웠다. 이제 집에 간다. 나는 이제 '외로운 바보' 통일 리더가 되어야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23차 / 1조
- 2.학교명/학년 : 양지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강서정
- 4.소감문

캠프에 오기 전부터 북한과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캠프에 참여하니 통일에 대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내가 직접 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북한에 대해 편견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았다.

또한 탈북을 왜 하게 되었는지, 오면서 힘들었던 점 등등... 주변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라긴 했다. 만약 내가 북한 주민이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결심하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해야 할 것 같다. 북한에서 왔다고 할 때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서 힘들었다고 하였을 때 조금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번에도 이런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23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조치원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송주희
- 4.소감문

일단 이번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탈북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것을 묻고 답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다. 이번 계기로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다는 희망을 가졌고 지금은 절대로  
 한반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우리 한 민족 간에 다투며 같은 말을 쓰면서도  
 다른 땅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큰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이산가족들도 모두 가족을 되찾아  
 평화로운 삶을 보냈으면 좋겠다. 사실 나는 북한에서 남한은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탈북자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한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매일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걸한다는 소릴 듣고 조금 놀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걱정해 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해주셔서 마음이 놓였다. 북한에는 관광지도 많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꼭 가보고 싶고 부산에서부터 연결되는 기차로 세계여행을  
 하며 힐링을 하고 싶은 게 나의 소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통일이 될 때까지 희망을  
 가져야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23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조치원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안수현
- 4.소감문

처음 신청할 때에는 평소 통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통일리더캠프라는 곳에  
 신청해서 가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고 기다렸는데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아 조금 실망하였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 통일리더캠프에 초대? 되었다고 문자가 와 엄마에게 말하고 엄청  
 기뻐하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왔다. 멀리서 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다음에도 하면 또 신청해야지 생각하면서 도착했는데 선생님께서 입구부터 맞아주셔서  
 기뻐고 왠지 나를 위해 있는듯 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계단을  
 올라가 앉았는데 연회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처음 들어왔을 때 앞에 뮤비가  
 나오고 있었는데 뭐지 하고 쳐다봤다. 근데 자막을 보니 내용이 통일에 관련된 것을 알고  
 이런 뮤비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노래를 감상했다. 처음시작하고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인상이 좋으셔서 기대를 하고 우리 모둠 선생님을 소개하시는데 친절하시고  
 예쁘셔서 좋았다. 첫 진행을 하는데 임현택 선생님께서 진행을 재밌게 해주셔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다. 탈북청소년을 만난다고 했을 때 매우 기대했는데 어른들이 나오셔서  
 조금 놀라고 실망했지만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모두 말씀해 주셔서 궁금증이 풀려서 좋았다.  
 통일 미션을 할 때 ㄱ부터 ㅎ까지 통일이나 북한에 관련된 단어를 찾을 때 단어가 있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생각해보니 의외로 많아서 놀랐다. 미션 검사를 받을 때 우리 모둠이 2번째로  
 끝나서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컵타를 할 때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을 할 때에는 인문학이라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더욱 더 알아가는  
 느낌이라 피곤하였지만 끝까지 들어서 뿌듯했다. 밥을 먹는데 학교 급식보다 맛있어서  
 다행이었다. 숙소에 먼저가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였지만 조금씩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썼어요ㅠㅠ)다음에도 기회 되면  
 꼭 뽑아주시고 초대해 주셨으면 한다. 안녕히 계세요~!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23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조치원여자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유수민
- 4.소감문

두 번째로 오게 된 이번 통일리더캠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번 캠프의 장소인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 도착했다. 부푼 마음으로 명찰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학교 친구들과 또 다른 곳에서 만나니 새로웠다. 4년 전 초등학생 때 처음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하며 왜 통일을 해야 하는 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에게 통일이라 단어가 어색했는데 좋은 기회 덕분에 북한 친구들을 이해해보며 우리의 한반도가 다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의 게시판을 보고 여덟 명의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게 됐고 같이 좋은 경험을 해보게 되었다. 캠프 입소식이 시작되고 ‘통일 빗장열기’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세계 각국의 특이한 인사법과 친구들과의 롤링페이퍼를 통해 먼저 다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우게 되었다. 분단된 현실의 우리나라는 1945년 3.8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졌다.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일본군은 우리나라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고 이를 본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라는 명분으로 한반도를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갈라놓은 우리 한반도를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소련을 합치려고 했지만 실패하여 우리 두 개로 분단국가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통일은 오래된 우리나라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통일이 되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 북한의 인적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세계 강대국 8위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이 되면 못 사는 북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통일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짐했다. 이런 통일에 대한 밝은 미래를 모두 꿈꾸는 그 날까지 노력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듣고 북한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릴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 통일 리더 친구들과 단합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또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입은 상처,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후세대를 집단적으로 전승되는 상처로 근현대사에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비극적인 지금의 분단 국가가 되어 있었다. ‘민족=국가’ 성립을 기대했지만, 미소 분할 점령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발버둥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우리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었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통일에 대해 많이  
알리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23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조치원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이고훈
- 4.소감문

평소에 통일과 북한에 대해 관심이 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다 너무 만족스러웠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신 강사분들이 있어서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고

지루하지도 않았다. 빈 일정도 없이 꽉 차있는 활동이어서 너무 잘 배우고 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잘 못 놀다가 갈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도 너무 재미있고  
착하셔서 잘 지낸 것 같다.

북한 사람들과 만남으로 북한은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북한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남한은 도와야 되는 곳이라고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고 북한도 남한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북한도 남한과 통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어서 새로 배운 게 많다는 것을 느꼈다.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활동하라고 중간 중간에 놀아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다. 북한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자라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1박 2일이 너무 금방 가서 나중에 또 한다면  
2박 3일정도 했으면 좋겠다. 친해지자마자 헤어지니까 너무 아쉽고 나중에 꼭 지금  
선생님들이랑 통일리더캠프에 같이 오고 싶다. 너무 좋았고 아쉬운 것 같다.

앞으로 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서로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되고 싶다. 지금도  
이산가족들은 서로 가족을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너무 슬픈 것 같다. 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통일에 대해 더 파악해 통일이 되도록 남한을 이끌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게 해준 김아림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통일리더캠프 선생님 모두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꼭 다시 하고 싶다.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감사합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23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조치원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이한별
- 4.소감문

통일 캠프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다. 북한의 안 좋은 지식을 뒤바꿔게 하는 그런 수업과 그 수업으로 인해 더 깊은 시간과 더 새로운 것을 알았다. 그로 인해 전쟁(6.25)으로 여러 사람들이 희생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여러 가족이 헤어져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이산가족들은 항상 슬퍼한다. 우리의 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꼬리표란 소리보다 통일이 가능한 나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항상 여러 명이 북한이 나쁘다 하지만 이 시간으로 인해 북한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북한도 통일을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협상? 그런 이야기가 있다. 통일을 한다면 언어의 문제가 있지만 통일 리더십 그 시간에 서로 서로가 도우면 될 것 같다. 남북한과 서로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풀어가고 차차 하나씩 바꾸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가 이야기하여 그 차이를 없애고 합칠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북한이 나쁘다고 뭐라 하기보다는 북한을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우리 서로 서로가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를 보살펴주고 차차 그 상처를 없애도 좋은 방법 같다.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방법과 그로 인해 생긴 갈등도 차차 없애도 좋은 것 같다. 우리가 힘을 합쳐 통일하여도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실천이 안 되니 그 실천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통일 캠프의 우리 조를 맡은 김아림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 아림선생님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여러 선생님도 북한의 경계심을 풀어 주셨다. 통일이 된다면 꼭 나는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났다. 빨리 통일이 된다면 좋겠다.

우리의 꿈인 통일이 꼭 될 것이다. 항상 힘들다고,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욕하기보다 북한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고, 갈등을 풀었으면 좋겠다.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은 북한과 함께 라는 걸 알리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23차 / 6조
- 2.학교명/학년 : 구미여자중학교 / 2학년
- 3.성명 : 정선영
- 4.소감문

우리는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통일의 장단점, 북한 생활 등과 같은 뻔한 내용을 배운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통일리더캠프에서는 현실적이고 다른 내용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소원대로 더 다양한 내용을 배운 것 같아서 좋다. 다양한 내용을 배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인문학으로 배우는 통일'이라는 강의 시간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그냥 통일하면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강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고 나의 지식을 한 층 더 쌓아가는 기분이라서 좋았다. 다음번에도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전, 세종, 충남권 / 23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조치원 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한세리
- 4.소감문

이번 캠프를 통해서 느꼈었던 점은 통일 캠프에 뽑혀서 정말 기뻐고 통일과 평소 어느 정도 북한에 관심이 있었는데 탈북자 분들도 만나 뵈고,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고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통해 웃으면서 같은 조에 있는 어색한 친구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되었고, 나의 북한의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나도 평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지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 통일 리더 캠프를 통하여 진로가 조금은 뚜렷해진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편의 시설이나 강사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특히 2조 선생님이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기회가 온다면 또 경험하고 싶고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이니까 어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고 나서 이산가족도 상봉하고 누구에게도 불이익 없이 소수의 입장도 존중하는 그런 멋진 한민족으로 합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아이들이 우리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동정심과 편견을 하루 빨리 버리고 직업도 더 다양해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든 사람 없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통일 캠프 정말 재미있고 마무리는 아쉽지만 재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면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4차 / 3조
- 2.학교명/학년 : 광탄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김지환
- 4.소감문

이번 통일리더캠프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하교하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주변 어른들이나 부모님 등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통일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힘들어 진다고 들어 통일을 굳이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고 통일리더캠프에 왔다.

하지만 많은 강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생각과 많이 달랐다.

나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통일하면 2배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생각이 바뀌었다.

북한에는 마그네사이트나 희토류 등 많은 자원과 질 좋은 자원이 매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합치면 세계 8위인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빨리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북한 청소년과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질문 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내년도 다시 통일리더캠프에 오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4차 / 1조
- 2.학교명/학년 : 탄현중학교 / 3학년
- 3.성명 : 김찬우
- 4.소감문

1박 2일간 통일리더캠프를 마치며

2016년 11월 22일부터 1박 2일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하였다.

캠프 중 많은 강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강사님은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시간에 올라오신 2006년 탈북하신 이명학 선생님과 2008년 탈북 했다고 하신 을지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시는 여자 강사님이다.

이 시간에는 미리 학생들이 쪽지에 적어놓은 질문을 하나, 하나 답해주는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북한학생들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을 묻는 질문이었다.

7:30 등교, 8시 독모시간(김정은 체제 공부)이 있고, 점심을 먹고 농장 씨뿌리기, 추수(노동)에 동원되며, 등교할 때는 집단 등교라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는 소조(동아리) 시간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 동아리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명학 선생님께서 소조 시간에 농구를 했다고 하셨다.

북한은 교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신다고 하셨고, 대학에서도 유니폼이 있다고 하셨다.

북한에는 편의점을 기업이 아닌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셨고, 고난의 행진 이후 나라에서

물건 공급이 안되어 상점 주인들이 알아서 물품을 얻어오며, 미성년자 청소년에게도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판다고 하셨다.

인상 깊었던 강의는 '통일 아는 만큼 보인다' 이다. 윤성종 통일교육원 강사님이 강의해주셨다.

현실, 필요성, 미래 3가지로 나눠서 강의 해주셨다.

현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1945년 러, 미에 의해 분단 됐고, 1950년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분단, 휴전, 현재에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분단된 섬나라와 같다 하셨다. 북한은 주요도시 외 전기 사용이 어렵고 북한 사람은

밥을 잘 못 먹어서 한국 초등학생 평균 신장 149cm보다 작은 142cm라고 하셨다.

또한 우리는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1. 이산가족 문제해결 2. 수출 수입, 비용절감 3. 노동력 증가

4. 배낭여행가능 5. 투자소비촉진을 이유로 드셨다.

통일한국의 모습은 1. 세계 8위(골드만삭스) 2. 남북자본, 기업 + 북한의 광물, 인적자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STAR(스포츠, 관광, 예술, 자원)를 향상시킨다 했다.

나는 이 캠프를 통해 통일이 왜 필요한지 꼭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고 학교에 가서 게임 얘기 보다는 우리나라 통일 얘기를 해야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5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성서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이채원
- 4.소감문

통일에 관련된 캠프를 1박2일로 가게 되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오게 되었는데, 예상 외로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알차게 있었다.

오기 전엔 '통일? 언젠간 되겠지... 내 신경 쓸 일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갖가지 체험활동들을 통해 통일은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명 한명이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많은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좋았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이었다.

실제 탈북민을 본 것은 처음이라서 신기했지만,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답을 해주면서 똑같은 사람이고, 한 나라의 국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탈북민들 중에서 남성분은 2006년에 오셔서 2016년 까지 살고 계셨는데,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지내시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통일리더캠프로 통일에 대한 좋은 인식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혼자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와서 즐지 않고 열심히 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5차 / 1조
- 2.학교명/학년 : 고양 신일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정현수
- 4.소감문

남한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앞을 향해 달리고 있다.

조선업과 반도체 등 과학 분야와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k-pop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되며 외국인 관광객과 근로자도 들어오고 다문화 가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등 경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가 부패

하기 시작하였다.

화폐, 즉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건들의 값도 대폭 상승한다.

민었던 조선업도 후퇴의 길을 걷고 반도체와 핸드폰도 다른 나라들이 점점 따라 붙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중심에는 '통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발전이 안됐다는 것은 자원도 많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희유금속과 희귀광물들이 북한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북한의 광산에서는 1km<sup>2</sup>당 500억 원어치의 가치 있는 광물들이 많다.

북한의 자원, 남한의 기술력 둘을 합친다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백석.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이다.

그는 시기가 좋지 않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그 마음을 '수라'라는 시에 담았다.

'수라'는 '아수라장'안의 '수라'로 '아수라'는 나쁜 귀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목을 '수라'라고 지은 이유는 가족을 생이별 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

이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가족임에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 세계에서 분단됐었던 국가들은 많다.

---

독일과 같이 말이다.

---

하지만, 분단된 채 방치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

생각해보자. 배나 비행기가 아닌 도로나 기차만으로 전 아시아를 구경하고 여행하는 모습.

---

얼마나 멋질까?

---

통일만 된다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

나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금강산을 구경하는 꿈을 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6차 / 1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신천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고준희
- 4.소감문

먼저 나는 작년에도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했다.

하지만 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기억에 오래 남는 캠프가 되었다.

친구들과 같이 와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쉬고 노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특히 난 통일브랜딩, 도미노게임, 평화통일퀴즈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강연들도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정말 새로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우리가 통일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나가야 한다는 주제로 들은 강연들이 정말로 오래 남을 것만 같다.

통일 브랜딩에서 우리 모듬은 '핫 팩' 즉 손난로를 주제 삼아서 ppt를 만들고 발표했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다보니 생각 않게 핫 팩이었는데, 여러 불화 속에서도 나와 같이 ppt를 만들어준 친구, 그리고 같이 발표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나는 친구들과 협력하는 법을 잘 배운 것 같다.

또 도미노 게임을 하면서도 배운 게 많이 있었다.

우린 [남♡북]이란 구호로 도미노를 세웠는데, 여러 시행착오들 때문에 가장 짜증난 부분이 기도 했다. 거의 5번 가량 몇 백 개의 도미노가 무너져도, 끝까지 노력해서 완성해준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다.

중간 중간 끊기긴 했어도 결국 다 넘어간 도미노를 보며, 나는 이를 통해 인내력을 기르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정신력도 기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 퀴즈에서도 배운 바가 많다. 우리가 결국 1등을 차지했는데, 여러 퀴즈들을 풀면서, 내가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 우리와 비슷한 점도 알았다.

STOP 표시를 [섯]이라고 쓴 표지판 등 대개 우리가 모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지만 모두 우리가 알아듣는, 즉 서로 통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나는 북과 남이 떨어져 있더라도 한민족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에 끈끈한 정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삼스레 통일의 중요성도 더 잘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캠프 활동을 통해서 나는 배운 바가 많다.

'통일리더십캠프'를 통해 배운 만큼 난 더 노력할 것이고, 통일을 기다리기보다 찾아 나갈 것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6차 / 12조
- 2.학교명/학년 : 연신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태욱
- 4.소감문

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 나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그냥 별 관심이 없었다.

---

‘굳이 할 필요 있나?’ 혹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생각이었다.

---

하지만 1박 2일 동안 통일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고 나서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

먼저, 여러 가지 통일 강연을 들으면서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

또 여러 가지 미션게임이나 도미노게임에서는 통일에 대해 배우면서도 재미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었다.

---

그리고 구체적인 브랜딩을 통해 나중에 통일 후의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

마지막에 했던 1시간가량의 퀴즈대회는 우리에게 통일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북한에 대해 세세히 들으면서 아, 북한과의 통일이 우리 남한 쪽에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이렇게 수많은 교육들로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나로서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

그리고 교육 말고도, 숙소도 그 정도면 꽤 만족할만 했고, 우리 담당선생님께도 감사했다.

---

만약 나에게 다시 한 번 이 캠프를 권한다면, 나는 다시 한 번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끝으로, 마지막과 캠프에 입소했을 때 했던 통일과 나의 거리처럼 나와 통일의 거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1박2일의 시간이 나에게는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TV에 통일에 관한 기사를 보면 기뻐하고, 항상 어디서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내 한 몸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

---

통일 파이팅!!!

---



---



---



---



---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6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명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박규정
- 4.소감문

처음에는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새롭고 다른 환경이라서 조금은 어색했지만 마음 열기 미션을 통하여 어색함을 없앴다.

마시멜로 쌓기는 우리 2모듬의 협동심이 더욱 돋보였던 미션이었다.

1등이라는 값진 승리도 기뻐다.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게임을 많이 하니깐 더 재미이고, 흥미로웠던 것 같다.

점심, 저녁, 아침, 점심은 우리 학교만큼 맛있진 않았지만 먹을 만했다.

또 저녁식사로 나온 라면사리가 인상 깊고 맛있었다.

통일미션 게임은 조금 힘들었다.

신문 오리는 게 가장 힘들었지만 암호 해독도 힘들었다.

그래도 그 미션을 통해서 10.4 선언도 알게 되고 협동심도 잘 보였던 것 같다.

평화통일 강연에서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였는데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많이,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흥미롭고 뿌듯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집중하고 자세하게 들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조금 나를 돌아보게 된 것 같다.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도 마찬가지로 지루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점으로는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저녁을 먹은 뒤 장시간 프로젝트로 한 통일 도미노게임은 인내심의 한계도 느끼고, 화도 무척 나고 엄청 뿌듯하기도 했다. 손목, 옷깃, 숨, 발걸음, 실수 하나하나로 열심히 만든 도미노가 무너져서 절망적이기도 했다.

그래도 마지막에 완성했을 때 엄청 뿌듯하고 완성된 도미노를 쓰러뜨릴 때 그 짜릿함에 2번 감동했다.

통일도 남북의 조그만 실수로 더 지연되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저녁에 도미노게임을 마치고 먹은 핫도그도 맛있었다. 취침시간에 내가 2층 침대에서 잔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무척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서 지내 밋던 동생도 생각나고 엄마아빠도 조금 그리웠다.

두 번째 날 했던 평화통일 퀴즈 대회는 우리 팀이 조금밖에 맞추지 못해서 아쉬웠고,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고 느꼈다.

통일 버튼 만들기도 재밌었다.

내가 만든 버튼으로 한반도를 완성해서 뿌듯하고 방탄 배지도 만들고 남은 것으로 단색 버튼 만든 것에 매우 기쁘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꼭 오고 싶고, 그때는 이번처럼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강연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싶다.

통일에 가까워지고, 북한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어서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6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명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배연두
- 4.소감문

이 캠프를 통해 통일에 대해 부족했던 나의 지식을 채워갈 수 있었다.

단순히 강연이나 수업이 아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지루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웠고  
모듬 활동으로 책임감,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1박2일 캠프로 알아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고, 다른 학교 친구와도 새롭게 만날 수 있어 새로웠다.

처음에 마시멜로로 게임을 할 때, 등수를 매기고 상품도 주니까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의욕이 없었는데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통일 미션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지고 협동심을 기르고, 통일 브랜딩을 통해 창의력도  
기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캠프였다고 느낀다.

도미노 게임을 할 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서 처음엔 절대로 완성 따윈 하지 못할 거고,  
모듬끼리 잇는 것은 더더욱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힘을 합쳐 완성하고 무너져도 다시  
세워서 결국 모듬끼리 합친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통일OX퀴즈, 대회를 통해 즐거움도 느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통일'이란 것을 내 머릿속에  
정확히 집어넣을 수 있었다.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것처럼 강의를 들었다면 오늘이 지나 까먹었을 텐데, 1박 2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래 기억할 수 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같은 '통일'이 캠프를 통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던 시간이 됐다.

나에게 이 캠프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캠프가 아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캠프였고,  
평소 통일에 대해 잘 몰랐던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와 추억이 됐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6차 / 12조
- 2.학교명/학년 : 삼정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이다연
- 4.소감문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즐겁고 좋았다.

‘교육’보다는 약간 놀며 배우는 캠프 같아서 정말 재미있었다.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시간이 짧은 것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조원들과의 협력으로 우리손으로 여러 사업, 그런 계획도 쓸 수 있고 발표하고 그런 과정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3학년이 돌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았다.

우리가 묵었던 이 숙소는 내가 예전에 유치원을 나왔던 곳이라서 정말 추억 들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언젠가는 꼭 다시 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유익한 경험이었다.

특히 통일퀴즈가 많이 인상적이었는데 평소 ‘북한’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꽤 많아서 더 재미있었던 것만 같다.

하지만 문제가 적은 것이 아쉬웠고 개인별로 하는 것이 뭔가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팀별로 한다고 해도 칠판에 써서 한다던가 해서 좀 너무 기회에 대한 긴장감이나 부담감을 덜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더 아쉬웠다.

그래도 활기차고 흥미진진해서 좋았다.

그리고 도미노는 조금 그랬던 게 물론 협력심이나 서로의 배려가 느껴져서 좋았다고 해도 한 번 두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와 함께 나의 멘탈이 와장창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좀 힘들었다. 아니면 차라리 도미노 면적을 두 칸 말고 한 칸으로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 칸이면 그래도 다시 세우기 좋으니까 말이다.

점심시간은 차라리 한번은 1조부터 다음은 끝 조, 그 다음은 중간 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돌려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도 강의 진행하는 쌤이나 다른 보조교사 쌤들이 진짜 재밌게 잘 이끌어주셔서 더 좋았다.

최근 들은 캠프나 강의 중 제일 재밌고 인상 깊은 캠프였던 것 같다. 언젠가는 꼭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6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서울 명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이희재
- 4.소감문

처음에 나에게 통일이란 너무 막연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업시간에 잠깐 배운 것들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하지만 우연히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 이 통일리더캠프로 인해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마음 열기 게임에서는 아직 어색한 친구들과 1박2일 동안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했었다.

그래도 같이 의견을 모아 마시멜로 챌린지도 하고 1등 상품도 얻어서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통일 미션 게임에서는 미션을 하나씩 완수해가면서 10.4선언에 대해서도 알았고, 평화통일 강연과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지식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통일에서 소개된 <장마>라는 책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읽어 보고 싶다.

통일브랜딩은 정말 특별한 체험이었던 것 같았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박한 경험이었다.

발표를 통해서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기발한 생각도 알게 되어 재미있고 유익했던 것 같다.

통일 도미노 게임은 정말 힘들었다. 자칫하면 도미노가 와르르 쏟아지고 넘어져서 짜증이 많이 났지만 마지막에 도미노를 다 완성했을 때는 그 어떤 때 보다 기뻐다.

이처럼 통일이 되는 과정도 도미노를 세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겠지만 마지막에 도미노를 완성한 것처럼 통일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평화 통일 퀴즈 대회에서는 내가 아직 모르고 있던 북한의 시설, 상식 등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었고, 통일 버튼으로 만든 한반도의 모습은 정말 예뻐다.

이렇게 1박2일 동안 여러 가지의 체험들을 통해서 나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이고 더

정확히 바꾸게 되었고, 이산가족 같이 통일이 되지 않아 생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더욱 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을 통해 나, 친구들, 국가가 한걸음씩 통일에 더 가까워 졌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7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서울성산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김은수
- 4.소감문

이번 1박 2일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하여 통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예전에는 북한이 무조건 가난하고 힘든 나라인줄로만 알았는데 북한의 수도 평양의 모습을 배우게 되니 생각보다 잘 사는 나라이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기술력도 좋고, 자본도 충분한데 자원과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비해 북한은 우리보다 기술력과 자본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충분한 것을 통일이 되어 합쳐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멋지고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분 단이 되어 거의 섬 수준으로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육로를 통해 세계에서도 빛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많은 캠프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7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매곡여자중학교 / 3학년
- 3.성명 : 변지인
- 4.소감문

중학교에서의 시험도 내신도 끝난 후 가게 된 통일캐프라 그런지 더 들뜬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기 전 역사 선생님께서 전에 가보니 숙소도 좋고 밥도 맛있고 매점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도착하고 매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엔 우울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같다. 처음에 특강을 듣고 점심을 먹은 다음 통일로 기차여행이라는 주제로 북한 여러 곳곳을 구경하는 여행코스를 하나하나 소개 시켜 주셨다. 북한은 다른 외국보다 생소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통일이면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것 같다. 그 다음 통일올레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6가지의 활동을 조와 함께 하면서 스탬프를 모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중 남북한 낱말 맞추기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같은 낱말이라도 남한과 북한이 다른 단어가 많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고 다양하다고는 생각을 못해서 인지 비슷한 뜻인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달라 당황하기도 한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통일 퀴즈왕이라는 프로그램과 남북 청소년의 하루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북한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고 북한의 여러 문화가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그 다음 저녁도 먹고 통일 노래콘서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노래를 개사하고 부르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통일에 관련된 말로 개사하고 다른 팀이 개사한 노래를 듣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다. 이렇게 첫째 날이 끝나고 둘째 날에는 특강을 마지막으로 듣고 신문을 만들며 통일과 북한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다졌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7차 / 3조
- 2.학교명/학년 : 명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손유나
- 4.소감문

얼마 전에 학교 도덕 시간에 통일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때 나는 자료 조사를 맡아서 컴퓨터로 '통일' 이라는 것을 찾아봤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열심히 발표를 했지만,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과제를 오직 '수행평가'로만 생각하기만 했지 진심으로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수행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네이버에서 정보를 복사해 프린트 한 후 정리하는 한 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인지 조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지식은 거의 없다. 이번 통일 캠프에 참가할 때만 해도 '통일? 그냥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는 것 아니야?' 하며 재미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학원에 빠지고 학교도 안가며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한다는 사실이 좋을 뿐이었다. 그리고 보니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통일 캠프에 참여해보니, 생각 보다 괜찮았다. 나는 통일에 대한 강의만 할 줄 알았는데, 통일노래 콘서트나 통일 올레길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층 더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었다. '통일'이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해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로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몇 십년간 얼굴도 잘 못 본 우리는 아직은 통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두 나라 모두가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가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한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나도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장려해주기를 바란다. 이틀 동안 저희들에게 통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지도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7차 / 2조
- 2.학교명/학년 : 명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신을
- 4.소감문

평소에는 학교에서 도덕시간에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서 통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생각은 들지 않았었는데 통일교육원에서 주최하는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에게 통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하시는 설명만 듣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재미도 없고 큰 감동이나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강의도 듣고, 강의를 들은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조를 만들어서 게임도 하고 조별 활동을 하여 통일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 같다. 또한, OX퀴즈를 통해서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북한에 대해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박 2일 동안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많은 활동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것을 배워 좋았고, 많은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통일 노래 콘서트'였던 것 같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래를 골라서 통일에 맞게 개사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여서 의미 있었고, 그에 맞는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협동'하는 방법 또한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이 아닌 다른 반, 다른 학교의 생소한 친구들과 같은 조를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조원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배운 것 같다. 한마디로 '통일리더캠프'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활동을 하여 통일에 대해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협동까지 배우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7차 / 2조
- 2.학교명/학년 : 명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정민지
- 4.소감문

평소에도 학교에서 통일 관련 교육을 하고 도덕과 과목에서 어릴 때 부터 항상 배워왔던 것이지만, 1박 2일 친구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배우니 감회가 새로웠다.

통일이라고만 하면, 정말 단순한 통일의 이점, 단점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번캠프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서 조금 더 통일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있었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 자원의 무한한?(지금보다 많은?) 개발 노동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 이산 트라우마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또, 통일교육이라 하면은 평소에 딱딱하고 교실에 앉아 듣는 게 다였는데 이번 캠프에서는 나가서 제기도 차보고, 줄넘기도 뛰어보고 조금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통일교육의 기회였던 것 같다.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통일관련 가사로 노래 바꾸기 같은걸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친구들과 짧은 시간 안에 춤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바꾸었던 가사로 가사상을 받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다. 통일이 쉽지 않은 만큼, 남과 북이 서로 노력해야 하는 만큼 cheer up이라는 힘을 내라는 말을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해주고 싶어서 cheer up 이라는 노래를 개사해 본 것이었다. 1박2일의 의미 있는 캠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단 하나였다. 제주도 4.3 사건당시 '6.25 전쟁은 남한도 북한의 잘못도 아니라고, 전쟁의 잘못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여 얼른 통일했으면 좋겠다. 한 2년 후에는 북한의 친구와 같은 금강산 여행도 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지나는 열차를 이용해 세계여행도 다녀왔음 좋겠다.

학교에서의 1박 2일 보다 의미 있는 1박 2일이 되었던 것 같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수도권 / 27차 / 5조
- 2.학교명/학년 : 서울명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정서운
- 4.소감문

그전에는 주변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통일은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통일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체 말이다. 그런데 통일캠프라는 특이한 캠프활동을 통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통일을 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또 계속 지루하게 강의나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통일올레길'처럼 몸을 움직여 게임 활동도 하고 '통일의 후예', '통일노래콘서트'등과 같은 팀 협력 활동도 해서 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통일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캠프를 통해 통일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직접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게 느꼈다. 또 통일이 된다면 내가 살고 나라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다. 요즘 자유학기제 중이라 미래의 내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총일이 된다면 직업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나에게 잘 맞는 직업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되었다.

이번 캠프는 여러 방면으로 좋았지만 특히 처음 보는 친구들과 통일에 대한 주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재미있었고 신기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기회만 된다면 또 오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캠프였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28차 / 3조
- 2.학교명/학년 : 대구 성곡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강지수
- 4.소감문

2016년 11월 6일~11월 7일 1박 2일 간 통일리더캠프에 참가했다. 통일캠프를 하기 전, 나는 북한의 핵실험과 공산주의라는 이유 등으로 서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여 통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많이 들며, 통일을 하면 국토의 면적이 넓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등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한다. 미래를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로 기차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기보다 싸고, 배보다 빠른 기차로 유럽까지 여행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한다면 중국, 러시아를 시작해 유럽까지 여러 물건을 수입,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도 생길 것이다. 나는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게 처음이었는데 말투도 다르고 살아 온 생활방식도 다르지만 결국 공동언어인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줄기의 빛을 찾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지만 남한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따돌림을 당할까봐 북한출신인 것을 밝히길 꺼려한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온다면 그 친구를 차별, 무시하지 않고 잘 챙겨줄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 떨어져 지낸 시간이 있는 만큼 서로 고유한 문화 등이 있고 서로 차이점이 있지만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존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3조가 부른 '이 분단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처럼 얼른 통일이 되어 남과 북 모두 불안감은 없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28차 / 6조
- 2.학교명/학년 : 대구 성곡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권민주
- 4.소감문

이 캠프는 학교에서 학생회장, 부회장을 상대로 카는 캠프이고, 솔직히 이 캠프가 무슨 캠프인지도 잘 모르고 학교 출석이 되는 결석이라는 말에 얼른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 우리 6조를 보았을 때 평소 친했던 친구들 이랑도 다 떨어지고 남자 친구들도 별로여서 많이 절망 했었던 기억이 난다.

1일차에서는 '탈북강사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북한의 그 특유의 억양뿐만 아니라 강사님의 강의가 귀에 쏙쏙 박혀서 눈을 감을만한 지루할 겨를이 없었다.

우리가 평소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대흥단 감자나 북한의 대중가요

'반갑습니다'를 아코디언을 연주해가면서 노래를 부르던 강사 선생님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통일 올레길에서는 북한의 문화어를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조 친구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통일송 콘서트에서는 우리가 아는 노래를 통일과 관련된 가사로 개사해서 불러보았는데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가사를 개사하는데 많이 힘썼다.

뜨거웠던 통일송 콘서트를 마치고, 기다리던 숙소에 들어갔다.

숙소를 같이 쓴 친구들도 같은 학교지만 많이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원래 친해지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라 친해져서 좋았다.

2일차 첫 시작을 통일 연극으로 문을 열었다. 연극을 하시는 연기자 분들이 유쾌하게

해주셔서 연극은 지루하겠지라고 하며 보았던 연극인데 너무 재미있었다. 통일로

기차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강의가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북한에 있는 관광지를 더 많이 알아보고 남한의 몰랐던 관광지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았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은 두말할 것 없이 좋았고, 6조에 김민주 선생님도 잘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얼떨결에 온 캠프였지만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다음에 이런 캠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신청해서 통일에 대해 더 많이 배워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28차 / 6조
- 2.학교명/학년 : 화랑중학교 /1학년
- 3.성명 : 김슬기
- 4.소감문

나는 평소에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다. 자꾸 졸게 되는 도덕 시간도 남북통일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게 된다. 이렇듯 통일에 흥미가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나에게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통일리더캠프' 통일 교육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경주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나로서는 이런 멋진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통일교육은 학교나 외부에서도 많이 받아 보았지만 철없던 그 시절엔 그저 지루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기회에 통일에 대한 지식을 쌓고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계획표를 보니 흥미가 사라졌다. 다 지루해 보이는 내용들 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내 철 없는 생각들과 달리 프로그램들을 한 시도 눈을 떼지 못 할 만큼 개성 넘치고 화려 했다.

첫 번째로는 입소식과 안전교육을 했다. 처음 만났을 땐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 붙였는데 이제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친해졌다. 두 번째로 한 통일 마음의 문열기 활동에서는 통일에 대해 우리의 의지들이 길러 주었다. 이 외에도 첫째 날에는 눈높이 통일특강, 통일 올레길, 통일의 후예, 탈북강사특강, 통일송, 콘서트 등 많은 재밌는 활동들을 했다. 식사도 진짜 맛있었고 강사 분들과 지도 교사 분들도 재미있고 친절하셨다.

저녁엔 했던 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잠을 청했다.

바빴던 첫날이 지나고 드디어 집에 가게 되는 둘째 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떴을 땐 이미 햇살이 내 얼굴을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다. 밥을 먹고 통일 연극을 감상했다.

지루할 것이라는 내예상과 달리 연극은 너무 재미있었다. 통일로 기차여행활동은 조끼리 함께 북한 어린이들에게 남한에 대해 소개를 하는 활동으로 전지에 남한의 관광지 및 먹거리를 적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활동인 소감문 적기가 남았다. 길거만 같던 1박 2일도 금세 끝나고 이제 몇 분후면 집에 간다. 그 동안 활동들이 다 너무 재미있었고 친절하셨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28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장림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김연우
- 4.소감문

처음엔 그다지 통일에 많은 관심이 없었고 알아봐야 어디서 쓰나 생각하였다.

부산에서 한 시간 넘게 와서 아는 친구도 없었지만 좋은 조를 만나서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뇌구조를 그리면서 상세히 알게 되었고, 중간 다양한 특강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군사적 비용만 10조인데 통일이 되면 이 돈으로 전국 초, 중, 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한 사실에 많이 놀랐다. 그리고 내가 영상을 보면서 난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거나 사촌을 잃은 적이 없어서 이산가족의 슬픔을 모르지만 영상을 보면서 지금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산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였다. 60년 70년 동안 남, 북으로 헤어지고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고 해방된 사실에 기뻐으나 한 민족인 남, 북이 역사상 가장 최악인 6.25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새삼 느꼈다. 또, 탈북강사 유현지 강사님을 통해 북한이 우리를 못살고 엄청 안 좋은 나라라고 설명한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를 낼 만큼 ‘남조선 남자아이 10명, 여자아이 25명을 합치면 몇 명일까?’ 이런 문제.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탈북을 막는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세뇌시키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김정일이 북한에서는 신처럼 여겨지고, 아닌 것을 알지만 계속 사람들에게 김정은과 안아보면 회사, 대학 우선수위로 올라가고 밖에서 남한 노래를 부르고 하면 바로 감옥에 갇혀서, 솟갓을 하면 삭발 등 세뇌시키니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 같다. 웃긴 농담이지만 북한에서는 칭찬이 김정은, 김정일 닮았다는 게 칭찬이라는 것을 듣고 참 북한에 안 태어난 것을 부모님께 감사드려야겠다고 새삼 느꼈다. 시골에는 물이 안 나와서 우리 나이 또래에 물을 떠오고 노동을 하고, 밤이 되면 나라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다는 것이 좀 그랬다. 탈북도 날이 갈수록 늘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통과할 때 경비통과 위해 돈이 강사 선생님이 나올 때는 8~9만원인데 지금은 1500만원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쓰러웠고 사각지대를 통해 나오다가 인간 밧에 걸려서 발목이 잘린 것이 너무 잔인하였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감동적이었던 것도 있었다. 468명을 전부 “우리나라 민족이다. 북한에 다시 가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다 데려가겠다.”

라는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탈북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해서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탈북자라는 사실만으로 적응을 못하는 게 너무 슬펐다.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아쉬웠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28차 / 1조
- 2.학교명/학년 : 대구 학남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정희진
- 4.소감문

처음 이속에 와서 너무 긴장되고 떨렸는데, 1조에 앉아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하여 한 걸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처음에는 통일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나, 그래도 필요한 것(국가 경쟁력을 위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통일이 군사비부담을 줄여 우리의 복지수준을 늘리고, 위험도도 더욱 낮출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과 달리 분단 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며 국민 건강에도 악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사드배치나 핵 실험 등을 인해) 알게 되었다.

또한, 친절하고 아름다운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 통일이 되면 인구수와 노동력이 증가하여 어쩌면 잘만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ex: 북한은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은 확충 될 것이라고 저출산 고령화에서의 고령 인구가 많은 것도 북한주민들이 우리인구와 합쳐져 통일한국이 된다면 해결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나는 약간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한민족이며 북한에서도 고층 빌딩이 있고, 문화유적이 있으며 관광투어 (외국인을 위한) 가 존재한다는 것을 , 그들도 성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평소에 있었던 작지만 북한에서 오신 강사선생님께서 북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들이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 자신을 숨긴다는 것과 편견에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선생님께서 편견에 '인내와 끝없는 무한한 기다림'으로 대하고 있다고 하시는 점에서 과거의 나 자신이 너무나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나는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이탈주민을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차별하거나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북한에 있는 음식에 대하여 소개받고 그 곳에도 인조고기, 두부 등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북한 음식과 우리 음식의 차이점은 간이 북한음식이 약하다는 것을 그것 말고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웃픈 내용은 평양냉면과 우리남한에서 파는 것은 그곳에서 파는 것과 맛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었는데 어쩐지 맛이 우리거랑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이 들었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약간 사기당한 느낌에 웃픈 기분이 들었다. 통일 평소 우리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지나 런던으로 갈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선생님의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다. 그래서 더욱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죽기 전에는 기차타고 서울에서 개성을 지나 런던의 설록홈즈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버킷 리스트에 추가해서 꼭 적어 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만약 내가 나의 할머니, 내 엄마, 내 동생과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면, 아니 생사조차도 알지 못하게 된다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적게나마 공감하게 되었고,

잊지 못할 슬픔과 잊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너무 아픔을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과 슬픔 후회와 미안함을 생각하며 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평소에 공부했던 과정에서 궁금했던 2가지 질문 (통일되면 생길 수 있는 직업, 통일되면 공부해야 하는 것) 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엇간 체조에 대하여 강조하셨는데 퀴즈에 안내셔서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28차 / 3조
- 2.학교명/학년 : 대구 성곡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최예인
- 4.소감문

처음 학교에서 '통일리더캠프'를 보내준다고 했을 때 정말 궁금한 기분이었다. 도대체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할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등 대구에서 경주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매우 설레고 신나는 기분이었다. 호텔에 도착해서 연회장에 3조가 적혀있는 자리에 앉으니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다. 나 포함해서 아는 애가 3명뿐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이름도, 얼굴도, 학교도 잘 몰랐다.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이 친구들과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통일 마음의 문열기'를 시작하고 우린 서로에 대해 모르지만 같이 강의를 들었고 아주 커다란 전지에 서로의 첫인상을 적으며 친해졌다. 그리고 나서 통일 올레길에서 스탬프를 찍기 위해서 같이 뛰며 협동심을 길렀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는 통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우리들의 노력에 대해 느낀 것이 같다. 협동심과 통일이 어건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해 협동심을 길러야 했고, 내가 친구들을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간 것처럼 남과 북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 '통일의 후예'시간에 내 꿈인 '의사'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내 꿈을 더 이루기 위해 노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설레고 기억에 남았던 시간이 '탈북강사 특강'시간이었다. 어떤 강사분이 오실까? 우리와 많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특강시간 때는 정말 우리가 모두 한 민족이이고 이런 궁금함은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는 이산가족이셨다. 북에 두고 온 오빠가 있었다고 하셨다. 결국 할머니는 죽기 전 오빠를 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의 소원, 할머니의 소원, 이산가족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통일캠프에 자주 참여해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대구, 경북권 / 28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왕선중학교 / 1학년
- 3.성명 : 황예원
- 4.소감문

통일. 그저 학교에서 '우리는 한민족이었으니 통일을 해야한다'라고 배웠기에 통일은 막연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만 알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된 '통일리더캠프'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명찰을 받고 강당에 우리 조를 찾아가서 모두 설레는 표정으로 부푼 마음을 안은 채 지리에 앉아 있었다. 와서 처음으로 한 '통일 마음의 문 열기'에서는 새로운 친구들과 서로를 소개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도 학교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통일 올레길'은 야외활동을 하였는데 많은 활동을 하며 더 친해지기도 했고 낱말 맞추기는 정말 재밌었다. 가락지빵 같은 간단한 단어 밖에 몰랐는데 그 시간을 통해 문화어를 더 잘 알 수 있었다. 가장 재밌고 재밌었던 시간은 단연 통일강사특강이었다. 유현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재밌었다. 원래 '이제 만나러 갑니다'란 프로그램을 자주 보아 선생님을 알았는데 직접 바로 앞에서 강의를 들으니 더 집중됐다. 선생님은 우리가 주로 궁금해 하는 북한 문화나 김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또 선생님께서 탈북하실 때의 이야기는 정말 무서웠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남한에 태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단 것 만으로도 감사했다. 첫날 마지막 프로그램인 통일송 콘서트는 가요를 개사해 공연을 각 조마다 했는데 우리 조는 트와이스의 TT를 했다. 비록 상을 받진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멋진 무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다. 둘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인 '통일로 기차여행'은 북한의 도시들과 관광 명소를 알 수 있어 좋았다. 평양에 지하철이 있단 것이 너무나 놀라웠다. 평양의 모습은 정말 멋지고 대구보다 좋은 것 같았다. 꼭 통일이 되어 평양에 가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통일리더캠프를 하며 너무 재밌었고 통일에 한 발짝 나아간 시간 같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시 꼭 오고 싶다. 내가 통일리더가 되어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대전 탄방중학교 / 1학년
- 3.성명 : 강성우
- 4.소감문

이번 캠프 프로그램은 매우 참신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캠프에서는 가지 못했던 제 3땅굴을 가보았고, 도라 전망대도 가보았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임진각 역사관광지는 모두 한 번 이상 가보았던 곳이다. 제 3땅굴은 처음이었다. 솔직히 땅굴은 말 그대로 땅 속에 길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했다. 아파트 20층 높이만큼 내려가 땅굴을 보았다. 하지만 그 곳 군인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땅굴로 인해 내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북한군은 비가 올 때를 대비해 남한 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지게 땅을 파고 다행히도 발견되었다. 비록 걷는 것이 힘들었을지라도 생생한 체험이 인상적인 시간이었다. 도라 전망대는 남방 한계선 바로 앞에 있었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보다 북한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이곳에서도 군인의 설명을 들었다. 밖에 있는 망원경으로 태극기를 볼 수 있었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 제 3땅굴, 도라 전망대, 임진각 역사 관광지는 모두 북한과 매우 근접하다. 제 3땅굴에 갔을 때에는 북한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는 것을 매우 잘 들을 수 있었다. 강의를 듣고 생각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며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전망대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강을 보며 '저 강만 건너면 북한 이라는 거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제 3땅굴 제일 끝에서는 여기서 계속 이어서 땅을 파면 북한으로 가게 되겠지 하는 즐거운 생각도 해보았다. 견학을 하며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생각만 해도 즐겁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입경을 했었다. 그 때 속으로 엄청 좋아했었다. 흥분도 되고 군인이 버스에 들어와 인원 점검을 하고 들어갔는데 영화 JSA에서 여자 주인공이 맨 처음 등장하는 그 곳이었다. 북한이랑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즐거웠다. 통일 가요제도 물론 즐거웠다. 트와이스의 cheer up을 개사했는데 개사한 가사가 마음에 든다. 춤추느라 힘들었지만 무대에 서고 내려오니 별 것도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다른 모듬의 발표도 엄청 흥미로웠다. 다들 개사를 참 잘했다.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춤 연습을 해놓아야 하는 것을 느꼈다. 2일차 윤아영 강사님의 강의를 정말 인상 깊다. 강의에 소질이 있으신 듯하다. 지금까지 통일에 관한 강의는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분의 강의에서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다루어서 좋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캠프의 강의 내용은 새로웠다. 마음에 든다. 결론적으로 매우 마음에 드는 캠프였다는 점.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9조
- 2.학교명/학년 : 김해가야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민서
- 4.소감문

하반기에 실시한 지역 캠프 때는 견학하는 활동이 없이 강의와 몇 가지 게임만 했었는데 이번 마무리 캠프 때는 여러 장소를 견학해서 북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지역과 성격을 가진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이번에 통일 전망대를 가보면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가까이 있는지 몰랐다. 정말 넘어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아직 통일을 못하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매우 슬펐고 안타까웠다. 망원경으로 보니깐 북한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매우 잘 보였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있었을 때 계속 같은 민족인데 떨어져서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군인 아저씨들이 설명해주신 38도선 근처는 정말 삼엄하였다. 저번에 TV에 떠들석했던 지뢰사건이 바로 도라 전망대 근처였던 것이다. 북한이 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지뢰를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북한의 모습마저도 이해하고 다가올 때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 같다. 만약 북한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오랜 꿈이었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평소 큰 문제로 삼고 있던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미안해졌다.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통일이 빨리 빨리 잘 해결됐었다면 북한의 아이들은 웃으면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을 텐데

지금 아직 성인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위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항상 마음속에 이산가족의 아픔과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뿐인 거 같다. 이번 캠프에 정말 고맙다. 다시 한 번 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서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용원중학교 / 2학년
- 3.성명 : 김영웅
- 4.소감문

학기 초 부산에서 실시했던 통일 리더 캠프에서와 달리 이번 마무리 캠프는 강의 위주보다는 체험위주여서 더욱 좋았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10시까지 서울역에서 집결하여 경기도 파주로 향하여 먼저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갔다. 앞쪽 망원경 쪽에는 북한이 보였고 뒤쪽에는 높게 달린 태극기가 있었는데 정말 멋있었고 북한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조금 어색했다. 전망대 견학을 끝내고 남북출입사무소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예전에 개성공단으로 갈 때 이용했었지만 현재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텅 비고 조용했다. 그리고 남, 북 간을 오고 갈 때 출국, 입국이 아닌 출경, 입경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북한과의 친밀감을 조금 느꼈다. 점심을 먹고 제3땅굴을 견학하였다. 처음에 땅굴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 건지 상상이 가질 않았지만 북한군이 예전에 남침을 위해 파다가 시추를 통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조금 무섭기도 했다. 제3땅굴에서 견학을 마치고 도라 전망대를 갔는데 전망대이다 보니 가는 길이 구불구불했다. 그때 인솔교사님이 계속 도라(돌아)서 가서 도라전망대라고 하셔서 더욱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다. 도라전망대를 가니 북한의 국기가 높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대북 방송을 하는 장치도 직접 봐서 매우 신기했고 정말 남한과 북한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견학인 임진각 역사 관광지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진짜 전쟁 당시에 총탄과 폭격을 맞은 기차 등을 보면서 실제 전쟁의 느낌과 아직 휴전 관계라는 것을 느꼈다. 견학을 모두 마치고 경기도 연천으로 향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에 도착했다. 도착하고 바로 저녁을 먹은 뒤 통일 가요제를 했는데 초등학교생들까지 노래를 개사하고 안무도 정해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신기했고 통일이 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탈북 강사님인 '윤아영'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북한의 경제나 교육, 국민들의 상황까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이인정'교수님의 통일의 장점과 해야 하는 이유 등의 강의를 듣고 여태까지 느낀 북한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세대가 통일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38차 / 1조
- 2.학교명/학년 : 익산 어양초등학교 / 6학년
- 3.성명 : 김하겸
- 4.소감문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통일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하루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친구들에게 통일의 장점과 통일한국의 미래, 통일의 이유를 알려주며 나도 모르게 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캠프를 통하여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강사님들이 재밌게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북한사람들의 생활 모습, 교육방식, 북한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저 또한 통일에 달라졌습니다. “통일은 무조건 돼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협동심 강한 민족이니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하며 우리의 전통을 지켜가며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북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못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노역에 끌려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보단 동경하고 더 좋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통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북한과 멀리 떨어진 전라북도에 살아서 북한은 먼 곳이고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가서 볼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전망대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니 정말 북한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힘들게 찾아서 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정동 마을에서 펄럭이는 인공기를 보니 완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북한군이 판 제3땅굴을 가보았는데 우리가 발굴 안했다면 3만 명의 인민군이 쳐들어 올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니 오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굴을 발견한 스토리도 신기하였습니다. 시추공이 땅에 관을 꽂아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발견한 제 3땅굴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북한도 보고 실제로 인공기도 보고 북한 사람도 보고 또 우리 민족의 상처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저에게 많은 추억과 생각을 남겨주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통일하면 당장은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할지 몰라도 미래에는 우리가 더 잘 살고, 북한의 문화유산과 기차타고 세계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외교관인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파이팅!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2조
- 2.학교명/학년 : 창천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박윤슬
- 4.소감문

1차 캠프 때 만해도 내가 뽑힐 줄은 몰랐다. 그냥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참가했었을 뿐인데 상장이 오고 마무리 캠프 참가라니..! 나는 정말 꿈만 같았다. 그래서 마무리 캠프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캠프 당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해 육지로 날아갔다. 통일 전망대에 도착해서 모두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때까지만 해도 힘껏 기대했던 내 마음이 폭 죽었을 때 북한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살아났다. 처음 보는 북한의 모습에 내 마음은 설레고도 특별한 기분이었다. 제 3땅굴을 견학할 때도 같은 기분이었다. 멀고 무서운 곳으로만 느껴졌던 북한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가까이에 가 보니 정말 신기하고 또 신기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에 감히 가보지도 못했던 곳들을 서슴없이 가보고 느끼고 경험하니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이 확 와 닿았다. 특히 도라 전망대에 갔을 때 북한에 거의 다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나의 핸드폰도 그렇게 느꼈는지 그곳을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선 약간의 씁쓸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렇게 핸드폰이, 국가가, 국민이 모두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씁쓸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고 하나의 국민이고 하나의 민족인데 이제는 모두가 다른 국가, 다른 국민, 다른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임진각 역사 관광지를 견학할 때는 슬픈 마음이 들었다. 자유의 다리를 보니 전쟁의 아픔을, 경의선 기차에 힘없이 멈춘 모습을 보고 분단의 슬픔을 직접 느꼈다. 이렇게 견학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을 했다면 통일 가요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였다. 우리 조는 약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대체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음날은 북한에 대해 특강을 듣는 거였다. “탈북강사와 대화”에서 북한의 생활과 사상, 실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1차 캠프 때는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번 캠프에선 좀 더 자세히 배워서 좋았다. 탈북 강사님께서 들려주신 실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내 눈 앞에 진짜 북한이 있는 것 같았다. 궁금한 점을 충분히 물어보고 같이 인증 샷도 찍었다. “통일 한국의

꿈“에서는 통일 한국의 좋은 점을 배웠다. 두 번째 날에서 이런 특강을 들으니 정말 통일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히 느껴졌다. 북에 대한 편견도 깨진 시간이었고, 통일의 중요성도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 캠프가 열리면 또 참가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옥현중학교 / 3학년
- 3.성명 : 서지민
- 4.소감문

전국적으로 친구들이 모여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라 많은 기대를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로 다른 역량, 성격,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통일을 바라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부분이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엔 서로 서먹서먹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서 우리 동포들의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차오르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며 친구들과도 점차 친해졌다.

여태껏 통일을 준비하자 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막상 '통일이 된다면?'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내 꿈에 대한 열정을 다시 태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2일차 강연 중 '탈북자와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북한 주민들의 억압받는 현실과 제한된 자유에 대한 실태를 들으며 'UN 통일, 북한주민인권센터' 라는 곳에서 내가 한 역할을 맡기 위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길을 통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을 해주신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죄로...'라는 대목에서 가슴이 아팠다. 최소한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지만 궁극적 목표를, 원초적 목표를 이루어 나가며 역사를 써내려가길 바라며 그 속에서 나도 한 획을 긋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10대들이 오직 그들만의 세상이 아닌 더 큰 세상,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통일리더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강연자분, 강사님들, 조 담당 선생님들, 통일부의 많은 분들께도 감사했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7조
- 2.학교명/학년 : 의정부 동암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신영인
- 4.소감문

우선 내가 통일 캠프에 간 후에 마무리 캠프의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했다. 너무 기뻐다. 전에 통일 캠프는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다음 캠프 역시 너무나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일차에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역사관광지, 그리고 통일가요제가 진행되었다. 나는 임진각 역사 관광지와 통일 가요제는 불가피 개인사정으로 참가를 못했지만 나머지에 대한 나의 소감을 말하고 싶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는 정말 높았다! 서울 그 한복판에 그런 곳이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다. 한국에서 민간인 출입 가능 구역 중 가장 북한과 가까운 곳 이였기에 나는 더 두근거렸던 것 같다. 망원경으로 봤을 때, 설명을 들었을 때 내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운 위치에 북한이 있어서 놀랐고 우리가 정말 멀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다. 그리고 도라 전망대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관측을 했다. 그 후 옆에 있는 전시회 같은 곳을 갔는데 지기에 적혀있는 많은 북한과 남한의 싸움들이 적혀 있었는데 마음이 아팠다. 거기서 질문 한 가지가 들었다. 우린 무엇을 위해 우는가? 다시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판문점을 관한 전시도 보았는데 군인들이 한 발짝씩 뒤로 하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다름과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에 마음이 시렸고 냉전과 화해가 공존 하는 것에도 또 한 번 더 통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라 전망대 전에 땅굴에도 갔는데 제3땅굴로 북한이 옛날에 남한에 들어오려 했을 때 파던 동굴 같은 곳인데 정말 깊고 경사도 높았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옛날과 지금이 함께 있는 공기를 마시고 거기서 DMZ 물을 마시고 손에 적시고 씻었을 때 함께하고 그들도 이 물을 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난 또 그 생각도 했다. 한 까치가 북한쪽으로 날아갔는데 까치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다. 새조차도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북한, 우리는 한 민족인데 왜 우리는 가깝지 않은 척을 하고 서로와 계속 멀어지려고 할까?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2일차 탈북 강사와의 대화는 나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북한 친구를 사귀고 싶게 만들었다.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후 이어진 강의도 살짝 지루했지만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김질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노래가 우리의 상황과 같은 것 같아서 적고 마무리 하려고 한다. 정말 즐겁고 기뻐던

나의 캠프여 이젠 안녕 하지만 통일은 이제부터 안녕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도라전망대)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2조
- 2.학교명/학년 :서울 자운초등학교 / 5학년
- 3.성명 : 신예진
- 4.소감문

비록 1박 2일이었지만 1차 캠프 때 보다 한 발자국 더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값진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나 한 명이라 선생님께서 학교 대표라고 이야기  
 해주시는 바람에 부담감이 있기도 했지만 그 만큼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나는 통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나오는 상관이 없다고만 생각하기만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나쁘다는  
 생각만을 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통일 전망대에도 가보고, 땅굴도 가보면서 또  
 가요제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나 하나부터 발걸음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 3땅굴은 2~3년 전쯤에 가본 적이 있었다. '가본 곳이니까 그냥 갔다만 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내 생각이 한 발자국 성장한 건가?' 하는 생각처럼 다른 느낌이었고  
 예전에는 '재밌다'로 끝났는데 이제는 '재밌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이곳에서 어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두 곳의 전망대에서는 눈으로도 보이는  
 북한이라 부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한 나라라는 사실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 모두를 기쁘게 할 통일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양덕여자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오지선
- 4.소감문

이 통일 캠프를 하기 전, 난 통일이 매우 먼 일이라고 생각했다. 70년 동안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각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로 인해 문화의 차이 등 다른 생각으로 인해 역사적으로는 한 민족이었으나 사실 다른 나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 시간 통일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다. 통일은 우리나라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사회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다. 그 때 문득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미국 못지 않은 선진국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사회시간은 통일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성격이라 난 통일과 관련된 캠프를 찾아보니 통일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통일리더캠프에 오게 되었다. 부산에서 했던 통일리더캠프는 나에게 많은 배경 지식과 통일에 대한 정보를 더해주었다. 캠프를 통해 통일에 대해 알아보니 통일은 한순간에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통일을 준비하고 더 공부하기 위해 다시 이번에 오게 되었다. 사실 나는 창원 쪽에 살아서 파주까지 올 일이 없어서 통일 전망대에 오지 못했는데 이 캠프를 통해 통일 전망대에서 비록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고, 제 3의 땅굴도 보았다. 제 3의 땅굴을 보면서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 때 문득 우리가 분단이 되진 않았더라면 이런 힘든 일은 겪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자리를 나섰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서 쉽게 통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었다. 그리고 탈북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탈북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통일 강사선생님 더 자세히 통일에 대해 알려주시니까 정말로 통일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캠프를 빌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 캠프를 나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지역 친구들이나 어른들 선생님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고 올해는 통일 캠프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에 다시 참가해야겠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9조
- 2.학교명/학년 : 조치원여자중학교/ 3학년
- 3.성명 : 유수민
- 4.소감문

서울역 현대자동차 앞에서 모두 조가 모여 출발해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도착했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주민들의 궁핍한 삶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파주로 가 군인 아저씨들의 검사를 받고 경의선 출경하는 곳으로 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제 3땅굴 견학을 하게 되었다. 4년 전에 엄마와 외할머니와 같이 갔었다. 하지만 감회가 새로웠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북한의 초소부터 256m가량 파놓고 발뺌하기 위해 석탄가루를 묻혀 놓았다는 치밀한 것 같지만 허술한 북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그것을 발견한 김부성씨도 대단했던 것 같다. 군인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제 3땅굴로 들어가는데 총격의 흔적과 선탄가루의 흔적을 보고 이게 뉴스에서만 봤을 땐 멀어보였지만 그 순간에는 이게 정말 실제라는 것이 와 닿았던 것 같다. 제 3땅굴을 보며 왜 북한이 궁핍한 삶을 살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상 하나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계획을 세운 북한의 군인이 좀 안쓰럽기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라산 전망대를 갔다. 도라산 전망대에 가서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분단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배웠고 이것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였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피로 만든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 차례 내 차례가 되어 이 조국의 사명리더이자 애국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진각 역사 관광지에서 주요 세 가지를 봤다. 첫 번째로 실향민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 자유의 날 다리에서 분단되어 있는 경의선, DMZ 증기 기관차였다. 증기기관차에서는 옛날의 소리가 들어있었는데 그 소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때문에 안타까워 우리 실향민들이 우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진으로 담으며 꼭 우리나라 미래 한반도를 위해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백양교에서 나와 연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에 나오시는

윤아영 강사님과의 대화와 이인정 교수님의 “통일 한국의 꿈”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캠프 때 모인 친구들만 통일과 우리 한반도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감고 3초 동안 우리나라를 그렸을 때 남한만이 아닌 전체 한반도를 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랐던 것 같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10조
- 2.학교명/학년 : 신라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이해준
- 4.소감문

지난 3년 동안 나는 열심히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했다. 5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우연히  
 참여하게 된 통일캠프에서는 나는 내가 얼마나 통일에 무관심한 아이였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이제 통일을 이루어 내고 세계  
 평화에 앞서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살고 있는 불행한 북한  
 동포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통일뿐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우수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더욱 흥미롭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나의 경주라는 고향은 옛날 대 신라의 고향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유일한 나라이다.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라에서도 제일 큰 역할은 다름 아닌 화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화랑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해주고 더욱 발전시킨 것이 신라의 삼국 통일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참여한 우리 10조 친구들과  
 120명의 우수 학생들이 화랑도의 정신을 이어 받아 더 이상 전쟁 위협과 이산가족문제를  
 없게 만들 수 있는 통일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통일 한국의 미래는 세계  
 강대국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이 붙게 되며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한반도가 될 수 있다. 나는 꼭! 통일 한국을 이루어내는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  
 할 거고 또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분단의 슬픔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소감문]

- 1.지역(차수/조) : 마무리 / 38차 / 8조
- 2.학교명/학년 : 신천중학교 / 1학년
- 3.성명 : 조영은
- 4.소감문

이런 말이 있다. 올림픽 선수들을 경기 하루 전에 데리고 스카이다이빙을 시켰을 때, 자진해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금메달감이며 먼저 한사람을 보고 자신감이 생겨 뛰어 내리는 사람은 은메달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 내리기라도 한 사람은 금메달감 이라고 했다. 우리는 남, 북한이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서로에게 통일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메달을 받지 못할 행위이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크게 바뀌는 건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는 그것을 이번 통일부 마무리 캠프에서 강하게 깨달았다. 나에게 우수자로 통일부 마무리 캠프에 갈 수 있다는 연락이 왔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설레었다. 큰 기대를 갖고 이 캠프의 버스가 향한 곳은 오두산 통일 전망대였다. 비록 흐리긴 했어도 내 눈으로 직접 북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비롭고 새로웠다. 북한을 생각보다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내 기대보다 더 큰 감동이 밀려왔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우리와는 생각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그 후 12월 14일(오늘) 강사님들의 북한 실제상황을 보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린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위험한 철도에 앉아 돌을 깨고 있는 모습에 캠프 전에 알고 있었던 “아이들을 사랑하는 북한”이라는 내 인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사실 나는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정확히 따지면 반대 측에 가까웠다. 통일 비용과 주변 국가들의 시선을 감당해 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군사비와 통일 비용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찬성 측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특히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 느끼게 되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재밌었던 체험은 “제 3의 땅굴” 인데 그 엄청난 깊이의 굴을 걸어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게 나에게서는 너무 의미가 컸다. 평생 다시는 해보지 못할 큰 경험을 한 것 같아 정말 행복했고, 그 순간의 감동을 최대한 느끼고 만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감동을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족, 친구들에게도 전해줄 예정이다.